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
한 장의 사진 속에
한 가족의 행복이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9월 19일) · 주간

제963호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 위험해 빠지지 말라.

경주 황룡사 복원 전진기지 들어선다

문화재청·경주시 10월 21일 연구센터 기공식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황룡사 복원이 본격화된다. 황룡사 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교계와 대구 · 경북 지역 대선 공약으로 이전부터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과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10월 21일 경주 황룡사지 인근 부지에서 '황룡사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경상북도의원, 경주시의원, 관계전문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고, 가상 황룡사 복원 영상물 상영과 대북 · 모듬북 공연, 풍물패 지신밟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황룡사 연구센터는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돼 지상2층, 연면적 2,865㎡의 규모로 건립된다. 전통건축 외형의 콘크리트 구조로 1층에는 홍보영상관, 학예 연구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전시실, 관람 발코니,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또한 센터 내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제작 중인 황룡사 목탑 10분의 1 축소 모형도 전시된다. 목탑 모형은 현재 2층까지 제작이 완료돼 연말까지 8m 높이로 완성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황룡사 연구센터는 황룡사 복원의 기간 시설로 장기간 소요되는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 홍보,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황룡사 복원을 위해 2006년부터 발굴조사와 기초 · 심화연구, 9층 목탑 1/10모형을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복원을 위한 설계 작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 황룡사 전체 복원 사업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 총 4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경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황룡사 복원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기반 구축을 끝냈으며, 2015년까지 복원에 대한 심화 연구와 함께 기본 ·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경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진행된다. 황룡사 전체를 복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29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500여억 원은 높이 72.9m인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는데 쓰인다.

전시 · 관리 · 연구기능 수행
2015년 10월 준공 예정
年 관람객 50만명 기대
9층 목탑부터 전각까지
전체 복원에 30년 예상

또한 이 시기 황룡사 9층 목탑과 함께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알려진 5.7m 규모의 장육존상과 불상을 봉안하는 금당도 복원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마지막 단계로 동 · 서강당, 남회랑 등 황룡사 주요 부속건물을 복원한다. 특히 황룡사 동쪽 일대의 왕경 유적지에는 스님들의 방사와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불교미술공예관 등 시설이 들어서며, 황룡사 진입로를 중심으로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쇼핑거리, 숙박 · 음식을 판매하는 신라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35년 최종 완공될 황룡사 복원 조감도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합창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2일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탄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대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선법합창단과 인순이, 김태우 등 출연진이 함께해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로 풀어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조계종 포교대상 제원 스님·임희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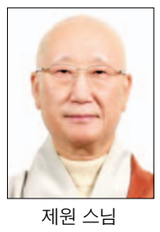
제25회 공동 수상자 선정…24일 전통공연장서 시상식

제25회 조계종 포교대상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제원 스님과 임희웅 포교사단장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15일 "포교대상에 제원 스님과 임희웅 포교사단장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교대상 수상자는 스님과 재가자가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재가자로서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공로상 5명, 원력상에 개인 11명, 단체 1곳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제원 스님은 1992년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 후원으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21년 간 복지분야에서 노인 여가문화, 저소득층의 빈곤지원 등에 앞장서 왔다. 또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해외연수사업, 어린이집 운영 등 포교분야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인 것이 인정받았다.



제원 스님



임희웅 단장

제원 스님, 복지포교에 전력
임희웅 단장, 재가자로 첫 대상

임희웅 포교사단 단장은 재가자로서는 첫 대상수상자로 1996년 종단 포교사 자격 취득 이후 일반포교사를 배출하고 포교사단이 재가불자들의 대표 신행단체로 자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인 포교대상 공로상은 인천 수미정사 회주 종연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이병인 · 이영경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 이현수 전 직할교구 신도회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포교대상 시상식은 10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63호 INDEX

시방세계 5
불광사 중창불사 회향법회 현장



종합 3
홍대 청소노동자 찾은 조계종 노동위
근현대 불교문화재 총망라 보고서

복지 7
창립 10주년 맞는 지구촌 공생회

강의실 중계 8
前중앙승가대총장 종범 스님

학술 9
"수월 스님, 경허 스님 법제자 아니다"

테마로 읽는 사찰기행 12
구례 사성암

해외 18
미얀마, 여성 출가자 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1일 개회

15일 회기로…예산안 심의 · 인사안 등 다뤄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가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은 10월 16일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96회 정기회 운영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11월 1일 정기회를 개회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종정감사를 정기회 휴회 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며, 11월 11일에 속개해 안건들을 다루기로 했다.

이번 중앙종회는 이월안건인 불교임상의료원 수행법 제정안과 승가고시법 개정안, 한글 의례문 '천수경' 동의의 건을 비롯해 △201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지선 스님 고불총림 방장 추대의 건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의 건(성우, 대원, 성파, 지성 스님) 등의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제196회 정기회 의안접수 마감일은 10월 25일이며, 종책질의 접수는 10월 27일까지 받는다. 신중일 기자

버스웰 교수, 英판 '불교대사전'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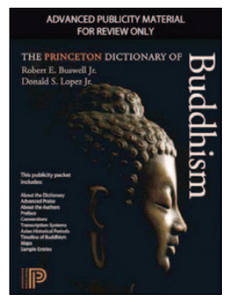
1300쪽 분량, 12000개 불교용어 담아

전 세계의 불교 현황과 불교 용어를 영어로 총정리한 영문판 불교대사전이 출간된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는 도널드 로페스 교수(美 미시간주립대)와 10년간 공동작업 끝에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를 이달 말 출간한다. 미국 ·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교 용어의 영문 표기가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프린스턴대 출판부가 펴낼 책은 1300여 쪽 분량에 1만2000여 개의 불교용어를 담았다. 특히 한국학 전문가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책에서 한국불교의 비중을 크게 다룬 것도 특징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 전통인 간화선을 비롯해 한국불교가 각국에 미친 영향과 중국불교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제각각인 불교용어 영문 표기의 혼선을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은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지만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서 미리 예약하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버스웰 교수는 지난 1970년대 송광사에서 출가해 구산 스님의 제자로 5년간 수행했던 한국통이다. 그는 현재 전통강원 교재인 〈사집〉을 영역 중이다. 노덕현 기자

10 · 27법난 33주년 행사 '다채'

기념법회 · 청춘토크파티 등

조계종이 10 · 27법난 33주년을 맞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조속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10월 25일에는 피해관련자 초청 간담회와 기념법회를 갖고 시낭송회 및 합창으로 추모문학예술제를 연다. 11월 중순에는 제주, 광주, 충청 등을 돌며 각 지방 불자들과 10 · 27법난의 진상과 의미를 살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청춘토크파티도 열린다.

정혜숙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자유와 원만을 갖출 때
인간의 삶은 마치 보물섬과 같으니
실패한 빈 손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탐험가가 보물섬을 발견하고 그의 배에 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보석을 가득 싣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어떠한 금이나 보석들보다 인간의 귀중한 삶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르마를 사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보물은 소승, 대승, 금강승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간이 가진 유리한 조건으로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무시한다면 마치 거지가 보석을 주어 유리조각처럼 다루거나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소중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 탐험가가 보물섬에서 빈손으로 헛되이 바다를 건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현상 변경·환수 등 문화재 행정 '도마 위'

2013 국정감사서 국회 교문위, 외통위 관련 부서 지적

2013년 국정 감사에서는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현상 변경 체계의 부실한 관리부터 4대강 문화재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주미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환수에 대한 주장도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0월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한 후 규정에 따른 서류도 대다수 제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보호법 제40조는 문화재 현상 변경 시 착수하거나 완료했을 때 15일 이내에 반드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청은 신고된 착수보고서나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국가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지역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이 허가 사항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은 4,283건의 현상변경을 허가해 줬으나 착수보고서와 완료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건수는 허가기간이 완료된 3,453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919건에 불과했다.

문화재 현상 변경 체계 부실 지적
4대강 문화재 영향평가 허술 비판
미국 內 우리 문화재 환수 주장도

또한 최근 5년 간 제출된 919건의 보고서 중에서도 공사실시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준공도면 등 반드시 첨부해야 할 부속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보고서는 100건도 채 되지 않는 등 문화재 현상변경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103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문화재청은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앞으로 3천 300여명에 이르는 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뒷북' 과태료 부과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 인근에 있는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문화재조사가 문화재청 기준조사비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대강사업 관련 문화재조사 대상 167개 유적, 218개 조사현장 중 약 30%에 해당되는 64개소의 문화재조사가 문화재청의 표준품셈에 따른 기준조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4대장 문화재조사의 기준조사비와 정산비를 검토한 결과 정산비가 기준조사비의 50%도 안되는 조사가 30%(총 218개 중 64개)에 달했다.

정 의원은 "문화재청의 표준 기준조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경우 이는 4대강 문화재조사가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환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0월 17일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확인한 해외 한국 문화재는 15만 2915개인데, 이 중 22.7%인 4만 2325개가 미국에 있다"며 적극적인 환수를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15만 2915점 중 27.7%가 미국에 있지만 최근 5년간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는 70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주미 한국 대사관은 문화재청, 민간기구 등과 함께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현황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현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의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 한국 대사관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자승 스님 취임식 테마는 '검소·화합'

11월 8일 오후 2시 취임식… 大탕평책 제안 예정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식이 11월 8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날 취임식은 간소하면서도 전 종도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10월 16일 중앙종회의장단 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식 일정이 11월 8일로 종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 "자승 스님의 취임식은 연임인 만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취임식에서는 향후 4년간의 종단 운영기조에 대한 전반이 발표될 것"이라며 "선거로 분열된 종도들의 민심을 화합시킬 수 있는 대탕평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31일 첫 공식 일정은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봉사

10월 30일 임기 만료된 자승 스님의 연임 후 첫 공식 일정이 '소외계층 위한 봉사'인 점도 눈길을 끈다. 자승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 당시 첫 일정을 '용산 참사 피해자 조문'으로 시작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현재 추진되고 일정은 10월 31일 오전 자승 스님과 종무원들은 조회를 열고 새 집행부의 시작을 알리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을 방문해, 겨울을 앞둔 지역주민들을 위해 연탄배달 봉사를 할 예정이다.

개미마을은 자승 스님이 지난 2010년 33대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방문했던 곳으로, 300여 가구에 연탄과 쌀을 후원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보우 국사 기리는 문화제 열린다

태고종, 10월 25일 제3회 태고문화축제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10월 25일 서울 북한산 태고사에서 '나라사랑, 북한산 사랑, 희망나눔'을 주제로 제 3회 태고문화축제를 연다.

태고보우 원증국사 탄신 712주년을 맞아 개최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서로 함께 기획해 소통과 나눔의 축제로 진행된다.

태고보우국사 부도탑서 시작되는 다례재에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유명가수와 국악, 풍물이 어우러지는 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유명 서예가의 붓글씨와 그림이 전시되며, 축제 참가자에게는 무료로 배포된다.

또한 300여개에 달하는 청사초롱에 누구나 자기 소원을 담은 소원지를 붙이는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태고종의 축제 관계자는 "우리의 전통불교문화와 현대음악이 함께하는 문화의 향연을 통해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대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교육부장 정도스님 임명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에 정도 스님(양산전법회관 주지 · 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 정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불교교학과 수행 발전과 종단 승가교육의 정체성확립에 앞장서 오신 분으로 알고 교육부장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정도 스님은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선 교육기관에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면서 승가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좀 더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교육부장 정도 스님은 1985년 도승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1985년 사미계를, 1991년 구족계를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각각 수지했다.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도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한 뒤 조계종 교수아사리와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10·27 법난 33주년 기념식

1980년 전두환 국사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 · 27법난'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최대의 수난사이자 한편으로는 한국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명의 스님과 불교신도들을 연행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대표적인 탄압사례인 '10 · 27법난'이 벌어진지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10 · 27법난'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5일**(金)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기념식 : 1부 기념법회
2부 추모문학예술제
• 시 낭송회
• 추모공연

▷ 문 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조계종 사회부)

2013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2,3급 승가고시 열린다

30일부터 한국문화연수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조계종 고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제2급, 제3급 승가고시를 개최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올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81명, 비구니 85명 등 총166명의 스님이, 3급 승가고시는 비구 267명, 비구니 168명 등 총435명의 스님이 응시했다.

2급 승가고시는 오는 29일 오후5시까지 입교해 다음날인 30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3급 승가고시는 '비구1차', '비구2차', '비구니' 등 총3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교육원은 이번 승가고시는 예년과 달리 고시 하루 전날 입교해 응시해야 한다고 응시자 스님들에게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첫 출전 사관생도 나란다 축제 공동 대상

민경철 · 김지현 생도 수상 영예

제5회 나란다축제에서 신설된 사관생도 부분에 육군사관학교 민경철 생도와 육군3사관학교 김지현 생도가 공동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각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10월 18일 제5회 나란다축제 중 · 고등 · 군장병 부문, 사관생도 부문 등에 대한 개인상과 단체상, 특별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만점 수상자를 배출했던 군장병 부문은 올해에도 만점 수상자를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호국비룡사에서 시험을 치룬 허재준 상병(1포병여단 898대대 2포대)과 호국장영사에서 응시한 고준태 일병(육군 군수사령부 제6탄약창 본부중대)이 공동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 장병들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각 100만원이 지원된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문은 안양 연현중학교 3학년 박진영 학생(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동국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전준석 학생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2회 은정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비정규 노동자들의 아픔, 명상으로 달래요"

홍대 청소부 찾아간 조계종 노동위 상담소 '도반'

"사랑의 마음으로 연인의 마음으로 수희의 마음으로 평등의 마음으로 평정의 마음으로 나의 에너지를 당신께 드립니다."

10월 15일 낮 12시 30분 홍익대 무용실, 이완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의 대중은 서로 짝을 지어 자비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때로는 화기애애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른 점심시간을 가진 이들은 다름아닌 집단 해고로 아픔을 겪었던 홍익대 청소 · 경비 · 시설 업무 노동자들이다.

일명 '홍대 청소부 아줌마'라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이들이 조계종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 위원장 종호)가 주최하는 프로그램 '도반'에 참여한 것이다. 노동위는 지난 4월 노동문제의 불교적 해법 실천 방안의 하나로 불교 상담 개발원과 함께 노동자 심리 상담센터 '도반'을 개소했다. 지금까지 노동위는 해고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 집단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3회의 템플스테이도 개최한 바 있다.

노동위 양한웅 팀장은 "공무원, 철도 해고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35회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해고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감이 증폭되어 우울, 불만이 심해지면서 가족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담과 템플스테이 명상 등을 통해 노동자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선업 스님(행복치유 센터 원장)이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 역시 노동위의 이런 취지를 이어가고 있었다. 학교측과 용역업체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 됐다가 다시 복직한 바 있는 홍대 청소 노동자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다.

점심시간 이완명상 프로그램 진행
개별상담 · 템플스테이도 반향 커
11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제



조계종 노동위가 10월 15일 홍익대 청소노동부의 작업 현장을 찾아 이완명상을 실시했다. 노동위는 지난 4월 노동자 심리 상담센터 '도반'을 개소, 해고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 집단 상담, 템플스테이, 명상 프로그램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숙희 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분회장)는 "노동위에서 주최했던 마곡사 템플스테이에도 참여한 바 있다. 사찰 문화체험을 하며 그동안 지쳤던 심신을 달랠 수 있어 회원들 모두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스님이 현장에 직접 찾아 오셔서 이완명상을 진행해주니 지난날의 아픔이 녹아들고 심신도 맑아지는 듯하다"고 소감을 전한다.

노동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두드려주고 호흡을 하면서 이완명상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다. 명상을 마친 서복덕 씨(59)는 "마음을 비우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시간만 된다면 자주 명상을 하고 싶다. 스님이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템플스테이에도 참여한 바 있는 김금옥(61) 씨는 "템플스테이에서 숲속 명상의 길을 걸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모든 근심 내려놓고 명상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얘기했다.

이번 수업은 이완-집중-몰입을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선업 스님은 " 관찰을 통한 이완명상이다. 모든 존재는 행복해지려 한다. 명상의 정도와 행복은 비례한다.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명상을 체험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노동위는 앞으로 공간이 확보 되는대로 노동자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명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노동위는 11월 9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비정규 노동자 추모제를 연다. 전태일 열사를 기념해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 대회 전야제 공식 행사로 열리는 행사에서 노동위는 산재 등으로 사망한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추모한다. 이번 추모법회는 노동위원회 노동위원이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생인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신중작법, 바라춤, 회심곡, 염불 순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정부의 불안정한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노동위는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 노동자는 2012년에 1864명이었는데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 노동자였으며 이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다"며 "이번 추모제를 통해 한국 사회 최대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자비, 사랑과 책임감도 동시에 가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전국 산재 근현대 불교문화재 총망라

불교문화재硏,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보고서' 발간

근현대 불교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2013년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에서 실시하는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조사연구 사업'을 맡아 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근현대 시기 불교조각, 불교회화, 공예 및 전적 분야 81건의 유물이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주요 유물을 살펴보면, △공주 신원사 소림원의 '불입상(佛立像)' △양산 통도사 '마애삼존불좌상(磨崖三尊佛坐像)' △진주 의곡사의 '괘불도(掛佛圖)' △서울 흥천사의 '감로도(甘露圖)' △ 공주 마곡사의 '대선사금호당진영(大禪師錦湖堂眞影)' 등이다.

특히 불교 전통의 보존과 대중 불교의 전환을 보여주는 용성 스님의 '조선글화엄경 및 육필원고'가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책은 3 · 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백용성 스님(白龍城, 1864~1940)이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한글로 번역한 경전이다. 전북 장수 죽림정사 용성기념관에 〈조선글화엄경〉 초판본 12권 완질과 그 육필원고가 소장돼 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마곡사 대선사 금호당 진영. 총 81건의 유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조사됐다.

근현대 불교문화재 81건 수록
문화재청,문화재 등록 계획도

흥천사 감로도의 경우 일제 강점기 사회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 등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 대거 실렸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한국불교는 1,700여 년간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여 전통성이 강하지만, 근대기에 유입된 천주교나 기독교에 비하여 신문물 성격의 근대성이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역사의 단절 없이 지속해서 민족성을 살린 전통을 보존함과 동시에 불교를 대중화하여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불교로 전환하는 일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근 · 현대 불교 유물을 선정하고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미래부 선교문건 관련 예방교육 권고"

문체부, 15일 종평위에 자문회의 결과 회신

과도한 선교 계획으로 물의를 빚은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의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직원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실토록 권고했다.

문체부는 10월 15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 자문위원회 결과를 회신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개인적 문건이라 종교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기독선교회 사업계획안은 한 과학전문지를 통해 알려졌으며 전 직원의 복음전파와 기독문화 창조를 목표로 하는 등 과도한 선교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조계종 종평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해당 문건 작성 경위와 배경조사 및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위반사실 조사 등을 요구했다. 신중일 기자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불시넷 18일 성명 발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휴)가 밀양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시넷은 또 오는 11월10일 밀양주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를 위한 '밀양 화쟁버스' 도 조직한다.

불시넷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부품 재검증 결과 제어케이블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년 8월 신고리 3호기 가동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시급하다 '는 논리는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이 70~80대인 마을 주민들이 뒷산 송전탑 예정지를 지키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삶터를 한순간에 빼앗길 처지인 사람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관장	종상	재무	종천
학장	덕민	사회	종민
선원장	종우	포교	성요
총무	종천	호법	각천
기획	정문	사서	정빈
교무	정수	회계	성명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중일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일 주 문



서화전 및 문집출판회

前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10월 20일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옹산 숭담의 선묵유희' 서화전 및 고희 문집 출판회를 개최한다. 서화전은 30일까지.



법왕 추대위 출범 선포 대법회

세계불교법왕청 법왕 추대위원장 목탁 스님은 10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법왕추대위 출범 선포대법회를 봉행한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연구기관장 위촉

△인간과 미래 연구소장 고재석 △생체분자화학연구소장 공영대 △식품바이오안전연구센터장 신한승 △의료융합기술실용화연구원장 김성민 △차세대 에너지·전자재료 연구소장 노용영 △염증종결 기반 미래혁신신약연구센터장 이창훈

장수 성관사 조실 무지당 월성 스님 입적

10월 12일 법납 55세, 세납 79세로



평생을 수행과 전법교화에 힘써 온 전북 장수 성관사 조실 무지당 월성 스님〈사진〉이 10월 12일 오후 1시 경내 중화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납 55세, 세납 79세.

스님의 영결식 및 다비식은 10월 14일 오후 2시 장수 성관사에서 엄수됐다. 1935년 5월 7일 충북 보은에서 출생한 월성 스님은 1955년 3월 17일 가야산 해인사에서 운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에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5년에는 서울 영등포에 성관사를 창건한 이래 경기도 송탄, 장수, 남양주에 같은 이름의 사찰을 잇달아 세우고 포교에 매진했다. 또한 양재동 정중선원과 성관사 내 대각선원을 개원하는 등 수행종풍 진작에도 힘썼다. (063)353-0396

전국일붕문도중앙회 명예회장 도기 스님 원적

10월 16일 법납 59세, 세수 76세로



(사)초대법왕 전국일붕문도중앙회 명예회장이자 일붕신문사 회장인 도기 스님〈사진〉이 10월 16일 새벽 1시 20분 원적에 들었다. 법납 59세, 세수 76세.

도기 스님은 일붕 서경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영주 실천승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불교 발전에 많은 활동을 해왔다. 또한 어린이집을 23년 운영하는 등 어린이 포교에도 앞장서 왔다. 군불교 진흥을 위해 매년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군장병 위문법회를 봉행했으며, 6월에는 호국 영령 위령재를 열었다. 한편, 도기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0월 20일 주석처인 영주 관음사에서 (사)초대법왕 일붕문도회장으로 봉행됐다. **신중일 기자**

"사회 목탁 역할 할 때 진정한 공무원 불자"

공불련 제9대 회장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 연임



10월 13일 대의원총회서 연임 결의
매일 아침 금강경 독송·108배
직능단체 연계 등 다양한 활동 다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보다 더 탄탄한 조직체로 만들어 불교계 대표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이하 공불련)가 10월 12~13일 고창 선운사에서 대의원총회 및 창립1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제9대 회장으로 김상인 행전안전부 조직실장(사진 · 56)을 선출했다.

김상인 회장은 이날 "공무원불자들은 공무를 수행으로 삼아 상구보리하고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화화중생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리이타의 삶을 완성하겠다는 큰 원력을 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편 국가발전과 안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 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김상인 회장은 "교세가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활성화와 기관별 불자회의 결성이 시급하다" 며 "공불련 불자 모두 포교사가 되어 공무원불자 배가 운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대학시절 불교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김 회장은 매일 아침마다 〈금강경〉을 읽고 108배를 하는 독실한 불자다. 김 회장은 직능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부터 행안부 불자회를 구성해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김 회장이 서울 법련사에서 1주일에 1번씩 법회를 진행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불자회장인 김 회장과 총무 둘이서 법회를 하곤 했다. 그러던 행안부 불자회 회원은 어느새 90여 명으로 늘었다.

김 회장은 현재도 법련사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공불련은 템플스테이, 3000배, 경전독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회원 외에도 다양한 직장직능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240개 정부 기관에 공무원불자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13주년 기념법회에서는 한빛원자력 음악동아리의 공연과 108배, 지장경 독경, 금강경 독송 등이 진행됐다. 공불련 회원들은 13일 새벽예불에 이어 도솔암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난치병 어린이 돕기' 불교·천주교·개신교 힘 모아

10월 12일 한신대 운동장에서 사랑의 대바자회 개최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인근 기독교계와 힘을 모아 바자회를 개최했다.

화계사와 송암교회, 수유1동성당 신도 100여 명은 10월 12일 서울 한신대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사랑의 대바자회' 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신자들이 기증한 1000점이 넘는 옷, 구두, 음식 등의 물품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63개의 부스에서 판매됐다.

불자들을 비롯한 각 종교 신자들은 바자회장에서 물품과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며 행사를 도왔다. 화계사 스님들도 직접 물품을 파는데 힘을 보탰다.

화계사를 비롯한 수유지역 3대 종교 신자들은 매년 바자회를 열어 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모으고 있다. 이 수익금은 백혈병, 터너증후군, 연골무형성증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달된 기금만 총 7억 4000여 만원에 달한다.

바자회의 연원은 14년 전 당시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과 수유1동성당의 이종남 주임신부, 박송화 송암교회 목사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이후 신도들이 주축이 돼 매년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3년째 바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화계사 청정행 보살은 "바자회를 함께하면서 서로 안 좋게 보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서로 합심하니 효과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난치병 아이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도록 세 종교가 앞으로도 함께 화합하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공주 개명사 신축법당 상량식

17일, 종정 도용 스님 등 1000여 대중 운집

지난 2011년 법당 신축불사를 시작한 공주 개명사의 상량식이 진행됐다.

개명사(주지 영제 스님)는 10월 17일 경내에서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도정 스님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도용 스님은 "지극한 정성 모아 공덕을 닦으니 큰 복 밭을 이루었구나. 호법성중 찬탄하며 불보살님 가피하니 일심으로 동참하여 청정도량 이루어라"라고 법어를 내렸다.

한편 상량식은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감사원장 춘광 스님)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오윤식 신도회장) △개회사 △상량문(교무부장 경혜 스님) △청법가 △법어 △치사 △축사 △권공축원 △상량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개명사 신축법당 상량식 모습

제4회 팔공산 승시축제 성료



스님들의 옛 산중장터를 재현하는 제4회 승시축제가 10월 11일~14일 대구 팔공산 씨네80자동차 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힐링토크쇼와 가요제, 법고 경연대회, 스님 씨름대회, 소리꾼 장사의 초청음악 등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공연과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개최됐다.

11일 개막식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등 각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중양절 천도법회



해인사 원당암(감원 원각)은 10월 13일 '중양절' 을 맞아 천도법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해 과일과 햇곡식으로 천도법회를 열었다. 옛명절의 하나였던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은 주로 궁정에서나 선비들과 같은 유한 계급층이 교외로 나가서 풍속놀이를 하는데. 시인, 묵객은 시를 짓고 읊으며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를 즐겼다고 전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산악인 故박영석 대장 2주기 추모제



2011년 10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남벽에서 코리안 루트 개척에 나섰다 실종된 산악인 故박영석 대장(동국대 체육교육93졸)의 2주기 추모식이 10월 17일 모교인 동국대 중앙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식은 정창근 동국대 경영부총장을 비롯해 故박영석 대장이 학창시절 몸담았던 동국산악회 선후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석 대장의 산악그랜드슬램 달성 기념 동판 부조 앞에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믿고, 바로알고, 바로 행하고, 바로 깨닫는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화산 용주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 성 무 기획 인 해
재무 응 진 교무 덕 현
사회 본 각 포교 중 원
호법 성 유 박물관장 보 승
연수 대 현 신도회장 해인화



■ 부설 : 효행교육원, 템플스테이,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www.yongjoosa.or.kr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구. 송산동 188번지)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근본도량 모악산 금산사

주 지 월 주
도 감 영 우
사 무 국 장 성 월
교 무 국 장 림 행
포 교 국 장 지 원
재 무 국 장 덕 신
호 법 국 장 화 원
총 무 국 장 평 융
기 획 실 장 태 혜
교 육 국 장 공 산
조 직 국 장 금 산
회 계 국 장 자 산



신도회장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맞은편 불광교육원 건물에서 바라본 불광사 신축법당 전경. 지상 4층까지는 현대 건축양식에 따라 대리석 건물로 꼭대기인 5층에는 전통양식의 대웅전을 올렸다. 지하 5층 포함 연건평 3000평 규모다.



불광사 중창불사에는 2만명이 십시일반의 힘으로 300억원을 모금했다.



이날 보광당에는 2000여 대중이, 대중전과 만불전 등 각 법당을 통틀어 5000여 불자들이 운집했다.

“수행·포교·나눔정진…불국 이룰 터전일세”

10월 13일 불광사 중창불사 회향…5천 대중 운집

“온누리 모든 국토 불국 이룰 터전이며 형제와 이웃들은 문수 보현 화현이라. 구세원력 함께 뭉쳐 불국토를 이룩하니, 아아아아! 우리는 영원한 불광 불국의 역군이라.”

2000명을 수용하는 서울 잠실 불광사의 보광당이 보현행원을 서원하는 대중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도심포교의 성공적 모델인 서울 잠실 불광사가 중창불사 원만회향식을 개최한 10월 13일 지하 대법당인 보광당, 지상의 대웅전, 만불전 등에는 5000여 대중들이 운집해 한마음으로 제2의 불광운동을 서원했다.

불교의 현대화、대중화、생활화를 기치로 한국불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서울 잠실 불광사는 이날 신축법당 준공법회 및 회향식을 개최했다. 불광사 신축법당은 연건평 9664㎡(3000평)의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 현대 건축양식과 전통 불교건축양식이 어우러진 건물이다.

지상 1층에는 종무소 및 열린공간이, 2층에는 요사채, 3·4층에는 만불전과 시민선방, 5층에는 대웅전이 자리한다. 지하 1층에는 공양간과 수유실이, 지하 2층에는 유품전시실과 보광당 발코니가, 지하 3·4층에는 보광당이, 지하 5층에는 주차공간이 마련됐다. 지하3층의 발코니 석까지 보광당은 총 2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지역 최대 법당이다.

이날 신축법당 준공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등 스님 300여 명과 前불광법회장 송석구 가천의대 명예총장, 이형 불광법회장 등 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모인 대중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이들의 마음은 모두 기복불교의 세태에서 수행과 포교, 나눔의 정진을 떨친 불광운동을 다시 금 펼치는데 모아졌다.

광덕 스님 뜻이어 제2불광운동
교육원·문화원 지역에 개방

이날 지홍 스님은 “1970년대 이후 한국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던 불광사의 중창 불사는 단지 건물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걸맞은 제2의 불광 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광덕 스님의 도심포교 개척정신을 이어 받아 지역사회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하는 중추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1982년 이곳에 자리한 불광사는 호법도량이자 선지식들이 모여 법석을 벌였던 곳”이라며 “그 역사를 불광대중이 이어 받아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의식에 이어 자심행 불광법회 부회장의 선창에 맞춰 모든 대중은 한 목소리로 서원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돼 온 누리에 불국토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구국 구세의 서원으로 끝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김선학 거사는 “불광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삶이 먼저 변한다는 것”이라며 “부처님의 빛을 전하는 불광의 길을 걸으며 도반들을 만나고 스님들을 뵈며 절로 신이 나고 함께 도반들로 인해 삶이 즐겁고 따듯해졌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날 중창불사 회향식은 막을 내렸다.

한편, 불광사는 이날 법회에 이어 제2의 불광운동으로 교육문화사업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현재 구축한 교육원과 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개방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불광아카데미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10월 19~20일 신축법당 보광당에서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는 등 해외 유수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는다. **(학술포럼 본지 962호 B8면 게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모두가 불광사의 주인입니다”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앞으로 불광사는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의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불자들에게는 신행과 믿음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3일 “신축불사에는 불자 2만명이 십시일반의 힘을 보탰다”며 불광사 중창불사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2005년 10월 시작된 불광사 중창불사는 8년 동안 진행됐는데 불사비용 300억원을 순수 불자대중의 힘으로 진행했다.

“적게는 만원부터 많게는 억대 성금까지 모두가 ‘내가 불광사의 주인’이란 생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도대중의 주인의식 덕분입니다. 이제 불광사는 신도와 우리 사회의 열린공간으로 새로운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스님은 “신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불교공동체로,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하도록 불광사, 불광회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심포교의 선구자 광덕 스님의 바라밀 실천운동

한국 불교 도심 포교의 개척자로 꼽히는 광덕 스님(1927~1999)은 근현대 용성, 동산 스님 등의 대각 사상을 대중화한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다.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광덕 스님은 1952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출가한 이후 ‘반야바라밀’로 대표되는 기존 기복불교를 넘어 법(法) 중심의 신행체계를 확립한 바라밀 실천운동을 펼쳤다.

광덕 스님은 그 실천정신 하에 일생동안 30여 권의 불서를 번역하거나 저술하기도 했으며 각종 찬불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광덕 스님은 1999년 2월 27일 문도들에게 ‘불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유지를 남기고 입적했다.

240개 법등과 39개 지역구 법회로 구성된 ‘불광회’

불광사의 모태인 불광회는 광덕 스님이 1954년 부산에서 사랑방 법회를 여는 데서 시작됐다. 1974년 광덕 스님은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하고 정기법회와 함께 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 창간, 경전 한글 번역, 찬불가 제작, 사회봉사활동 등 한국불교의 영역을 넓혔다. 불광회는 1982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불광사를 세운다. 불광회는 ‘구역’ 개념을 도입해 구역법회를 열었다. 불광회는 현재 2만 여 명의 회원이 법등(法燈)이라는 지역조직 240여개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 먼저 39개 지역구 법회가 중심이 되며 하나의 구법회에는 5~6개의 법등이 조직돼 있다. 각 법등은 15명 내외 가족으로 구성돼있는데 각각의 신도들은 법등에서 함께 신행활동을 진행한다. 법등에서는 매월 한달에 한번씩 자체법회를 가정법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경조사가 있을 때는 서로 돕는 등 유대관계를 지속해간다. 3개의 구법회는 거사들로만 이뤄진 거사회이며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연화부와 보문부도 있다.

이밖에 호법회원이 따로이 있다. 호법회원은 현재 4000여 명으로 평균 1만원 이상씩 호법 봉납금을 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Hwagyesa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사부대중일동

三角山華溪寺

주소 :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번지 http://www.hwagyesa.org
☎ 02) 902-2663 / Fax : 990-1885



인연맺기, 무료예식, 관광…동체대비 삶 실천해요

사찰 · 신행단체 다문화지원사업 활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이 145만 명에 육박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찰 · 신행단체가 다문화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무료예식행사, 외국인신부 인연맺기, 독감예방 백신접종을 비롯해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학교를 설립하는 등 다양하다.

중앙신도회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에서 운영하는 **반갑다 연우야** 봉사단(단장 황채운)은 지역 보건소와 지역병원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및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통합진료와 독감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을 위한 불교계 최초로 시행되는 활동이다.

반갑다 연우야 봉사단은 "급격한 일교차로 독감이 유행하는 요즘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외받고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해외 이주민들에게 건강과 따뜻함을 선물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후원하는 독감백신 약 700명분을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초 까지 경기도 세 지역(오산, 김포, 동두천)의 보건소와 지역병원에 기증하기로 했다"며 "지원된 독감백신은 지역 보건소와 지역병원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에게 접종되며, 반갑다 연우야가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던 양 · 한방, 치과, 안과 등의 통합진료도 백신 접종과 함께 진행된다"고 말했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10월 20일 경내에서 '오색 빛깔 다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반갑다연우야, 독감백신 접종
봉은사, 문화축제와 무료결혼
나눔과 비움, 다문화 대안학교 개원

사회복지법인 봉은과 THE 나눔 플러스가 주관한 이번 다문화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졌다. 특히 경내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준비한 장터에서는 국가별 음식과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 다문화 공연이 마련됐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 3쌍을 위한 결혼식도 거행됐다.

봉은사는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도량 중 평화결사도량'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같은 다양한 민족간의 공존과 평화,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오산 '행복한 학교'가 지난 9월28일 개교했다(사진 왼쪽). 반갑다 연우야는 11월 초까지 다문화가정 및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위한 통합진료와 독감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사진은 반갑다 연우야 의료봉사 활동 모습(사진 오른쪽)

불교계가 지원하는 최초의 다문화 대안학교도 문을 열었다.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상임대표 정호, 오산 대각사 주지)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업과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 9월 28일 '행복한 학교'를 개원했다.

나눔과 비움은 2010년부터 꾸준히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설립을 준비했다. 2011년 법인설립시부터, 다문화대안학교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토요학교 운영 등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행복한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일정기간 위탁 교육해 공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 9일 첫 위탁생을 시작으로 현재 5명의 공식 위탁생이 재학 중이며, 편입학 서류 준비 중인 6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나눔과 비움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는데 그런 노력들이 모여 오늘 학교가 문을 열게 돼 기쁘다"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08산사순례단(단장 혜자)은 매달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 순례하며 순례단원과 농촌마을의 외국인 신부와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 바로 '108산사 다문화맺기'다.

순례단은 주부 불자들과 순례지역 농촌마을의 외국인 신부들 사이에 '1사 1촌'을 맺어 외국인 신부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행사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후견인인 멘토링 역할을 하는 한편 친정 부모 역할과 농산물 사주기, 친정 나들이 보내주기 운동 등도 하고 있다. 현재까지 160쌍의 인연을 맺어줬으며, 90쌍이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2009년에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을 설립해 다문화사회로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7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조계사와 경복궁 나들이를 다녀왔다. 광릉수목원 가족소풍, 용인에버랜드 나들이, 철원 DMZ 참관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가족나들이 행사로 참여 가족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불교여성개발원은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활동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청소년 심성 개발 프로그램 보급된다

조계종 포교원, 17일 한마음선원과 '한나무 인성교육' 보급 협약

청소년 심성 개발 및 인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급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과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실천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이 2002년부터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크게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뉜다. 교사용은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의 인성교육 교사직무연수에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여름에는 경남지역 교사연수에도 활용됐다. 학생용은 EBS 학습장애 극복프로그램, 수원 세류중 왕따 개선프로그램, 금산 단디학교 해외여름캠프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보급돼 호응을 얻고 있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은 "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앞서 교사 스스로 본인의 마음공부로 감동을 받고 인성교육을 진행해야 겠다는 자극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포교원은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내년 신학기부터 종립학교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2013년 금강선원 혜거 스님의 '청소년 10분 집중명상', 명상상담연구원 인경 스님의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행불선원 월호 스님의 '청소년 힐링캠프 가이드북', 봉인사 적경 스님의 '상담이 있는 명상'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교사 · 학색용 맞춤형 인성교육
내년부터 종립학교서 시범 운영

지원 스님은 "종립학교 뿐 아니라 교사불자회 등을 활용해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보급되도록 종단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 왼쪽서 세 번째)이 10월 17일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장 혜수 스님(오른쪽서 세 번째)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 '숲을 보는 이, 나무를 보는 이'는 '나'는 개별적 존재가 아닌 공동체의 일부로 서로 주고 받는 상황과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나를 움직이는 마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2단계 '마음의 힘'은 이러한 생명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그 무한한 힘인 마음의 근원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3단계 '변화하는 나'는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내면의 힘에 근거해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실천을 하는 과정이다. **현재** 2010년과 2011년 초등용, 중등용,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이 출간된 상태다.

우리는선우, 인문학 템플스테이

인문학 특강, 명상 등 실시…11월 9~10일 서울 금선사서

인문학과 불교문화, 그리고 몸과 마음 치유가 어우러진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조성택)는 11월 9~10일 서울 삼각산 금선사에서 '제1기 인문학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명사를 초청한 인문학특강을 비롯해 다양한 명상수행을 체험할 수 있다.

인문학 특강은 여행하는 인문학자로 알려진 공원국 대표와 불교인문학자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등반장비업체 '산중인'의 대표로 10년째 중국의 오지를 여행하는 공원국 대표는 중국 서부 1만 2000리를 도보로 걸으며 배우고 느낀 중국을 고전과 역사를 통해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EBS석학강좌로 불교인문학의 지평을 넓혀온 조성택 교수는 '호모 메디타티오, 왜 인간은 수행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또한 우리는선우는 △불교문화 해설 △타종 체험 △108참회 및 명상 △만다라 마음 명상 △몸에 대한 명상 △북한산 산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395-9955 **이나은 기자**

대전파라미타, 백제문화답사 참가자 모집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제3회 조상의 숨결을 찾아가는 해외 백제문화답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답사는 2014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일본 오사카와 교토, 나라 등지에 남아 있는 백제문화유산과 일본전통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답사지는 고구려 담징스님이 그린 법륭사 금당벽화를 비롯해 임진왜란의 아픔이 서려 있는 귀 무덤, 일본의 국보1호인 광륭사 미륵반가사유상 등. 또한 나라 동대사와 나라공원, 청수사, 금각사, NHK 방송국 견학 등을 통해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비는 84만원이며 10월18일까지 80명 선착순 모집이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국가·인종·문화 넘어서…"지구촌 공생에 앞장"

캄보디아 우물 2000기 완공, 11월 11일 현지서 기념행사



뜨랑빼야라우금산사 초교에 건립된 우물을 직접 시연해보는 이사장 월주 스님과 사무처장 화평 스님(사진 왼쪽). 생명의 우물이 완성된 후 기뻐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사진 오른쪽).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지구촌공생회는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11~15일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12일 오전에는 캄보디아 따께오주에 위치한 뜨랑빼야뜨라우금산사 초등학교에서 생명의 우물 2000기 완공행사가, 같은 날 저녁에는 프놈펜시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행사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실무자와 후원자를 비롯해 캄보디아 정부 공무원, 지역민,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직원, 코이카(KOICA)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13일과 14일에는 지구촌공생회 사업지 및 우물사업장과 유적지 등을 방문한다.

종교 · 이념 · 인종 아우른 단체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주 스님이 창립한 NGO단체로 현재 1100여 명의 후원자와 조계종 중진 스님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선발이나 사업 진행에서는 포교활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종교, 인종, 이념 등의 경계를 넘어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설립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네팔, 케냐에서 식수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7개 국가에 37개 교육시설을 건립해 5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았으며, 농장 4곳과 저수지 1곳을 구축해 2000여 명이 수확과 자립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밖에 몽골에는 대형관정, 케냐에는 14기의 모터펌프와 핸드펌프, 미얀마에는 12기의 마을 공동물탱크를 지원해 약 20만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케냐에 농장 1곳, 농업용 저수지 1기, 몽골에 농장 1곳을 구축했으며 스리랑카에도 2곳의 버섯농장, 4곳의 유치원, 도서관 1개를 설립해 마을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캄보디아 지뢰제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캄보디아 우물 사업은 2004년 11월 처음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수도 프놈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전무했다. 때문에 캄보디아 영아 사망률의 80%가 물과 관련된 수인성 질환일 정도로 식수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생명의 물' 사업을 시작했고, 우물 하나를 건립하면 그 마을 주민 약 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끊임없는 후원쇄도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5년만인 2010년 1월 생명의 우물 1000기가 완공됐다.

타단체의 모범단체로 자리잡아

지구촌공생회는 우물 건립사업에 있어 타단체들의 모범단체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많은 단체들이 건립 후 관리소홀로 인한 우물이 많은 상황에서 지구촌공생회는 우물의 단순한 수리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수질관리, 수량관리에 초점을 맞춰 우물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월주 스님은 국제개발협력사업분야에서 강행군을 하기로 유명하다. 팔순의 고령에도 1년에 7~8회 해외지부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점검하며 젊은 활동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단체의 후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000기를 넘어 2090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재단, 가수 '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가수 소녀시대,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과 홍보로 이룩한 결과다.

월주 스님은 "우리의 활동이 전 지구촌의 생명을 살리고 빈곤을 해소하여 인류의 고통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한사람, 한사람 후원자의 관심과 정성이 쌓이고 전파된다면 그만큼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와 민족, 인종과 언어, 종교와 문화, 이념과 사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차별하지 않고 돕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의무다. 그리하여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또 다른 행복의 가치를 얻고, 지구촌 공동체 정신이 널리 함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02)3409-0303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캄보디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로터스월드 씨엠립주에 공동자립장 준공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0월 16일 캄보디아 씨엠립주 프놈끄라옴-수원마을에 공동자립작업장 준공식을 가졌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0월 16일 캄보디아 씨엠립주 프놈끄라옴-수원마을에 공동자립작업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원시 염태영 시장,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센터장 지우 스님, 캄보디아 씨엠립 주정부 킴 분송 주지사, 수원시의사회, 수원시 관계자 및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로터스월드는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업무협정을 체결 올해 3월부터 프놈끄라옴-수원마을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사업, 주민의식 제고 및 마을개발 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는 수원마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주민자활의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공동 자립작업장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작업장은 약 318㎡(96평)의 규모로,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작업장 생산제품을 결정,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판매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작업장에 바로 옆에 150㎡(45평) 규모의 탁아소를 건설 근무시간 동안 미취학아동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터스월드와 수원시는 마을공동자립작업장 준공식과 더불어 프놈끄라옴-수원마을 초·중학교에 학용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활동, 한국음식 축제 등의 행사를 펼쳤다.

로터스월드는 2007년부터 수원시와 캄보디아 씨엠립 주정부 업무협정을 체결 학교건물증축, 수원마을 화장실신축 및 우물관정 사업 등을 함께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연수

11월 5~6일 공주서 진행…10월 29일 노인복지포럼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1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를 개최한다.

'팀 리더급 대상 힐링캠프' 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간호사, 회계담당자, 안전관리인, 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해 기관종사자 간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킹과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은 △특강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산하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뜻을 같이 한 다양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만남 △MBSR을 통한 힐링타임(치유프로그램으로 구조화시킨 명상) 등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복지재단은 10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미래복지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6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전반적 현황, 제도의 개선내용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복지재단은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 추천 접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제1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는 12월 5일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개최되며, 불교계 자비나눔 실천가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불교사회복지 실천활동을 공유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불교사회복지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발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하며,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부문, 사회복지발전공헌부문, 자원봉사활동부문 3개의 영역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이면 신청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우편, 이메일(kinos-how@jabinanum.or.kr) 모두 제출해야 하며, 10월 31일 도착분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고하면 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불교복지관, 청소년 진로탐색 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나래꿈터' 10월 17일 개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산하기관인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현민)이 청소년 진로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강남구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나래꿈터' 를 10월 17일 개소했다.


청소년 진로직업센터인 나래꿈터가 개소했다.

서울시로부터 '나래꿈터' 를 수탁받은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강남구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나래꿈터는 '나의 미래를 꿈꾸는 터전' 의 줄임말로 청소년 누구나 센터를 찾으면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센터에서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직업체험 중점학교 등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 연계지원 등을 운영한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전체가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강남구 내 사업장들의 교육기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경남에 사는 친구들의 서울나들이

목동청소년수련관, 10월 24~27일 서울여행 행사 열어

경남지역 청소년을 초대해 서울을 여행하는 행사가 열린다.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지완)은 10월 24~27일 3박 4일간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마을여행' 을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이 2011년부터 3년 연속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행사로 4개의 테마로 나뉘어 운영된다. 1일차 '설렘의 첫째 날' 에는 환영식을 비롯한 여행 친구만들기, 청계천 야경여행으로 첫 날의 긴장을 풀고 서울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끌림의 둘째 날' 에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울5대 미션투어를 펼친다. 3일차 '울림의 셋째 날' 에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민청&서울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투어하며 즐거운 일정을 보낸다. '감동의 넷째 날' 에는 서울여행을 마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상남도 청소년을 위한 즐겁고 새롭고 다채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 청소년을 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2646-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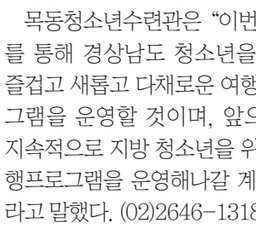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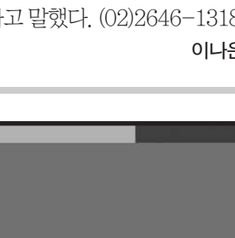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PAL GWAN HOE
www.palgwanhoe.or.kr

10월 15일(화) 오후 3시
팔관회 세미나 대한불교진각종 명륜심인당

팔관회 10월 24일(목)~26(토)
준비일_ 10월 24일(목) 오후 7시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불교영화 상영 '길 위에서'
소회일_ 10월 25일(금) 오후 1시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호국영령 위령대재, 국왕행렬 재현,
호국법회, 대신조하의식, 백희가무
대회일_ 10월 26일(토)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팔관재계 수계법회"
※팔관회 기간 중 각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불생불멸 깨달으면 생로병사 고통서 해방”

구룡사 일요가족법회
종범 스님(중앙승가대학교 명예교수)

‘많다’ 는 말이 부족할 만큼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나고 죽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명이 되는 것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도 어렵기만 하다. 때문에 죽는 게 끝이 아니라 하루하루 잘 사는 게 잘 죽는 일이라고 종범 스님은 이야기한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태어나는 데만 30년, 그 후는 늙어가기 마련

오늘 법문은 인생과 인성이란 주제입니다. 경전에서는 인생의 과정을 생로병사로 설명했습니다. 생에는 태생이 있고 출생이 있고 생성이 있습니다. 태아가 처음 생겨나는 것을 두고 태생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는 것을 출생이라 합니다.

우리는 나이 계산을 할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여기죠. 이는 태아로 있을 때부터 한 살로 친다는 건데, 나이 계산을 만으로 하는 건 출생이 전제 됩니다. 보이는 데 나이를 맞추는 거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태아를 두고 벌어지는 생명존중 논란은 몰상식한 이야기입니다. 태아나이를 한 살로 보는데 이것을 생명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걷기도 하는 생성기간, 사람에게는 이 기간이 30년 정도 걸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태아에서 그 후 30년까지는 '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늙습니다. 인생이 참 별 것 아니에요. 생 다음에 노입니다. 늙음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늙을 노(老)자에 익을 숙(宿)자를 써서 노숙기가 있고 쇠약할 쇠(衰)자를 써서 노쇠기가 있습니다. 30, 40, 50대까지는 노숙기입니다. 점점 인생이 익어가는 거에요. 그러나 나이 60이 넘어서부터는 노쇠해집니다.

죽음의 5단계

이제 병과 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과 사는 같은 것입니다. 병이 나면 죽는 신호라고 보면 되는데, 병이 나서 살아나는 건 그건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병이 나면 생존할지 사망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시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제 1차적인 죽음이 숨지는 것입니다. 숨이 죽는 거고 목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온이 식습니다. 몸이 싸늘해지는 그것이 2차 죽음입니다. 그 다음 3차 죽음은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에는 백골이 흙이 돼서 날아가는 단계, 그것을 4차 죽음이라 합니다. 5차 죽음은 평소 자신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기억마저 사라졌을 때, 그것을 두고 5차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 할 때, 죽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까 하고 생각해보는 죽음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후에도 살아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잘 살아서 천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기억 혹은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느냐, 이것이 죽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만 하더라도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손자의 기억 속에는 고조할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 죽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죽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남겨지느냐에 따라 죽음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이듦과 3고(苦)

노인에게는 빈고, 병고, 독고라는 3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빈고는 가난함에서 오는 고통이고 병고는 말 그대로 병들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늙으면 별별 병들이 다 오기 마련입니다. 병원에 가면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는 사는데 유병장수를 하죠. 그리고 독고는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노인을 싫어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오는 외로움이죠. 이 세 가지 고통을 노인들은 지혜로서 소화해야합니다. 그래야 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아프다고 생색을 내며 주변을 괴롭힌다면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되겠죠.

> “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음이 아냐
> 타인에게 남아있는 자신의 기억이
> 사라질 때 비로소 죽음도 완성
> 나이 들면서 노욕·억담·중담 금해야
> 문 없는 벽을 들이받지 말고
> 나이듦은 새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생각”

나이듦과 3금(禁)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며 주의해야 할 ‘3금(禁)’ 이 있습니다. 첫째 노욕(老欲)을 금해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는 것을 노욕이라 합니다. 2, 30년 걸릴 사업인데 당장 내일 죽을 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노욕입니다. 혼자 하지도 못하면서 꾸역꾸역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어지는 일도 그렇습니다. 책임도 못 지고 감당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일을 자꾸 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추억 억(憶), 말씀 담(談)자를 써서 억담을 금하라고 합니다. 현실생활과는 관련없는 왕년의 추억담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은 현재가 중요한데 노인들은 자꾸 과거를 중요시하니까요. 라면을 먹어도 맛없다고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예전에는 그것도 못 먹었다’ 며 듣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곤 합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왕년이 왜 중요합니까.

세 번째는 중담(重談)을 금해야 합니다. 계속 재방송만 하고 생방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롭게 공부를 하면 생방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품격있는 노인이 되고 죽은 다음에 멋있게 기억이 되려면 이같이 해야 합니다. 말을 듣다보니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연성과 법성

인생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인성(人性)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 자체의 성격, 인성은 연성(緣性), 법성(法性)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성은 인연(因緣)과 맥을 같이 합니다.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없듯 심은 것을 거두는 인과 옷 조각을 꿰매서 옷을 만드는 연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인과 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성입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한테서만 온 것이 아니라 태양, 물, 밥, 먼 인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유전되어 온 것들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연성이라는 것입니다. 옷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실올이 합쳐져야 하듯 우리 몸도 연성인 것이죠.

그렇기에 연성은 자성이 없는 무성입니다. 하나하나 조각으로 떼어내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주먹에 자체 성격이 없는 것과 같아요. 손가락을 오므려야 주먹이 되듯 주먹은 그저 손가락과 손바닥이 모인 것입니다. 몸이란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손가락을 셀 때 엄지를 1번으로 둘 수도, 새끼 손가락을 1번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인생이 1번이 되느냐 2번이 되느냐는 순전히 그 당시의 인연에 의해서 첫째 혹은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섯도 없고 다섯이 없으면 하나도 없죠. 이게 인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선생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법을 모르기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연법에 의하면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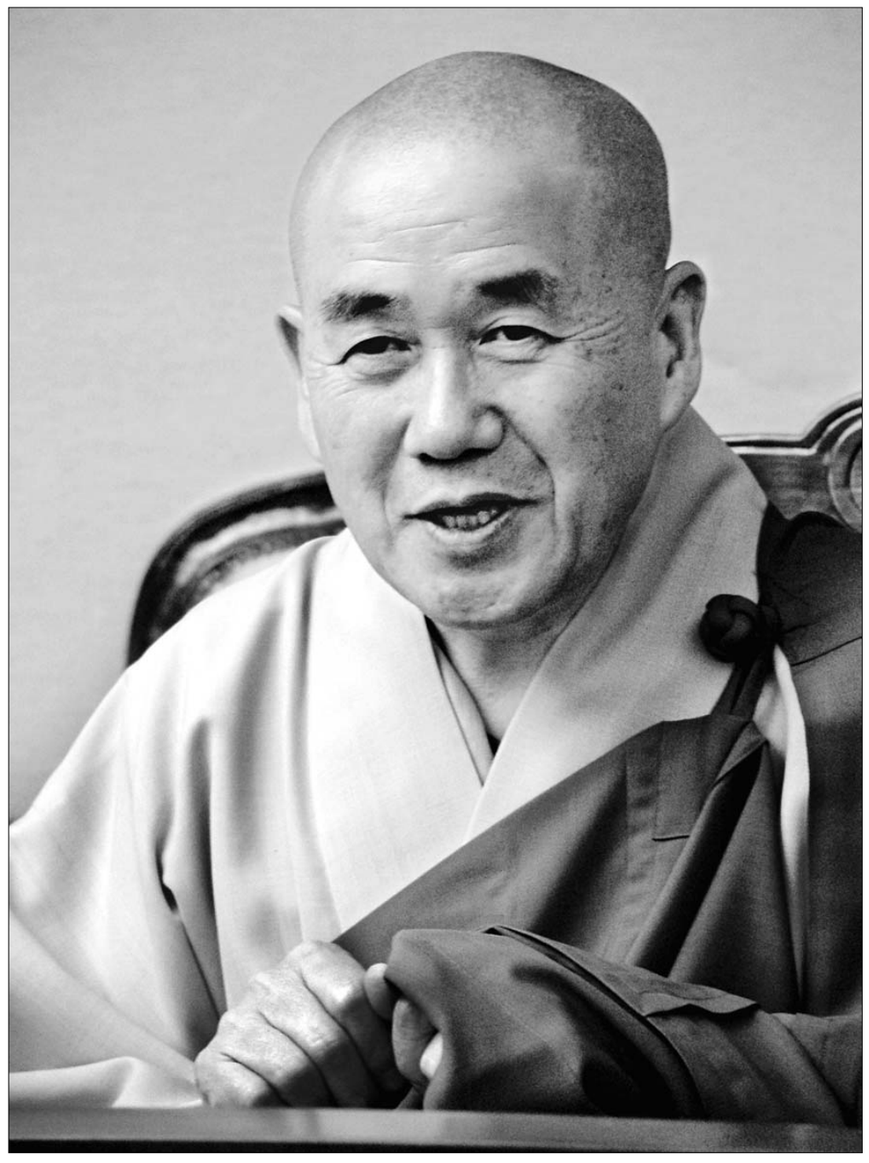
다음에는 법성을 살펴봅시다. 없다는 건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곧 연성이라 하였죠. 유와 무, 하나와 둘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은 하나와 셋 사이에 있는 것이죠. 법성은 둘의 법성이나 셋의 법성이 원융무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지 않고 다 통한다는 뜻입니다. 자성이 없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성격을 삼았다는 거죠.

집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건축자재와 장식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은 전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자성을 삼습니다.

목탁에 구멍을 내기 전에는 허공이 없었나요? 구멍이 생김으로써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났나요? 목탁에 구멍을 만들기 전이나 후나 목탁의 자성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성이 이런 것입니다. 집짓기 전과 집지은 후가 다를 바가 없듯이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같다고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자성이 없는데 같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불생불멸, 법성 속에 사는데 생로병사만 보고 법성을 모름으로써 미혹해집니다. 죽지도 나지도, 하나도 둘도 아님을 깨달으면 그게 해탈입니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몸은 자꾸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안 늙길 바라고 안 죽길 바라는 전도몽상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는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이 없는 벽을 자꾸 들이받아서 머리를 깨려는 미혹한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범 스님은 … 통도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 강원 강주를 지냈으며, 1980년 중앙승가대 강사,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를 지냈다.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를, 그 후 중앙승가대 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불교학회 이사, 조계종 개혁의회 의원, 삼보법회 교양대학 학장, 제5대 승가원 이사장을 지냈다.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명예교수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십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5시)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오후2시)
◇저서 : 규명(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수월 스님, 경허 스님 법제자 아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12일 ‘제2회 경허선사 바로 알기 학술세미나’에서

“수월 스님은 선농일치와 두타행의 실천자로 다라니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경허 스님의 간화선 위주 수행과는 다르며 경허 스님의 간화선을 계승한 것도 아니다.”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서 경허 스님의 제자로는 수월, 만공, 혜월 스님이 꼽힌다. 경허 스님이 주석한 서산 천장암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은 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10월 12일 서산 천장암(주지 허정)이 개최한 ‘제2회 경허선사 바로알기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광식 교수는 이날 ‘수월선사의 정체성과 경허의 전법’ 논문을 발표하며 수월 스님을 경허 스님 법제자로 보는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먼저 만공 스님과 혜월 스님의 전법게문이 있지만 수월 스님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수월 스님은 전법게문이 없다”며 “한암 스님이 1931년 ‘경허의 생애와 사상’을 불교지에 쓴 일대기에도 경허 스님의 제자로 혜월, 만공, 한암, 침운 스님을 꼽고 있다. 법제자 명단에 수월 스님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운허 스님의 1961년도 불교사전에도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제자가 아니라 경허 스님의 사형인 태허 스님의 법제자로 나온다. 서경수 박사의 1970년대 글에도 태허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선불교통사〉에 수월 스님에 대해 경허 스님의 법은 들은 것으로는 나와도 법제자라는 말은 없다. 또 수월 스님은 고행 · 난행하는 스님으로 나오는데 이는 두타행으로 화두참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월 스님의 수행에 대해서는 최근 발견한 진포광이란 일제시대 일본학자가 수월 스님과 대화한 내용을 예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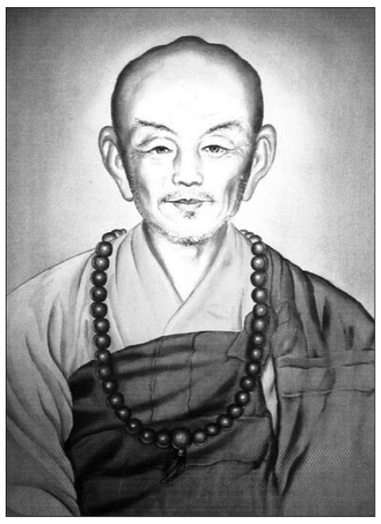
김 교수는 “당시 진포광이 수월 스님에게 물어보니 수월 스님이 다라니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 수월 스님이 대비주를 통한 이후 선수행을 했어도 경허 스님의 간화선 위주 수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수월 스님의 수행은 선농일치와 치열한 두타행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 제자로 포함되게 된 까닭은 최인호도 그렇게 보았듯 만공(월면) 스님과 혜월 스님 등 월자 돌림의 작용이 컸다”며 “최인호 별세 전 〈할〉에서 수월 스님에 대해 경허 스님의 법제자가 아니란 점이 다시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경허 성우의 목룡 가풍과 심검 선지’를 통해 경허 스님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법화와 행화를 나란히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경허 스님의 목룡 가풍은 하늘에 해가 하나이고 나라에 임금이 하나이듯 사람 중의 사람인 용상 대덕을 길러내고

소설가 최인호도 잘못 인식
태허 스님 법 이어 두타행 정진
선농일치 등 새 가풍 연 선지식


수월 스님 진영.

자 한 가풍이었다”며 “오도가에서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구나…’라고 읊은 것은 이러한 용상 대덕의 전수자가 없음을 탄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선사의 면모는 ‘좋을 때는 부처님보다 좋았고, 나쁠 때는 호랑이보다 나빴다’는 세간의 평가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났다”며 “자유로운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에 비판도 많지만 한암 스님이 스승인 경허 선사를 ‘대장부의 뜻으로 갖춰 자성을 철저히 깨달아 제일 가는 공덕을 성취해 큰 지혜 광명의 의취로 저 오백 세 후까지 강대하게 유통시킬 인물’이라고 평하듯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범부들이 볼 때는 경허 선사의 법과 행화 사이에는 마찰이 있지만 선사의 법의 세계에서는 윤활의 탄력이 더욱 발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현지 연구원(동국대 박사과정)도 ‘경허의 탄생지와 출생년도’에서 선사의 출생년도를 1846년이 아닌 1849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산 천장암에서 열린 제2회 경허선사 바로알기 학술세미나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등 수덕사 스님들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석사 불상, 7세기 신라 불상 모본”

이주민 연구원, 동양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기

영주 부석사의 소조불상(국보 제45호) 연대가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불상조성의 모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주민 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동양미술사학회(회장 김영원)가 10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영주 부석사 소조불상의 연원 등을 밝혔다.

영주 부석사 소조불상은 2.74m의 대형 불상으로 조성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돼 왔다. 이 연구원은 이날 부석사 소조불상을 7세기말 조성된 일본 최고(最古) 소조불 당마사 본존불과 비교하며 조성연대를 7세기 말로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당당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풍만한 상호,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이 당마사 본존불과 부석사 소조불좌상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대좌가 백제 와적기단 영향을 받은 와적대좌인 점과 수미단 안쪽에서 발견된 녹유전이 단순한 문양을 띤 점이 7세기 말 제작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부석사 소조불좌상의 상호가 안압지 금동팔불 등 통일신라 초기 불상들과 닮았다”며 부석사계 불상이 신라말 궁예 세력이었던 중부를 중심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영주 부석사 소조불상(국보 제45호)

이 연구원은 또 “이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석굴암계 불상양식과 또 다른 양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윤형준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사의 ‘연해주 발해 유적 북편 건물지군에 대한 일고찰’, 이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사의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의 조사성과’, 손희정 중국미술학원 연구원의 ‘서응도의 정치적 역할과 미술사적 의의’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운허 스님 역경, 공동체 정신서 발단”

이병욱 박사, 운허기념사업회 1주년 학술대회에서 주장

초대 동국역경원장을 지내는 등 평생을 한글 역경사업에 매진했던 운허 스님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운허기념사업회는 10월 12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이 이해하고 해석한 경전의 세계’를 주제로 사업회 출범 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욱 고려대 박사는 운허 스님의 역경사업 이면에 스님의 동업(同業) 정신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박사는 “운허 스님의 동업 정신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는 개인적 업의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공동체 정신”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운허 스님은 불자들의 사회적 봉사를 강조했으며 불교공동체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운허 스님은 신심과 원력, 경전공부의 관계에 주목했다”며 “운허 스님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불보살이 돕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불교계 개혁을 위해 보살행과 가피력이 서로 만나는 일이 바로 역경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운허 스님은 신심이 늘어나면 신근이 생기고 신근이 더욱 늘어나면 신력이 생겨나서 궁극에는 부처가 되고 ‘진정한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며 “운허 스님은 불공에 대한 관점을 사회봉사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런 관점에서 운허 스님이 1938년 당시 불교계를 비판했으며 그 대안으로 청년학인이 가져야할 3가지 마음자세와 역량을 제시했다고 예를 들었다. 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한국불교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빠져 교단을 망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日 신수대장경 근본은 고려대장경”

나카니시 교수, 14일 대장경축전 학술대회서 주장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의 근본은 한국의 팔만대장경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카니시 유지 일본여자대학 교수는 10월 14일 경남 창원CECO 열린 대장경축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나카니시 교수는 ‘문화적 가치의 상대성과 문화관광’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오늘날 불전의 국제표준전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은, 팔만대장경판본을 근본으로 삼아 만들어졌다”면서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에 있어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유산 중에서도 걸출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어 “팔만대장경은 지역을 초월한 국제성, 시대를 넘은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필할 만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주 동의대 교수는 ‘고려대장경의 대중성과 문화콘텐츠의 기반’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려대장경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가 지금까지 세편에 불과하고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나 분석이 시도된 적이 없었다”며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동시에 등재된 해인사의 장경판전과 고려대장경의 위상과 가치에 비해 콘텐츠 개발과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최광식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시노자키 히로시(JTB 종합연구소), 이훈 교수(한양대 관광학부), 한경구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다.

신중일 기자

상담이 불교 포교에 미칠 영향과 과제는?

동방대학원대 10월 29일 제2회 불교문예연구소 학술세미나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가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교내 M303 세미나실에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백원기 불교문예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불교와 상담’을 주제로 박찬욱 동국대 강사가 ‘불교상담, 그 필요성과 적용 영역’을 주제발표한다. 지정 논평은 이용권 조계종 사회복지연구소장이 맡았다.

이어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강의교수가 ‘아유르베다와 불교상담의 소통 가능성’을 발표하고, 이남경 로터스 명상심리연구소장이 논평한다.

또 신승철 박사(전연세대 의대교수, 큰사랑 노인병원장)가 ‘불교 상담치료에서 치료사의 자세’를 발표하고 권경임 불교여성개발원자문위원이 논평한다.

소장 차차석 불교문예학과 교수는 “수행과 중심의 불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담’을 통해 불교가 대중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원측 스님 주제 6차례 연속 워크숍

불교학연구회 내 학술연구모임인 ‘공부회’는 유식학의 대가인 신라 고승 원측 스님을 주제로 연속 워크숍을 연다.

공부회 워크숍은 10월 26일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1층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원측의 생애와 전기’를 주제로 첫 모임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4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워크숍은 이어 11월 2일과 9일, 23일, 그리고 12월 7일과 14일에 잇달아 열리며 원측 스님의 사상과 논쟁, 저서에 대한 관련 서적을 읽고 발제 토론하는 형태로 마련된다.

워크숍은 매월 신진연구자들이 리더가 돼 각기 다른 주제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첫 모임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대학 大 관 음 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임실 군법당 장병불심에 관심 집중

임실 6탄약창 호국 장영사, 나란다 축제에서 대상 등 42명 입상

최우수상 2명 등 높은 성적
자체 골든벨 등 장병 참여 독려
장병포교에 지역불심 하나로

군부대의 종교행사 중 교회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동참하는 법당으로 유명한 전북 임실의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 포교사)가 제5회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불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국 장영사는 지난 9월 7일 개최된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에 74명의 장병들이 참여해 고준태일병이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최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입상 35명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향토사단인 35사단도 단 한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다.

대상을 차지한 고준태 일병은 "입대 전 어머니 손에 이끌려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절을 찾았던 것이 부끄럽다"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제대 후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절을 참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호국 장영사가 군부대 불심을 주도하는 데는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이성강 포교사의 역할이 컸다. 이 포교사는 매주 법회 때마다 간단한 교리 퀴즈문제를 내고 정답을 말한 병사에게는 간식과 선물을 주면서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1년에 초파일과 가을에 2회 도전 골든벨 형식의 교리 퀴즈대회를 열어 병사들의 교리실력을 점검하면서 우수한 성적의 병사들에게는 포상휴가와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상품으로 걸어 병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또 서유원 금강회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위봉사 관음회 불자들이 '편안한 법당, 쉼터같은 법당'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하고 있다. 법회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가족같은 법회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호응은 높다. 이런 노력으로 100여 명의 병사들이 참여하는 일요법회는 인원의 변동없이 꾸준한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 초파일에는 모든 장교 사병들이 단결해서 부대 전역에 연등으로 장엄하고 부대장까지 참여하는 자체 연등제도 봉행하고 있다.

지역 스님들도 이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는 매년 이들을 금산사로 초청해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남고사 원혜 스님(금산사 총무국장)은 부대 유격훈련마다 전 부대 장병들에게 빵과 우유 각 1000개를 지원하고 있다. 완주 송광사 도영 스님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도 호국 장영사 장병들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유원 금강회장은 "불자 장병들 상호간 항상 믿고 따르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원일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은 "군 법사가 상주하고 많은 병력이 있는 상급부대에서도 해내지 못한 일은 작은 부대의 일반 포교사들이 해냈다"며 "좀더 재미있고 알찬 법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등 군법사들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성강 법사가 호국 장영사 장병들에게 수계하고 있다.

호남 불교합창단, 한마음으로 범능 스님 추모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졌던 범능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불교합창단들의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광주지역 불교계 합창단 연합은 10월 16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에서 '불음당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나 없어라'를 봉행했다. 이날 음악회는 범능 스님과 교류활동을 펼쳤던 부루나합창단, 카일라스합창단, 증심사합창단, 원각사합창단, 길상사합창단이 연합하여, 범능 스님이 작곡하고 노래한 10곡을 선보였다.

故범능 스님은 '오월의 꽃'에서부터 '무소의 뿔처럼'까지 네 장의 노래음반과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일곱 장의 명상음반을 발표했다. 매년 외국인 노동자 쉼터 마련, 소아암 환자 돕기 등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광주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음악회를 분주히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후, 6월 13일 입적했다. 6월 10일 발매한 '나 없어라'는 스님의 마지막 유작 앨범이 됐다. 이날 음악회는 범능 스님이 직접 창립한 부루나합창단을 비롯해 평소 스님과 음악적 교류활동을 펼친 광주지역 합창단이 스님의 노래와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개최한 추모음악회다. 범능스님의 생전 영상을 시작된 음악회는 카일라스 합창단이 범능 스님의 노래 중 '큰 수레를 함께 타고', '푸른 학으로'를 불러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증심사 합창단의 '석가모니불', '흔들리며 피는 꽃'과 원각사·길상사 합창단, 부루나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가수 이동원과 김선임(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수석)의 해금 연주는 범능 스님의 추모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려사찰 추정, 군산 취성산 용천사지 확인

군산 취성산에서 고려시대 사찰인 용천사지가 발견됐다. 군산의 불교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은 고지도상에 나타난 용천사지로 추정되는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23번지 일대에서 조선시대 기와편에 양각된 용천사 명문을 발견했다.

기와 명문은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써 〈ㅁ泉寺〉가 세로로 두 줄 양각되어 있다. 왼편 세로글씨는 선명하지만, 오른편 세로글씨는 자세히 보아야 〈ㅁ泉寺〉 명문 판독이 가능하다.

2010년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사지총람〉 下권에는 축산리 예산석조여래입상(芮山石造如來立像)조에서 '이 불상은 축산리 교동 마을에 있다. 불상의 유래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위치는 원위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머리와 다리 부분은 결실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만 서술하고 있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682년(숙종8년)에 발행된 〈동여비고〉에는 '용천사가 취성산에 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문화상품 일반에 첫선, 열띤 호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13일 광주서 '불교와 디자인' 선 보여


홍보관을 방문한 강운태 광주시장〈오른쪽서 두번째〉이 USB 합장주를 차보고 있다.

한국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현대적 불교 문화상품이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10월 10일부터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디자인 코리아 2013'에서 '불교와 디자인이 만나다'는 주제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불교문화상품 등을 선보여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전시회는 불교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보인 자리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상품인 도자기, USB합장주, 템플스테이 엽서, 문구류, 불교용품 등 아이디어 상품과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기념품 40여 종, 그리고 사업단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까지 총 100여 점이 전시되었다. 또 손수건 그리기 등의 체험행사도 같이 진행됐다.

오후 4시에 개막된 행사에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해 디자인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사후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강운태 시장은 불교문화상품 등을 둘러보고 "아름다움과 전통이 살아있는 좋은 디자인이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사업단은 USB가 장착된 합장주를 선물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08년부터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풍요로운 바다를 기원합니다"

선각종 옴천사, 10월 13일 강진 풍어제 개최


10월 13일 마량항에는 1000여 어민이 참여해 적조 등으로 해를 입은 어족자원 회복을 발원했다.

강진지역 어민들의 풍년기원에 불자들이 나섰다. 선각종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0월 13일 강진 마량항 중방파제에서 선각종 스님들과 황주홍 국회의원, 윤재공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불자와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어제 및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풍어제는 강진만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남해안의 미항중 하나인 강진 마량에서 군민과 불자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해 남다른 의미를 주었다.

이날 수륙대재에는 세계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서울 봉원사 일운 스님의 시연으로 장엄하게 봉행됐다.

이날 풍어제에서 정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최근 어족자원의 고갈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민들의 고통이 늘어가고 있다. 이번 풍어제와 수륙대재는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행사 의미를 말했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에 축하공연(트로트신동 장송호, 국악신동 심지훈 등)을 시작으로 10시 30분 풍어제 및 방생, 11시 수륙영산재 시연이 봉행됐다.

특히 수륙재에는 선각종 광주전남종무원 주최로 바다 물고기 방생과 바다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천도의식도 같이 봉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동성 스님의 회심곡 시연이 특별 초청되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에 미얀마 법당 첫 개원

광주지역 미얀마 불자들의 신행공간이 생겼다. 10월 13일 광주 대표적 공단지역인 하남산업단지 3번 도로에서는 미얀마 불자 2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최초의 미얀마 법당인 '담마야나 선원' 개원식이 봉행됐다. 이날 개원한 담마야나 선원은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중 최초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법당으로 지하 1층에 55평 규모로 법당과 스님방, 근로자 쉼터로 구성되었다. 특히 선암사 강주 목우스님은 법당의 리모델링까지 도맡아 미얀마 불자들을 후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대산 천년 옛길인 '선재길' 개통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용민)는 10월 17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오대산의 천년 옛길인 '선재길'을 새로 정비해 개통했다.

선재길은 오대산 월정사~상원사 간 9km 구간을 잇는 옛 숲길로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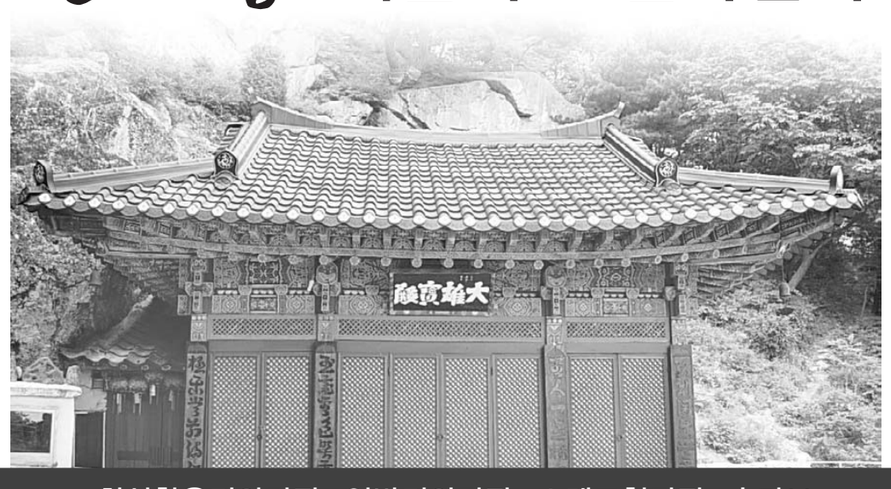
선재길 탐방로는 계곡을 건너는 곳곳에 징검다리와 섶다리, 출렁다리가 설치돼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다.

'깨달음과 명상'을 주제로 조성한 선재길 탐방코스는 제10회 오대산 문화축전과 연계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이용민 소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국내외 많은 탐방객이 오대산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본다. 선재길 탐방로를 불교성지인 오대산의 특성을 살려 순례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월정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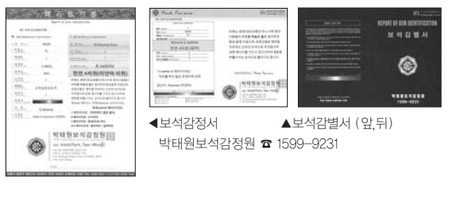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불교호스피스협회 4주년 기념식

관음사 요양원 대강당서

항상 낯선 일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사건이 바로 죽음 그리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 낯설고 무거우면서도 찜찜한 주제를 다루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들이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호스피스 실천가를 양성하는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가 창립4주년을 맞아 역할극을 통해 호스피스 활동을 직접 시연하는 자리를 개최했다.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지현)는 창립 4주년을 맞아 10월 18일 부산 당리 관음사 환희노인요양원 대강당에서 '2013 총회 및 창립 4주년기념 호스피스 시연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장 당리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 관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HIV · AIDS를 위한 한국범종교연합(이하 KINHA) 미리암 회장 등 호스피스 활동가들과 시민불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

'드라마로 호스피스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주, 대구, 부산, 울산 4개지부에서 준비한 호스피스 역할극 시연으로 진행됐다. 역할극은 실제 있을 법한, 아니 실제 있었던 일들을 소재로 드라마처럼 진행됐다.

'평화로운 죽음', '행복한 이별' 이라 말하면 무언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을 모순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 일지 모른다. 이날 총 4편의 역할극으로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10월 18일 관음사 환희노인요양원 대강당에서 '2013 총회 및 창립 4주년기념 호스피스 시연 세미나' 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능행 스님, 봉사상을 수상한 최유석 · 장점숙 불자, 지현 스님.

호스피스 역할극 시연 눈길

임원 임명과 봉사상 수여식도

진행된 시연은 바로 죽음에 대한 따뜻한 접근, 이별에 대한 행복과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지현 스님은 역할극 시연에 앞서 환영사에서 "부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웃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을 하소연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해 할 때, 이들의 눈이 되고 손이 되어서 그들을 보살피겠다는 개개인의 원력이 모이고 모여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됐고 이제 4돌을 맞이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봉사자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보살행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KINHA 미리암 회장은 "죽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다행인 것은 절망과 포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고 함께라면 가능하다.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은 어떤 진통제보다 고통을 덜어주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역할극 시연에 앞서 임원 임명과 봉사상 수여식이 있었다. 감사에 상진 스님 · 노태식 씨, 서울지부 지도법사에 유방 스님이 각각 임명장을 수여 받았고, 봉사상에 충북지부 최유석씨, 부산지부에 장점숙씨가 수상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개최

영예의 대상에 부산진여고 수상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0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전국 청소년 불자들의 합창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10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음악을 통한 협동심 단결심을 배양하는 장이 된 이번 합창제에는 총10개팀(중등 6개팀, 고등 4개팀)이 본선에서 경쟁을 펼쳤다.

백명숙 회장은 "치열한 경쟁사회를 준비하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영예의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상금200만원)에는 부산진여자고등학교(교장 박성률), 금상(부산시장상, 상금150만원)에는 경남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와 김해여자중학교, 은상(부산시의회 의장상, 상금100만원)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와 경기 매향중학교, 동상(부산시 교육감상, 상금100만원)은 경남 창원명곡고등학교와 경남 신주중학교, 장려상(동국대경주캠퍼스 총장상)은 부산 해동중학교, 해연중학교, 경남 범어 중학교에게 각각 돌아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경주불국사 제 41회 신라불교 영산대재

12일 경내 범영루 앞 광장서


경주 불국사의 41회 신라불교 영산대재 장면

경주 불국사는 10월 12일 경내 범영루 앞 광장에서 제 41회 신라불교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신라문화제의 하나로 열린 영산대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과 최양식 경주시장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법흥왕과 표훈대사, 신라 김대성 재상, 박정희 전 대통령, 월산성림 대종사 등 5명의 위인을 기렸다.

불국사는 이어서 오후에는 영산대재 예술제로 불국사 석가사 연합합창단의 합창과 무용 등으로 꾸며진 기념음악회를 다채롭게 가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경찰서 연대 청소년 인성 밝힌다


부산 삼광사와 부산진경찰서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와 부산진경찰서(경찰서장 이노구)가 10월16일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식' 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진경찰서 이노구 경찰서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불자들이 함께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삼광사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부산진경찰서가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날로 거칠어져 가고 삭막해져가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인성을 가꾸는데 정부기관과 종교계가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해 공헌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삼광사와 부산진경찰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다도 체험, 청소년 템플스테이, 부산진경찰서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도심사찰에 나무를 심자

집을 지으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 집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예 집의 천장을 뚫어서 나무를 살려낸 지혜를 살필 수 있는 사찰이 여러 곳 있다. 나무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따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생각해서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한 학자가 실험한 결과를 보면 나무가 사람의 목소리나 생각을 알아차린다고 한다. "이 나무를 베어버릴까?"라고 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뭇잎이 시들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래전 도문화재위원으로 있을 때 한 사찰에서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을 위한 조사를 나갔는데, 집을 지을 자리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냥 베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뿌리를 손상시켜서서히 말라죽도록 하고 있었다. 정말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부처님도량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어서 더더욱 당혹스러웠다.

최근에 남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험해질 수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기에는 탁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불가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른바 안거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존엄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교리는 아마도 불교가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이 점차 도시화되고 사찰이 도시로 내려오면서 불교계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색도시에 살아있는 생명을 끌어들이는 일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적어도 사찰에서는 법에서 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절을 찾는 많은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생명을 존중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사찰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사진은 경상남도 ㄱ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홍련암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주지 무문

사부대중일동



낙산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깎아지른 절벽 위 세워진 하늘 맞닿은 절집

드라마 촬영지 2 - KBS드라마 추노의 촬영지 전남 구례 사성암


전남 구례 사성암의 진면목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바위 위 절마당에 섰을때 드러난다. 사진은 마애약사여래불이 모셔진 약사전 전경.

KBS드라마 추노 촬영지…절벽바위에 기댄 사성암

사성암 가는 길은 제법 가파르다. 차로도 서로 교차가 안될 만큼 비좁다.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백제 천년고찰 사성암' 이란 표시가 없다면 초행자는 그냥 지날 칠 수도 있다. 지리산 줄기와 닿은 오산(鰲山) 봉우리에 있기에 숲에 가려져 아래에서는 사성암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거의 포장이 돼 있지만 중간 중간 비포장 길을 올라가야 절에 당도한다. 절에 관련된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차를 마을 입구부터 통제하기에 걷는 것이 싫다면 마을버스로 오르는 것이 가장 편하다. 20분 정도 소요된다.

힘들게 올라갔지만 절 마당에서 올려다 보는 대웅전의 카리스마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작은 암자지만 멋스러움은 여느 사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힘들었지만 오길 잘 했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풍광이 빼어나다. 이 절은 백제 성왕 22년(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원래 오산암이던 절 이름도 4명의 고승, 즉 연기조사,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가 참선 수도한 곳이어서 사성암(四聖庵)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이 절이 유명해 진 이유는 풍광뿐이 아니다. KBS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추노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이대길(장혁 分)이 죽은줄로 오인한 김혜원(이다해 分)이 머리카락을 주지 스님에게 건네며 제사 지내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과, 석양이 지는 장면, 송태하(오지호 分)가 김혜원과 함께 약사전 돌담을 내려오는 신 등 다양한 장면을 이곳에서 찍었다.

축대 위에 얹혀진 탑 형상의 약사전

사성암은 약사여래도량이다. 그래서 약사전이 있다. 약사전을 보면 '어떻게 저런 곳에 법당을 지을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높은 기둥과 축대 위에 전각을 세운 약사전은 절벽에 걸려 있는 형상이다. 이 절집은 3분의 1을 바위에 걸치고, 나머지 3분 2는 바위에 세워진 기둥을 짚고 서 있다. 얼핏 보면 전각이 절벽을 뚫고 나온 듯하다. 그래서 20여m 높이의 기둥 아래서 올려다보면 수직절벽 위에 건물이 매달려 있다는 아찔한 느낌이 든다. 눈을 돌려 왼편을 보면 커다란 반석위에 얹힌 듯 지장전이 있고 그 사이에 갈라진 바위를 초석으로 한 선방이 하나 걸쳐져 있다. 각 전각은 마치 바위에 박혀 있는 착각이 들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전체 암자가 오산의 기암절벽과 하나가 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직접 나선형 돌계단을 따라 약사전에 올랐다. 돌계단길 돌난간은 기와로 치장돼 있다. 난간 위엔 앙증맞은 돌탑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다. 약사전을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발원의 기도를 담아 쌓은 듯 하나 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다. 그 한 쪽을 곱게 감싼 덩쿨식물엔 붉은 가을이 내려앉고 있다.

아래서 보는 절집 꾸밈새도 범상치 않지만, 사성암의 진면목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바위 위 절 마당에 섰을 때 드러난다.

마당이라기엔 너무 좁은, 절집 앞 두 평 남짓한 공간. 발아래를 내려다보니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 산과 절집이 빚어낸 경치가 이같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가까이는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과 드넓은 구례평야가, 멀리는 장엄한 지리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날씨 좋은 날이면 화엄사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약사전 안은 절벽에 그려진 부처가 불상과 불화를 대신하고 있다. 마애불이 자연 불상이 된 셈이다. 정확한 이름은 마애약사여래불이다. 약 25m 기암절벽에 음각돼 있다. 이는 원효가 선정에 들어 손톱으로 그린 부처상으로 왼손에 애민중생을 위한 약사발이 들려져 있다.

연기 · 원효 · 도선 · 진각 등 고승 수도처
소원나무, 귀목나무…관광객 발길 잡아

바위 하나마다가 바로 부처님 법의

약사전이 그렇듯 왼편 지장전 가는 길도 돌계단을 올라야 한다. 오르다보면 중턱 왼편에 특이한 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수령 800년이 된 귀목나무다.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며 뙤약볕인데도 그늘을 만들어 준다.

좀 더 올라가면 지장전 가기 전 부채꼴의 편평한 바위가 눈에 띈다. 소원바위라고 써 있다. 사람들의 발 길이 약사전 다음으로 많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 옛날 하동에 뗏목을 팔러 간 남편을 기다리다 숨진 아내와 아내 잃은 슬픔에 숨을 거둔 남편의 애절한 전설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인지 바위엔 저마다 한 가지 소원을 간직한 채 붙어 있는 동전들이 널려 있다. 재밌는 것이 또하나 있다. 소원 바위를 자세히 보다보면 오른쪽 끝이 부처님이 미소짓는 형상이다. 심즉통이라 했던가?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히 봐야 보인다.

소원바위를 돌면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이 나온다. 사방이 바위로 둘러 쌓여있다. 이 지장전을 나와 소원바위를 돌면 산신각이다. 지붕보다 더 높은 두 개 바위 사이에 꼭 끼인 듯 들어서 있다. 그 옆엔 도선국사가 수도했다고 하는 도선굴이 있다. 산꼭대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난 도선굴은 한 사람이 겨우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만큼 좁다. 하지만 안은 엄숙하고도 고요하다. 켜 놓은 촛불이 또 하나의 도량임을 암시해 준다. 도선굴을 어렵게 빠져나오면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섬진강, 구례읍, 넓은 곡성평야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사전과 소원바위서 내려다 본 풍광과는 또 다른 운치가 있다. 그래서인지 그 앞에는 풍광의 곳곳을 설명하는 사진이정표가 가로로 길게 서 있다.

이제 전국은 만추로 접어들고 있다. 사계절 중 산사가 가장 아름다운 때도 온 산이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이다. 그러고 보니 구례 사람들도 사성암 전망 중 가을을 최고로 친다고 한다. 맑은 날이 많고 하늘이 높고 푸르러 사찰에서 보는 시야가 확 터지기 때문이다.

절을 내려가기전 다시 사성암 마당에 서서 거침없이 펼쳐진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기운이 올라온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가, 좀 더 '큰 마음' 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네 고승이 수도했다는 사성암은 분명 호연지기를 길러주기에 충분한 매력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구례 사성암=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약사전 뒤 바위에서 내려다본 풍광이 가히 일품이다.


KBS드라마 추노 중 한장면. 약사전을 내려오는 주인공들.

주변보기

주변 관광지

섬진강변을 따라 주변풍광이 아름다운 19번 국도를 달려보자. 없는 건 없고 있을 건 다 있다는 화개장터와 소설 '토지' 의 무대인 평사리 최참판댁까지 이어진다.

5일장이던 화개장은 7년 전부터 상설장이 됐다. 지리산에서 캔 온갖 나물과 하동 녹차제품 등이 선을 보이고 장터 인근 늘어선 식당가에선 지역 별미인 민물참게 매운탕과 은어, 재첩을 맛 볼 수 있다.

구례 사성암 가는 길

서울 남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2시간 간격으로 있는 구례행 버스를 타면 3시간40분 걸린다. 첫차 7시30분. 기차는 서울역에서 구례구역까지 새마을호(하루 2회)와 무궁화호(하루 12회)가 운행한다. 승용차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빠르다. 구례터미널에서 사성암행 군내버스를 타면 된다. 이때 사성암에 오르려면 다시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왕복요금은 대인 왕복 3400원이다.

맛집

구례는 웰빙 맛여행의 천국이다. 전라도 하고도 구례니 밑반찬만으로도 80점 이상 먹고 들어간다. 불자라면 화엄사 입구의 백련산방(061-782-0405)을 권한다. 연잎밥 백반(오른쪽 사진 · 1만5천원)을 시키면 반찬이 50여가지가 나온다. 모두 이 집 사장이 산에서 캐온 나물과 약초들이다. 저렴한 가격에 향긋한 자연산 송이전골 정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강남가든(061-782-7644)도 정갈한 밑반찬이 특히 인상적이다. 참게와 보리새우, 지리산 바람에 말린 시래기가 어우러진 참게매운탕은 큰 것(5만원)을 시키면 4~5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묵을 곳

사성암쪽에는 숙박업소가 거의 없다. 구례에서는 10여분 거리의 화엄사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 한화리조트(061-782-2171)가 대표적이다. 1984년에 지어져서 시설은 조금 낡았다. 하지만 고즈넉하게 아침 구름 걸어놓고있는 지리산과 화엄사의 새소리, 바람소리, 계곡소리를 들으며 아이들 손잡고 아침 산책 하기에 딱 제격인 곳이다. 송원리조트(061-783-8200)는 산수유마을 바로 곁이면서도 지리산 온천지구에 있어 몸과 눈이 모두 호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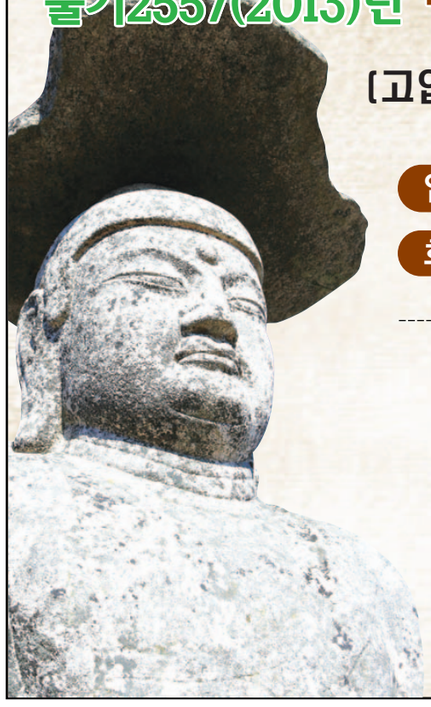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수능100일기도 접수
(고입,대입,교사임용고시,사법.행정고시,취업성취)

입 재 2013년 7월 31일 선본사 상단(갓바위 부처님전)
회 향 2013년 11월 7일 선본사 상단(갓바위 부처님전)

문의 및 접수처 :
선본사 종무소(극락전) 053)851-1868
중 단 종무소(대웅전) 053)853-9877
상단접수처(갓바위 부처님전) 053)851-1869

동참비 : 10만원
대구은행 179-04-060280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불교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인문실용 융합형 인재 육성!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④ 보현봉(普賢峰)



보현보살께 기도 올리니 운무 걷혀

보현봉은 북한산 대남문 밖 남쪽에 있는 봉우리로서 높이는 714m이다.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속한다. 보현봉은 문수봉, 비봉과 함께 북한산 남쪽의 주봉을 형성한다. 보현봉은 북한산 봉우리 중에서도 조망이 뛰어나서 북악산과 인왕산 너머 서울 사대문 안 중심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세조도 이곳에 올라 천문 관측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보현봉이 기가 센 곳이라는 소문이 나서 종교인과 무속인의 왕래가 잦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림 보호를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현봉은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창건한 보현사(지금의 일선사)에서 명칭이 유래한다. 도선국사는 신라 말의 승려로서 속성은 김(金), 자는 옥룡(玉龍), 호는 연기이다. 15세에 출가하여 월유산 화엄사에서 스님이 되었다.

도선국사가 고려 태조의 출생을 예언한 연유로 태조 이후의 고려 왕들은 도선국사를 극진히 존경했다. 도선국사는 승려로서보다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알려져 있다. 저술로 〈도선비〉, 〈송악명당기〉, 〈도선답산가〉, 〈삼각산명당기〉 등이 있다.

문수봉 · 비봉과 함께 남쪽 주봉
조망 뛰어나 사대문 안 한 눈에
도선국사 창건 '보현사'에서 유래
중종때 보현보살께 기우제 지내던 곳

도선국사는 풍수지리의 대가답게 전국을 순회하며 명당에 해당하는 곳에 절을 많이 지었다. 스님은 남경(지금의 서울 부근)이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가 될 곳임을 알았다.

스님은 남경의 진산에 해당하는 삼각산에 특히 주목했는데, 〈삼각산명당기〉를 지은 것도 그 즈음이다. 스님은 삼각산을 답사하다가 기가 가장 센 봉우리를 발견하고, 그 봉우리 아래 굴(보현굴, 일명 다라니굴)에서 수도했다. 스님은 지금의 일선사 자리에 절을 세우고 보현사라 칭했다. 보현사 뒤의 봉우리는 보현사의 이름을 따서 보현봉이라 불리게 되었다.

보현굴 안 벽에는 신선도가, 오른쪽 바위에는 칠성도가 양각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훼손되어 흔적만 어렴풋이 남아 있다.

〈세종실록〉에, 세종이 "오늘 백악산(북악산, 해발 342미터)에 올라서 오랫동안 살펴본 즉, 보현봉의 산맥이 곧게 백악으로 들어왔으니 지금의 경복궁이 바로 명당이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또, "삼각산 봉우리에서 내려와 보현봉이 되고, 보현봉에서 내려와 평평한 언덕 두어 마장이 되었다가 우뚝 솟아 일어난 높은 봉우리가 백악이다. 그 아래에 명당을 이루어 널찍하게 바둑판같이 되어서 만 명의 군사가 들어설 만하니 이것이 바로 명당이고, 여기가 곧 명당 앞뒤로의 한복판 되는 땅이다."라 하여 보현봉이 고대로부터 국방의 요충지였음을 밝혔다.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은 남북 축선을 따라 정연하게 전각을 배치했다. 광화문과 근정전을 지나는 남북 축선을 연장하면 북쪽은 북한산 보현봉, 남쪽은 관악산을 지난다.

경복궁은 국토의 관념상 중심이며 건축물의 규범이었다. 임금이 직무를 보던 근정전을 보현봉과 일직선으로 한 것만 보아도 보현봉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조 중종 때의 일이다. 조정에서 지금의 종로구 평창동 지역에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었다. 평창이란 지명도 거기에서 유래한다. 조정에서는 창고를 지은 후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낼 곳을 물색한 끝에 삼각산 보현봉을 그 장소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막상 기우제를 지내려 하자 보현봉에 운무가 끼어서 좀체 접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논의한 끝에 보현사의 스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보현사의 노스님이 보현보살께 기도를 올렸더니 운무가 걷혀 무사히 기우제를 지낼 수 있었다. 보현봉 아래에 있는 천제단이 바로 매년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유교적 이념을 숭상하던 조선 시대에 보현봉에서 기우제를 지낸 것은 보현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스님을 청해 기도를 올린 것도 만백성이 한마음으로 합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 원을 세우고 실천한 보현보살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보살이다. 문수보살이 지혜의 화신이라면 보현보살은 실천 수행의 화신이다. 보현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세운 열 가지 원(願)은 모든 구도자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보현 신앙이 발달했다. 고려 광종 때 균여대사가 〈보현십원가〉를 지은 것도 이를 민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예부터 보현봉을 북한산의 주봉으로 여겨 온 것은 서울 어디서 보아도 제일 잘 보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근정전 너머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가 보현봉이다.

보현봉은 바위 구간이어서 등반이 쉽지 않지만 봉우리에 오르면 조망이 뛰어나다. 이는 마치 실천 수행의 어려움과 그 보람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수봉과 보현봉이 대남문을 가운데 두고 마주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지혜와 실천 수행의 참뜻을 일깨워 주려 함이었을까.

〈얘기꾼〉 신이산

화려하고 아름다워 더 애처로운 金閣이여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④ 교토 킨카쿠지



킨카쿠지의 명소 '금각'과 정원의 전경. 본래 이름은 로쿠온지이지만 금각이 너무 유명해 킨카쿠지로 불리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됐다.



킨카쿠지 경내에 있는 류몬바쿠(龍門瀑). 이무기가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고 하는 중국의 용문을 재현했다.

"내일이야말로 금각이 불타리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형태가 사라지리라. 그 순간 꼭대기의 봉황은 불사조처럼 되살아 날아가리라."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中)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 ~ 1970)는 20세기 일본 문단의 최고 문제아였다. 자기 소멸에 이르는 극단적 유미주의부터 동성애자, 극우주의자, 전공투 학생들과의 맞장 토론, 공개적인 할복까지 그는 전 생애 거쳐 항상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선의 공안(公案)을 중심으로 말더듬이 수행승의 치열한 고뇌를 묘사한 〈금각사〉를 쓰게 된 것은 좀 의아하기도 하다.

교토의 찬란한 금빛 사찰, 킨카쿠지(金閣寺)의 공식적인 이름은 로쿠온지(鹿苑寺)다. 그러나 물위에 떠 있는 금박의 누각이 워낙 유명해 금각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실 미사미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의 모티브가 된 것은 정신병이 있는 한 승려가 저지른 금각사 방화사건이다. 1950년 일어난 이 방화사건으로 킨카쿠지가 자랑하는 금각 전각은 소실됐고, 지금의 전각은 1955년 재건축된 것이다. 전각의 금박은 1962년에 이어 1987년에 다시 입혀졌으며, 이후 매년 교토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되고 있다.

킨카쿠지가 일본에서 유명세를 탈 수 있던 것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때문이라고 하지만, 금빛 전각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 여행객들을 킨카쿠지로 모여들게 하는 원인이다. 실제 이 같은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킨카쿠지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킨카쿠지는 본래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1397년에 지은 별장이었으나, 그가 죽은 뒤 유언에 따라 로쿠온지라는 선종(禪宗) 사찰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는 임제종 소코쿠지(相國寺)파 소속 사찰이다. 금각을 중심으로 한 정원과 건축물은 극락정토를 세상에 표현했다고 해 조성 당시에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실제 고코마츠 천황(무로마치 고승 잇큐 스님의 아버지)이 초대돼 다녀가기도 했다.



킨카쿠지 경내 특산물, 기념품 가게들. 특색있는 문화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장군의 별장이 임제 선종 사찰로
미시마 유키오 소설 〈금각사〉 발표
더욱 유명세… 日 탐미주의 절정

킨카쿠지의 명소 금각은 무로마치시대 전기의 기타야마(北山) 문화를 상징하는 3층 건물로서 각 층마다 건축양식의 시대가 다르다. 1층은 후지와라기, 2층은 가마쿠라기, 3층은 중국 당나라 양식으로 각 시대의 양식을 독창적으로 절충했다. 1층은 침전과 거실로 쓰이고, 2층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셔두었으며, 3층은 선종 불전이다. 이 가운데 2층과 3층은 옻칠을 한 위에 금박을 입혔다.

금각의 잔영이 잔잔히 비치는 정원도 절경이다. 킨카쿠지의 정원에는 당시의 다이묘가 헌납한 바위들로 조성된 크고 작은 섬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려 했던 일본인들의 미적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킨카쿠지에서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문화상품 강국 일본의 면모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킨카쿠지의 입장권이다. 킨카쿠지의 입장권은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부적이다. 하얀 한지 위에 '금각사'의 사명과 가내 안녕, 건강, 길운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써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입장권이 일회용 통행증의 용도라면 킨카쿠지의 입장권은 말 그대로 소장할 가치가 있는 기념품이다.

또한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도 눈에 띄었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원피스'부터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헬로 키티'가 일본 기모노를 입고 금각과 함께 있는 캐릭터 상품들이 킨카쿠지 상점가에 즐비하다. 모두 '킨카쿠지 한정'으로 오직 킨카쿠지에서만 판매된다.

'저패니메이션(일본 애니메이션을 일컫는 신조어, 아니메라고도 한다)'에 관심있는 푸른 눈의 서양인 가족들이 이들 캐릭터 상품들을 구매하는 모습을 킨카쿠지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사찰의 세속화'라는 비판도 제기할 만 하지만, 자신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사찰 재정에 활용하는 부분은 한국불교가 고민해볼 부분이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에서 주인공은 금각의 방화 직전까지 임제 선사의 '살불살조(殺佛殺祖)'를 읊조린다. 그리고 금각을 방화함으로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일체 경계를 허물고 자신 안에서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완성시킨다. 그래서인가. 다시 돌아본 킨카쿠지의 금각이 아름답지만 애처로운 것은.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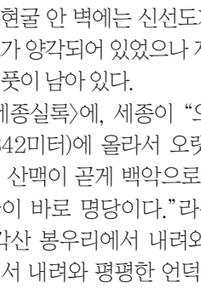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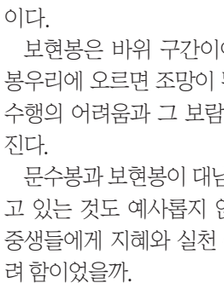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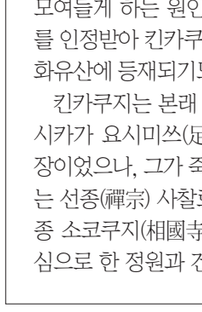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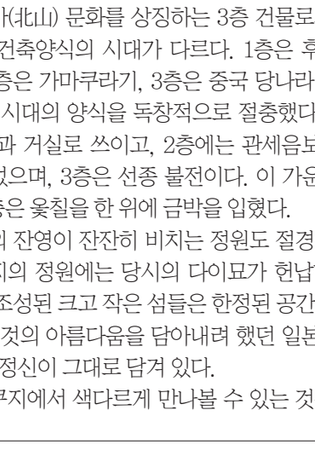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 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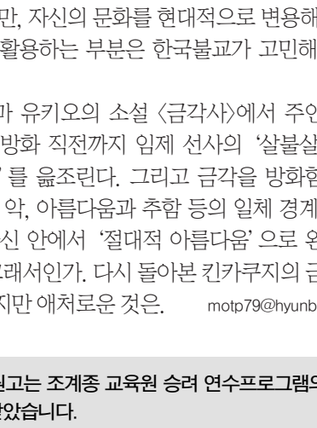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신간 **고사와 치성**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상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 144쪽 | 값 13,000원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부처님 자비, 인연 있고 없고 가리지 않아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6〉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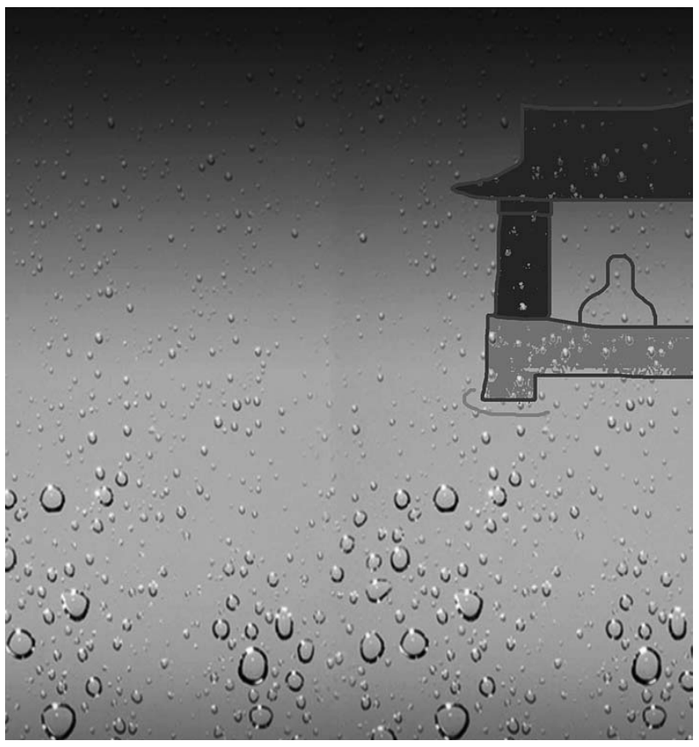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대는 지금 보리심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을 일으켜 부처를 배워 얻으려고 한다. 그렇게 부처가 되려고 애쓴다면, 삼아승지겁을 닦는다 해도 다만 보신불이나 화신불만 얻을 뿐이다. 그것은 그대의 본원진성(本源眞性)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밖으로 구하는 상(相)이 있는 부처는 그대와는 닮지 않았다.'고 하였다."

법신은 그대로 완전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그런데 '발보리심' 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일으켜 따로 부처를 배워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에 머리를 더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공부인은 이런 대목에서 하심하고 무위법으로 공부를 전환한다. 본원진성을 믿는다면, 공부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정작 본인은 속으로 뿌리 깊은 미세한 욕망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11. 수은의 비유

배휴가 물었다.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찌하여 사생육도(四生六道)의 갖가지 모양이 서로 같지 않습니까?"

사생이란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태생 · 난생 · 습생 · 화생으로 나누는 것이다. 인간은 태생이고, 천인은 화생이다. 새는 난생이고, 벌레 가운데는 습생이 많다. 육도는 업에 따라 윤회하는 것으로 천상 · 인간 · 아수라 · 축생 · 아귀 · 지옥의 여섯 가지 길이다.

선사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본체는 원만하여, 더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두루 원만하고, 만물 가운데 날날이 부처다.

드러난 모양이 가지가지 변하더라도, 불성은 혼돈된 적이 없다. 늘 여여부동해서 뚜렷한데, 다만 중생이 스스로 놓치고 정신없이 어리석은데 빠져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윤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투더라도, 스스로 불법을 만나서 근본을 눈뜰 수 있는 인연을 살펴서 바른 모습을 쓴다면, 언제든지 본원진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모양[相]으로는 천차만별로 벌어지더라도, 그 낱낱의 바탕[性]은 오직 하나로 불생불멸이며 부증불감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한 덩어리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도, 방울방울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나뉘지 않았을 때에도 한 덩어리였을 뿐이다. 이것이 일즉일체(一卽一切)이고 일체즉일(一切卽一)이다.

수은은 뭉치나 흩어지나,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서 항상 둥근 모양을 유지한다. 만법의 본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만법이 다 합쳐도 다만 하나의 둥근 원이고, 모조리 흩어져도 각각이 다만 하나의 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대양 넓은 바닷물의 맛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맛볼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서울 같으면 가장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 나가서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면, 그 일미(一味)가 곧 전체 바닷물 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다만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자기 마음 하나에 묵묵히 계합하면, 온 우주의 비밀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한 마음뿐이지, 이 마음 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일즉일체 일체즉일이 되면, 화엄의 사사무애 도리가 터득되는 것이다.

만법이 다 합쳐도
다만 하나의 둥근 원이고,
모조리 흩어져도 각각이
다만 하나의 원이다

천차만별 변하는 것은
인연 따라 겉모양 변하는 것
성품은 변한 적이 없다

육도 윤회 어떤 곳에 있더라도
불법을 만나 믿으며
스스로 안목을 열고
남에게도 전하는
인연을 살펴 쓴다면,
보람 있는 삶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자비를 베푸는 주체도,
받는 대상도 없는
무연자비이기에
진정한 대자비가
되는 것이다

온갖 형상과 모습은 비유하면 마치 집과 같다. 나귀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이 되기도 한다.

천상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복이 다하면 아래로 타락하는 경우도 많고, 지옥은 시간이 오래가고 더디지만 그래도 업보가 다하면 다시 나오게 된다. 중생은 육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윤회하는 것이다. 원력 있는 사람은 지장보살처럼 화광동진(和光同塵)으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스님들도 인연 따라 선방에서 안거하면서 자기 공부를 잘 지어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도심 포교당을 힘들게 개척하시는 분도 있다. 시장 바닥에 살면서도 정(定)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고요한 곳에서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저런 온갖 모양은 결국 인연따라 합성된 것이다.

성문 · 연각 · 보살 · 부처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모두 그대 자신이 취하고 버림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천차만별 변하는 것은 인연 따라 겉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성품은 변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더 이상 연연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본인과 이웃이 함께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육도 윤회의 어떤 곳에 있더라도, 불법을 만나 믿으며 스스로 안목을 열고 남에게도 전하는 인연을 살펴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보람 있는 삶이라 할 것이다.

12. 무연자비

배휴가 물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황벽선사가 대답하셨다.
"부처님의 자비란 무연(無緣)이기 때문에 대자비라고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인연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는다. 자비를 베푸는 주체도, 자비를 받는 대상도 없는 무연자비이기에, 비로소 진정한 대자비가 되는 것이다. 인연이 있고 없고 가리지 않고 베푸는 대자비란 곧 평등한 불이법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㉒



세간 법에 따르기 위해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니라 〈열반경〉

'외도' 를 어찌할까?

외도(外道), 라는 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불륜을 범하는 것을 외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사상에 대한 폄칭(貶稱)이었다. 대표적으로 초기 경전에는 '육사외도(六師外道)' 가 등장한다. 불교 이외의 사상가, 종교가 여섯명을 한꺼번에 부를 때 이 말을 썼던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이외의 가르침은 '외도' 가 된다. 그러면, 불교는? '내도(內道)' 가 되겠지.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불교를 '내도' 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내 과문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 다만 불교 이외의 책들을 '외전(外典)' 이라 할 때, 불교 책을 '내전(內典)' 이라 부르기는 한다.

우리의 불교사는 외도, 외전과 어떻게 인연을 맺어왔던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외도와의 관계정립은 하나의 숙제인 셈이다.

물론, 순수하게 불교 그 자체만을 공부하고, 닦아가면서 외도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자는 태도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인 이상, 불교 하나만 공부하면 되었지 다른 것이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한가라는 입장일 터이다.

정말 그래도 좋을까? 〈열반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신의 사원으로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저 자재신(마헤수라)에게 보였는데, 자재신이 나를 보고서는 합장하여 공경하며 한쪽으로 물러나서 서있었느니라. 나는 이미 한량없는 세월 동안 그렇게 신의 사원에 들어가는 법을 떠났으나, 세간의 법에 따르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떠났으되, 따른다

외도의 법, 예를 들면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힌두교의 신인 자재신(自在神, Mahe?vara)을 모신 사원에 들어가서 보이는 일은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다. 여기서 아기를 '보인다' 는 말은, 아기가 자재신을 참배케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럼으로써 신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원망(願望)이 숨어 있는 것이다.

부처님 역시 그렇게 했다. 그 일에 대해서,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새삼스럽게 해석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외도일 수밖에 없는 힌두교의 신을 참배해야 할 만큼, 힌두교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금생에 다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서 그보다 더 높은 진리를 깨치셨던 것이다.

그렇기에 힌두교의 신에게 참배를 할 필요는 사실상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힌두교의 자재신을 모시는 사원에 참배를 하였다. 그 이유는? "세간의 법에 수순(隨順)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불교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불교는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그 선행하는 문화를 깨부수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불교를 넓혀 갔던 것이다. 중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일본에서든 다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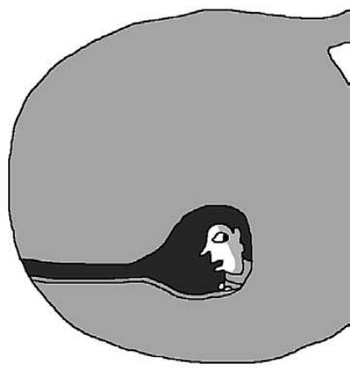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왜 그랬을까? 그 선행하는 문화, 즉 외도 역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그 의미는? 바로 최고의 진리는 아닐지라도, 세간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의미있는 진리(세간의 법, 속제)이기 때문이다. 세간의 법을 버리고, 그 보다는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간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가 바로 불교의 '중도(中道)' 일 것이다.

〈열반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물어보고 싶다. 혹시 우리는 불법의 진리 다움에, 그 높이에 젖어서 세간의 법을 무시하거나 배척해 온 일은 없었던가? 세간의 법을, 다만 세간의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지는 말자.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원 각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번지 수도사
전화 041)531-3792 / 팩스 041)544-1080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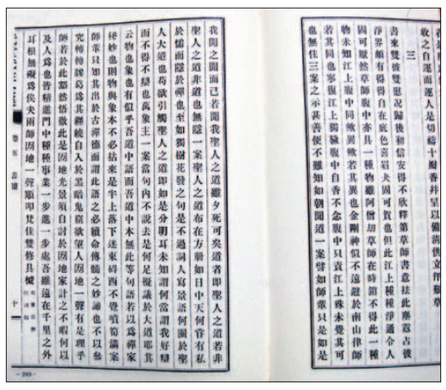
초의 스님의 자재한 경지 축하

제주에서 해배된 후, 추사는 강상(江上)에 머물렀다. 〈완당전집〉〈여초의〉3신과 〈완당척독〉에 수록된 추사의 편지는 초의의 서신을 연이어 받고, 그 기쁨을 "두 장의 편지가 와서 모두 펼치니 두 배로 위로가 된다" 하였고, 이어 "하물며 돌아온 후 첫 편지이니 어찌 기쁘고 후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편지의 내용은 초의의 〈일지암문집〉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과 상통하는 의론이 있어서 살펴보니 바로 초의의 편지가 추사의 〈여초의〉3신의 답신이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쌍수도인을 해양(海陽)에서 작별한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고 한 초의의 증언은 해양이 바로 전남이고, "작별한지 7개월이 지났다"는 것으로 보아 추사가 제주에서 해배된 후 강상에 머물던 시기인 1849년 6월경의 편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초의와 추사의 편지는 이들 사이에 왕복된 편지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 하겠다. 한편 필자는 추사의 편지를 연재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은 추사의 편지에 대한 초의의 답신이 발굴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추사의 편지는 무려 70여 통이나 되지만 초의의 답신은 〈일지암문집〉에 수록된 〈답쌍수도인(答雙修道人)〉이 유일하다.

조선 후기 유불교유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들의 우정은 추사의 편지에서도 절절한데, 유독 초의가 보낸 편지가 발굴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이번호에 다룰 이들의 왕복 편지는 유일하게 짝을 이룬 편지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초의의 편지가 발굴되기를 고대하면서 추사와 초의의 왕복편지를 세 회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일지암문집〉에 수록된 〈답쌍수도인〉

〈답쌍수도인〉 유일하게 짝 이룬 편지
추사편지 70통…초의 편지는 어디있나

두 장의 편지가 와서 모두 펼치니 두 배로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돌아온 후 첫 편지이니 어찌 기쁘고 후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편지에 나열된 내용엔 이 시끄러운 티끌을 벗어나 저 정토를 차지하고, 자못 자유자재한 모습과 군자다운 안목을 얻었다니 진실로 축하할 만하군요. 다만 여기 江上에서 종종 정계와 통했다면 사람이 진실로 싫증나게 여길 만할 겁니다. 그러나 스님의 마음속에도 또한 이런 중생심을 가지고 있으니 설령 무량의 겁을 지나더라도 그대의 내생에는 이런 중생심을 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강상과 복중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금강신이 멀리 남산의 율사를 피할 것 같지는 않을 듯하고, 만약 같다면 어찌 나만 복중이 더럽고, 자신은 향기롭다고 하여 (중생심으로 가득한)마음속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나만 다르다고 꾸짖으십니까.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군요. 無住 스님의 보인 세 가지 공안은 매우 좋아서 알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침에 도를 들으면(朝聞道)이란 것과 같아서 비유하면 그대들은 다만 나는 이렇게 들었다(如是我聞)의 들음과 같을 뿐인데 우리 (유가의)성인의 도를 들으면 설령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道)란 즉 성인의 도이니 만약 성인의 도가 아니면 도(道)가 아닙니다(書來雙披雙慰 況歸後初信 安得不欣釋 第草師書意 Ⅵ此塵œ£占彼淨界 頗有得得自在底色喜眉1Q固可賀也 但此江上種種淨通令人固可厭 然 草師腹中 亦具一種物 雖阿僧 r草師在時 銷不得此一種物 未知江上腹中同歟異歟若其異也 金剛神似不遠避於南山律師 若其同也寧復江上獨穢腹中 自香不念腹中 只責江上殊 未覺其可也 無住三案之示甚善 便不難知 如朝聞道一案 譬如師輩只是如是我聞之聞而已 若聞我聖人之道 雖夕死可矣 道者卽聖人之道 若非聖人之道 非道也)

쌍수도인은 바로 추사의 호이다. 추사는 벗의 자재한 경지를 축하하며, 강상과 복중(腹中)의 의론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실제 무주스님의 세 가지 공안이 무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자의 "마치 아침에 도를 들으면(朝聞道)"이라는 예문을 든 추사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한 가족의 행복이"

다문화 가정 보살피는 한용외 이사장 (인클로버재단)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을 이끄는 한용외 이사장(66)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다. 영남대를 졸업하고 1974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전자 생활가전총괄 사장, 삼성문화재단 사장,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일했다. 또한 그는 퇴직과 동시에 2010년 개인 재산 10억 원을 들여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인클로버재단을 설립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 그는 여기서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최고의 자리인 사장 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열정을 갖고 매진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최고의 반열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지다. 그 때문일까. 은퇴 이후엔 열정이 사라지며, 후유증을 겪기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보다. 그러나 한 이사장은 달랐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때를 생각했다.

한 이사장은 머릿 속의 구상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숭실대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사재를 털어 인클로버재단을 세웠다. 인클로버(In Clover)는 '행복 속으로' 란 뜻을 지녔다. 한 이사장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하는 단체다. 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선다. 재단을 만든 후 그는 몸이 부서져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문화 가정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1500여 가구에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38명의 청소년들을 사진에 취미를 붙이게 이끌었다.

이런 그를 10월 15일 서울 청담동 원화랑에서 만났다. 다문화 가정 자원봉사를 다니며 틈틈이 거리의 불빛이나 건물, 낯선 여행지서 만난 야생동물과 꽃 등을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 역시 개인의 장기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닌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후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

인연 모아 행복 전해요

"클로버의 꽃말이 뭔 지 아세요? 바로 '행복' 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정작 행복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요. 클로버의 잎은 하트 모양입니다.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세 개가 모이면 클로버가 되듯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연 세 명이 모이면 바로 행복이 됩니다. 인클로버재단은 이런 인연을 모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름지었습니다."

한 이사장이 사회공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문화재단 전무를 지내며 그는 삼성그룹이 운용하는 문화 · 복지 · 공익재단 등을 총괄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생소하던 1995년, 한 이사장은 삼성사회봉사단을 출범시켜 대대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금은 대부분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지만 당시에는 생소했어요. 삼성사회봉사단을 만들 때 임직원이 자원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냈죠. 10년 후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사고과는 물론 신입사원 서류심사에서 자원봉사 참여 경력을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와서 보니 그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걸 보면 보람을 느껴요."

그는 2000~2003년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장을 지내고 2004년 다시 삼성문화재단 사장으로 부임한다. 이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삼성그룹의 봉사활동을 이끌었다. 이런 한 이사장이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삼성사회봉사단장 시절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2007년 경 지방에 봉사 활동 갔다가 '농촌 총각 결혼시켜 드립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 우리도 곧 다문화사회가 열리겠구나' 하고 절감했어요. 여기에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사회서 적응 못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린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이혼율은 30%에 달한다. 또 일부 지역에선 취학 연령의 다문화 아동 · 청소년의 반 이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이에 한 이사장은 삼성사회봉사단 활동 영역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를 넣었다. 막연히 사회복지운동가로 설정한 인생 이모작의 방향추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활동으로 확고해진 것도 이 때였다.

불교와 삼성 간의 징검다리 역할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 대한 한 이사장의 꿈은 사실 어려서부터 키워져 왔다. 자라나면서 나눔과 자비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까닭이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인근서 태어난 한 이사장은 환경적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 서울로 올라 온 이후 한 이사장은 20년 넘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 다녔다.

"매월 한번 이상 한마음선원에 나갑니다. 선원 신도회에서는 거사회 중 하나인 '심견회' 에 속해 활동하고 있지요. 다른 이들을 자신처럼 보살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런 사회적 회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한 이사장의 불심은 그가 삼성 그룹 재직 당시 불교계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기도 했다.

삼성그룹 재직 당시 사회공헌 이끌어
불교계·삼성 그룹 중간 조율 역할도
은퇴 동시에 10억 출연, 재단 설립
1500명 사진, 직업 멘토링도 진행
10월 9~15일 다문화 후원 위한 첫 사진전

"삼성 리움미술관이 소장한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 때였어요. 삼성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보급 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었지요. 불교계는 반환을 요구했지만, 선의 취득한 문화재를 사찰로 무턱대고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삼성 측의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반환을 결심합니다."

이 당시 그는 삼성을 대표해 수차례 불교계 인사들과 만났다. 특히 당시 총무원장이던 지관 스님과는 막역한 사이여서 수차례 만나 의논했다. 양측 입장은 팽팽했지만 원만 해결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불심이 깊었던 당시 리움미술관 관장 홍라희 여사 덕에 삼성 측이 반환을 결심하게 됐다.

"홍 여사가 불자가 아니었다면 반환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사리함 안에 사리가 있었기에 신앙의 대상이라는 큰마음을 낸다는 차원에서 반환을 진행하게 됐지요. 개인적으로, 또 불자의 한명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관 스님을 만나 현등사 사리구 반환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반환을 순조롭게 처리했다. 불교계와의 인연은 대장경 전산화 작업으로도 이어졌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종림 스님과의 인연으로 삼성이 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뛰어들게 한 것이다. 삼성문화재단 사장으로서 그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 3월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 2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하지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 사진을 찍기전에 즐거운 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한용외 이사장은 …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1974년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일합섬에 입사해 1980년대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삼성문화재단 전무를 거쳐 2000~2003년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장, 2004년 다시 삼성문화재단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을 지냈다. 2009년 숭실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2010년 사재 10억원을 들여 인클로버 재단을 설립해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데 앞장서고 있다. 작품 '영원회귀'를 배경으로 미소짓는 한용외 이사장.

만 역시 그는 그 공을 홍 여사의 불심 덕으로 돌렸다.

"대장경 전산화는 꼭 진행돼야 할 사업이었지요. IT 시대로 접어들며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대장경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실한 홍 여사께서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 등도 함께 참여했지요. 이는 종교를 뛰어넘어 우리 문화를 현대화 하는 일이었습니다."

항상 건강 걱정하시던 대행 스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격려와 경책은 그가 경쟁이 치열한 삼성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토로한다. 특히 그는 스님의 조언 덕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었다고 했다.

"하루는 스님을 친견했을 때입니다. 전 삼성에 다닐 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한번은 스님에게 술을 마셔서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스님께서는 '그 누가 말리나, 지가 좋아서 마시는 술인데' 라고 하시더라구요. 보통 스님들은 술이 건강에 해로우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원인이 바로 저한테 있다는 말이셨죠. 스님은 '두 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고, 두 번 권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만 권하고, 한잔 권할 기회가 있으면 반잔만 권하라' 고 하셨어요. 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하니 주량이 1/8로 줍디다.(웃음)"

한 이사장은 "스님이 틈만 나면 '공부하라' 고 하셨다"며 스님의 경책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했다.

"모두가 은퇴 이후에는 제 2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요. 불교에서는 과거는 현재와 연속으로 이어지고 모든 것은 연관돼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바꿔 다른 활동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 이사장의 불심 때문일까. 전시회 사진 중에도 연꽃과 불교의 사상을 담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기를 끈 대표작 또한 부여 서동연꽃 축제서 찍은 연꽃 사진이다. 특히 원을 그리며 순차적으로 창문이 나있는 리움미술관 천장을 찍은 '영원회귀' 라는 사진은 그의 종교적 색채를 잘 드러낸 사진이었다.

"불교에서 원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창문은 돌면서 회전하는 윤회의 의미에요. 또 순차적으로 나있는 창문은 인생의 순리를 뜻합니다. 미술관 천장을 보았을 때 그런 영감이 떠올랐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나눌 때 행복해

인클로버재단은 한 이사장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운영된다. 예산이 적어 다문화 가정 도서 전달, 학술 지원 등 소규모 사업에 주력 중이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책 보내기 운동을 했고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자립을 격려하기 위한 생활 수기 공모전도 했다. 기부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직접 참여하는 사업도 벌인다. 다문화 가족사진 촬영 행사나 청소년 사진 교육 같은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한 이사장은 삼성 재직 시절 수백억 예산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던 때보다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정해진 목적이 있잖아요. 회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침에 따라 움직이죠. 그런데 이건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니 마음이 더 편해요."

한 이사장은 "다문화 가정에 가보면 결혼식 사진은 커녕 변변한 가족사진 한 장 없는 경우가 많다"며 "온 가족이 들떠서 사진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고 했다.

"제가 찍는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노력이지만 그들에게는 행복을 기록하는 소중한 일로 다가올 겁니다. 다만 바라는 점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전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사회가 밝아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밝게 웃는 한 이사장의 모습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다.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인클로버재단의 사진 재능교육을 듣는 아이들



사진을 들고 활짝 웃는 한용외 이사장과 다문화 가족들.

전법일기

"영어 잘하려면 나도 스님 될래요"

스님의 행동은 아이의 귀감

토요일 오후 1시. 오늘도 어김없이 쿵쾅거리며 왁자지껄한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온다. 이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고요했던 공간을 경쾌함으로 채운다. 가장 꼬마인 8살 태용이와 예지의 목소리는 어느새 내 귓가에 와있다.

"스님~ 어디 계세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절에 오면 우선 스님부터 확인한다. 스님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무엇을 해도 한다.

태용이와 예지는 아기 때부터 친구다. 예지가 엄마를 따라 절에 먼저 오고 태용이도 친구 따라 오게 되었다. 특히, 태용이는 목소리가 아주 크다. 혼자 어린이 집회가를 불러도 백 명의 아이들이 부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 집회가, 삼귀의, 참선을 하고 부처님 일생을 듣는다. 이날은 부처님께서 성밖을 나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놀라며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잠시 입정에 들어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부처님처럼 명상했다. 우리의 꼬마 부처님들은 예쁘게 좌선 자세를 하고 눈을 감고 잠시 선정에 든다.

잠시 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태용이는 어떻게 생각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음, 머리를 염색 해야지요."하고 큰소리로 답한다.

다른 아이들도 정말 맞는 답이라고 감탄을 한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참으로 섬세하고 놀랍다.

그날 저녁, 영어담마스쿨에 다녀온 것을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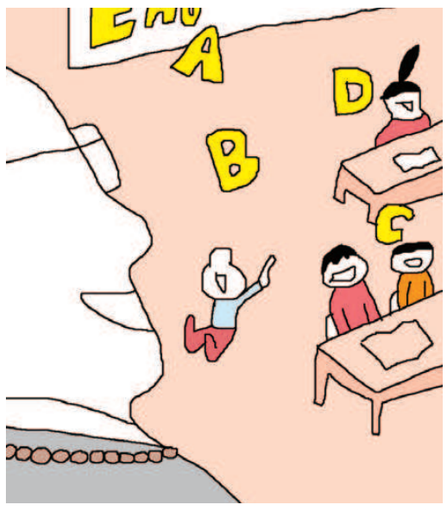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태용이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집에서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를 보고 싶었다.

"태용아. 오늘 비로자나 영어담마스쿨에 잘 다녀왔니? 태용이가 생각하기에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빠는 은근히 늘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이는 느닷없이 "네. 스님이 되야지요" 한다.

"뭐라고? 야,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왜 스님이 되어야 하지?" 말도 안 되는 답은 들을 아빠는 황당 그 자체였다.

"응. 아빠. 우리 스님이 영어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스님이니까 잘하지요. 그러니까 영어 잘 하려면 스님이 되야 해요."

놀라운 일이다. 나는 태용이의 8년 인생 속에서 만난 유일한 스님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속으로 '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스님이구나' 라고 나름 스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속에 나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에게는 세상 전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기에 어린이 포교는 참으로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익힌 문화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주지 연수교육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종교인구중 불교는 30% 밖에 안된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머지 70%가 개신교와 천주교라는 것이다. 너무도 심각한 우리의 포교 현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찰들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관심과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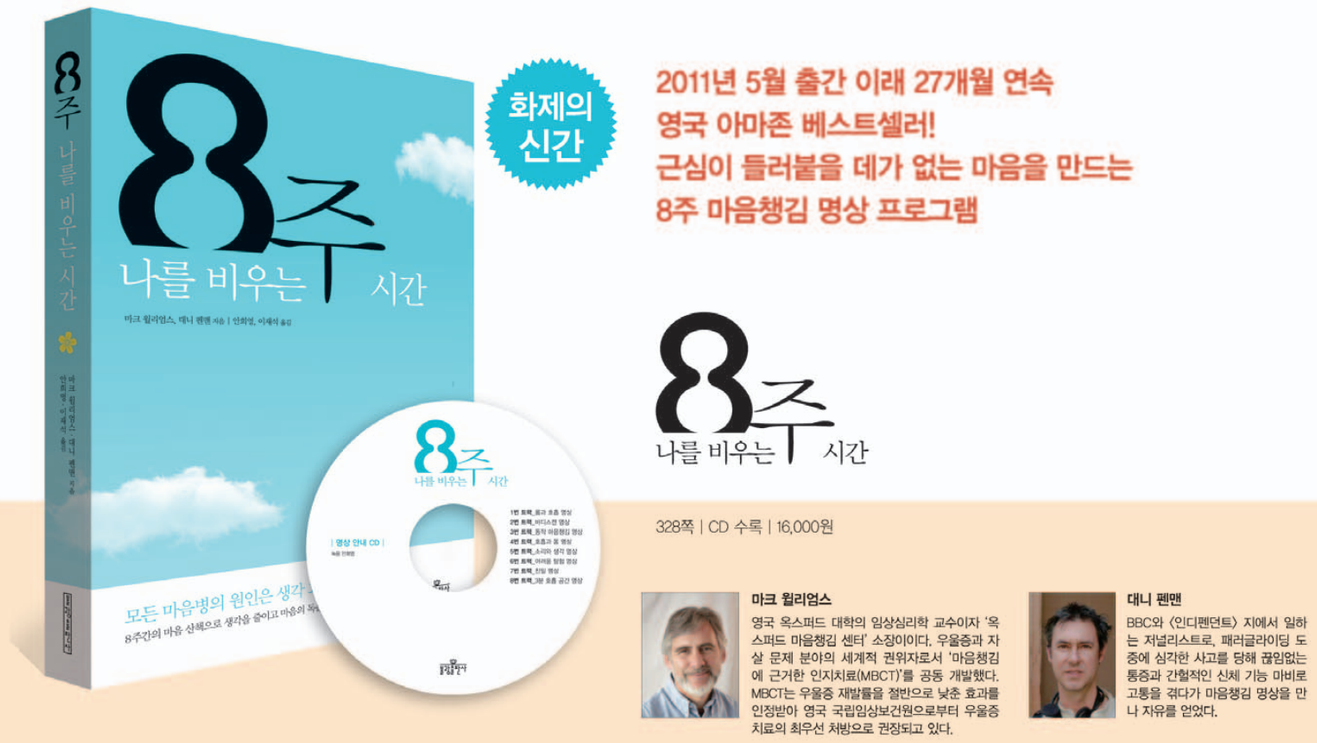
작더라도,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사찰에 올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야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포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원에 신경쓰지 말고 한명이든, 두 명이든 오면 정성스럽게 한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10월 20일 서대문 조계종 사찰연합으로 운동회를 한다. 이번에는 영어담마캠프에 왔었던 아이들을 초청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수 있는 야단법석을 또 한편 펼칠 마음에 절로 신이 난다. 고통 받는 중생을 돌보기 위해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무엇보다 그리운 날이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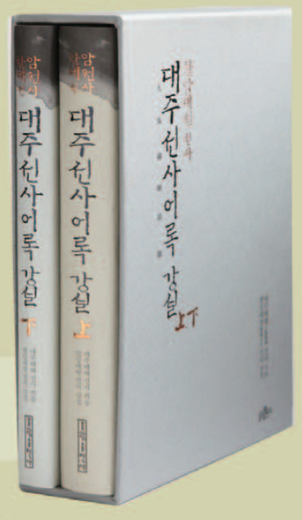
태연한 척해도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썹을 찌푸리는 횟수가 늘지 않았나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들, 스스로 자기에게 지운 짐들,
어쩌면 '나는 행복해야 해!'라는 기대까지……
생각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따라
잠시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마음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대주혜해 大珠慧海 선사 지음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강설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8월 이전에 판매된 29권의 『대주선사어록 강설(上·下)』을 새책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불광출판사 (02-420-3200)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미얀마, 출가 꿈꾸는 여성 늘고있다

여성은 선업의 부족으로 받은 성(gender)이며, 아무리 수행해도 띨라(thila)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곳, 미얀마(일명 버마)에서 출가를 꿈꾸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가 최근 'Buddhists in Pink' 라는 타이틀의 보도 영상물을 자사 웹사이트 뉴스 코너에 게재하고, "동시대 미얀마 여성들이 빈곤과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계를 두드리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양곤 북쪽 지역에 자리한 '아웅 따와다 여성 출가 학교(Aung Thawada Nunnery School, 이하 아웅 따와다)' 를 집중 취재한 이번 보도 영상물에 따르면, 최근 입학을 희망하는 여성의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그 연령층도 부모의 손을 잡고 찾아온 9세의 어린 소녀에서 삶의 뒤안길에 선 94세 할머니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여성은 전생에 남성보다 선업이 부족하여 현생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미얀마 사회에서 불교가 여성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며 "이는 미얀마에서 여성 수행자를 일컫는 '띨라' 나아가 '비구니' 라는 위치가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는 실례"라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즈의 이번 영상물은 '아웅 따와다' 의 공동 운영자인 담마 바자야(Ven. Dhamma Vijaya) 스님과 모리니(Ven. Molini) 스님의 도움으로 제작될 수 있었다. 상좌부 불교 전통을 이은 두 스님은 인도에서 함께 공부한 후 미얀마 양곤 인근에 '여성 출가 학교' 를 공동 설립하고 미얀마 여성 불교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웅 따와다의 시작은 강제 결혼을 한 채 노예에 가까운 생활로 연명하고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는 데 있었다"는 담마 바자야 스님은 "인도와 미국 등지에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에게 힘입어 지금의 학교가 설립, 운영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얀마 여성출가학교 '아웅 따와다' 의 공동 운영자인 담마 바자야(Ven. Dhamma Vijaya) 스님과 모리니(Ven. Molini) 스님(좌), 미얀마 사회에서 불교가 여성들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우).

NYT, 보도영상 'Buddhists in Pink' … '아웅 따와다' 조명
모리니 스님, '띨라' 에서 '비구니' 로 나아갈 것

〈뉴욕 타임즈〉는 세계적인 불교 저술가 히로코 카와나미(Hiroko Kawanami) 씨의 '1990년 미얀마 불교계 상황' 이라는 문건을 인용, "당시에는 미얀마에서 '비구니' 란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는 상좌부 불교 전통을 따르는 나라에서는 출가를 희망해 사원 생활을 하는 여성 불자들에게 비구니계를 줄 수 있는 계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경전에서도 비구니 승단을 언급하고 있을 만큼, 불교에서 여성 수행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전제한 모리니 스님은 "이는 동시대 불교에서도 여성 수행자의 자리매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미얀마의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고 "미얀마 여성 불자들의 희망이 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이 증대된다면 '자리매김' 이 되질 않겠느냐"며, 비구니계단의 설립을 희망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가 1980년 시행한 '승단 인구 조사' 에서 30만명의 남성이 비구와 사미의 신분에 있었고, 반면 3만명의 여성은 비구니와 사미니로 있었다. 이는 승단의 10명중 9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1명에 불과한 셈이다. 그런 비율은 2008년 시행한 '승단 인구 조사' 에서도 반복된다. 이에 따르면 56,839개의 사원에서 18세 이상의 스님은 24만 6천명, 18세 이상 행자는 30만명인데, 이중 여성의 비율은 스님과 행자 통틀어 4만 3천명에 불과하다. 1980년 상황과 크게 변한 게 없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프리카에서 열린 국제 불교 영화제

국제 모임 '심리 탐구 영화' 주최 … 라비아 반도 일대서
오는 27일까지 '비범한 왕' '양시' 등 총 30여 편 상영

인간의 의식을 주제로 다룬 영화를 연구하는 국제 모임인 '심리 탐구 영화(Exploring Consciousness Films' 가 아프리카 라비아(Labia) 반도에서 처음으로 국제 불교 영화제를 개최됐다.

10월 13일 빅트레스 히치콕(Victress Hitchcock) 감독의 '축복-티베트의 촉니 낭첸 스님(Blessings: Tsoknyi Nangchen Nuns of Tibet)' 과 '강철 새가 날아오를 때-서구에 전해진 티베트불교(When the Iron Bird Flies: Tibetan Buddhism Arrives in the West)' 두 편의 개막작으로 시작된 국제 불교 영화제는 아프리카 불자들의 관심 속에 10월 27일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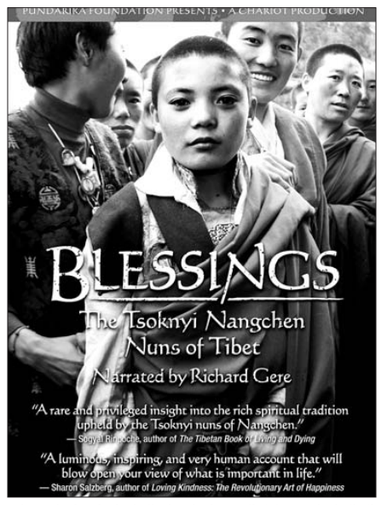
'축복 …' 은 티베트 사원의 안팎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영상에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의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티베트 불교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성 불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강철 새…' 는 티베트 불교와 서구 문화 사이의 복잡하지만 긴밀한 상화 작용을 탐구하고 있다.

'심리 탐구 영화' 는 1996년 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 모임으로 '종교 등의 고대의 지혜를 동시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라는 화두로 2년마다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 모임을 이끌고 있는 에릭카 반 그레넨(Erika van Greunen) 감독은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불교이고, 고대의 종교를 공유하기 위해서 빅트레스 히치콕(Victress Hitchcock)의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택했다"며 "불교와 그 삶의 방식은 서구에서도 주목 받고 있어, 다른 상영작품을 선정하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불교 영화제에서는 티베트 왕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현대를 살아가는 방편을 조명한 '비범한 왕(An Uncommon King)' , 13세기 일본 불자의 생활을 묘사한 예술 영화 '선(Zen)' , 카트만두의 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소년의 고민을 다룬 '외아들(The Only Son)' , Dilgo Khyentse Rinpoche의 환생으로 추앙받는 20세 청년의 수행과 삶을 따라간 '양시(Yangsi)' , 살아가고 있는 자체에 행복을 느낀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메튜 리처드의 헌신(The Devotion of Matthieu Ricard)' , 티베트의 위대한 지도자 칼마파의 삶을 조명한 '칼마파(Karmapa)' , 메콩강가에 번성했던 고대 불교 문명을 다룬 '불법의 강(Dharma River)' 등 30여 편이 상영된다.

"불교는 동서양에서 문화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는 에릭카 감독은 "이는 세계 곳곳에서 불교적 사유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과연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불교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영화제의 주제라면 주제"라며 "영화 상영과 함께 진행되는 토론회야 말로 이번 국제 불교 영화제의 백미"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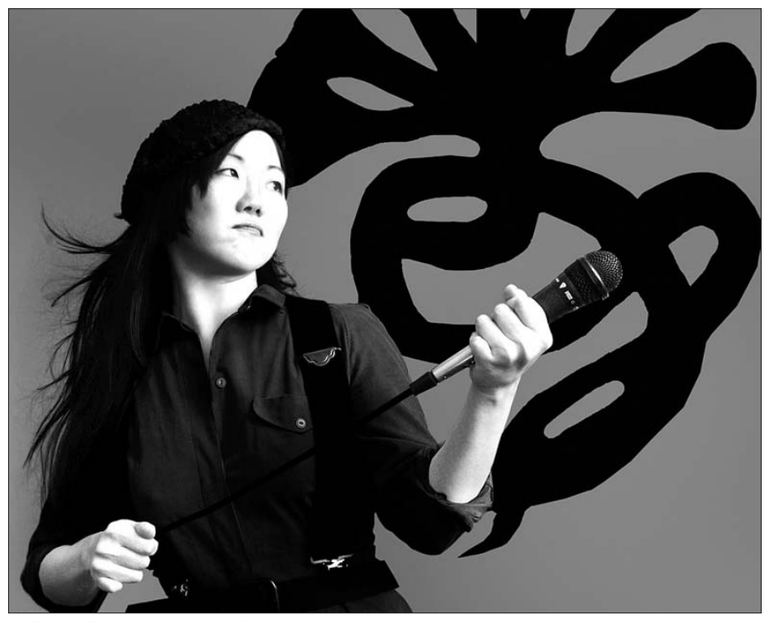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열린 국제 불교 영화제에서 빅트레스 히치콕 감독의 영화 'Blessing' 이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한국계 美 코미디언 마거릿 조

자비와 명상으로 웃음에 깊이 더해



한국계 미국 코미디언인 마거릿 조(Margaret Cho)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청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인기 드라마 '체인징 디바(Drop Dead Diva)'에 테리로 출연중인 마거릿 조(Margaret Cho). 한국계 미국 코미디언인 그녀의 한국 이름은 조모란이다.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단독으로 진행할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명상애호가로도 알려진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는 보물 1호가 불상이라고 이야기한다. 2012년 12월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자비 명상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늘 이 끔직한 사건을 당한 모든 부모의 비통함을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려 애써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란 건 다만 알맹이 빠진 텅 빈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두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존중하며 내 침묵을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을 들이마시고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쉴 수 있도록 내 안의 평화를 내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랑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부디 받아주시길. 제발."

아시아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지 10대 시절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당시 또래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싫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고 했다. 14살 때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코미디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후 1996년에 데뷔, 지금까지 코미디를 계속 해오고 있는 마거릿의 개그소재는 자신의 사회적 핸디캡이다. 아시아와 미국의 문화적 차이가 주요 개그주제다. 그녀의 코미디를 "너무 아시아 같다(Too Asian)"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켰다.

그녀가 불교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샴발라 선(Shamhala Sun)' 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강조한 단어중 하나도 고통이었다.

"누구도 고통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구요. 고통은 살아있음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을 예술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고통을 표현하는 위대한 방식이 될 거에요"

연민, 동정, 사랑 이라는 단어 또한 그녀가 즐겨 말하는 단어들이었다.

"우리 모두 같은 고통, 같은 감정을 느끼기에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그녀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함으로써 그 사람 속으로 빠져 들어가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어디에 뿌리내려야 할지를 알고 있는 그녀는 그래서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연예인이 아니다. 평소 거침없는 정치적 견해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활동으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도 자비와 공감을 토대로 한 불교적 세계관을 가졌기에 가능했다. 덕분에 마거릿은 2003년 아시안 법률교육재단 행동정의상과 2004년 민권연맹 인권상 수상에 이어 2006년 8월 미국 독서캠페인 모델을 할 만큼 모범적인 사회활동가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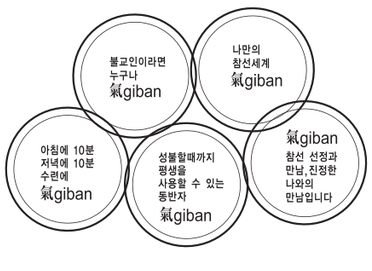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불교사의 새 장을 열다!

천만생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정법문중 부처님회상
와서 보고 듣고 귀의하면 영원한 행복의 길 열려

1. 부처님 없다 하면 가짜불교–2000년 넘게 껍데기 불교 믿어
2. 21세기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신 부처님–신불교 탄생
3.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신 인류의 구원성자
4.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적 구원의 주체
5. 영산불교 부처님 회상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구원선
(1) 정법에 귀의하여 석가모니불 칭명염불 해야
(2) 현지사 천도재는 부모 · 조상님에 대한 최고의 효행
(3) 관음태교는 자손의 행복과 국가인재 양성 위한 최상의 선택
(4) 석가탑 · 다보탑은 부처님 세계의 탑과 연결된 무량의 복전
(5) 약사삼존불 상주하시는 약사성전은 불치 · 난치병 치유센터
(6) 미타삼존불 상주하시는 미타성전은 정토보살 되는 관문

1 부처님 없다 하면 가짜불교 – 2000년 넘게 껍데기 불교 믿어

◈ 부처님 실체 모르고는 불교의 참모습, 참행복 못 찾아

불교는 진정한 행복종교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①금생의 행복 ②내생의 행복 ③영원한 행복의 3가지 행복을 모두 말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생이 있음을 믿고, 윤회세계의 고통을 믿고, 해탈세계의 행복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는 불교의 심오한 진면목을 알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 2600년 동안 부처님 실존과 위신력 몰라–껍데기 불교 믿어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께서 빛의 인격체로 실존하고 계심을 몰랐습니다. ≪법화경≫, ≪화엄경≫의 교설을 뛰어넘는 부처님의 무한한 위신력을 몰랐습니다. 불교학자들이 불(佛)의 삼신설(三身說)을 주장하고, 경전에도 그 근거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부처님의 실존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열반경≫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비유나 방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반열반 이후 2600여년 동안 아무도 부처님의 존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없는 불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주적 진리의 종교로서의 불교의 진면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불자들은 빈껍데기만 남은 불교를 믿어온 것입니다. 부처님이 없다고 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가짜불교입니다. 이름만 불교입니다.



현지사 부산분원

◈ '무아론의 왜곡' 으로 부처님 부존재의 논거 제공

부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거의 근저에는 '무아론의 왜곡' 이라는, 불교사적으로 부끄러운 사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아론은 부처님께서 나를 포함한 현상계의 모든 존재의 '실체 없음' 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실천적 의미는 '나에 대한 집착과 욕심, 이기적인 생각' 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아론을 현상계의 존재가 아닌 '나의 본체' 인 영혼체마저 없는 것으로 왜곡하여, 마침내는 윤회와 해탈의 주체도 없고, 부처님도 보살님도 없는 희한한 불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큰스님이라는 분들이 법상에서 '마음이 부처' 라든가, '지옥과 극락도 마음속에 있다' 든가 하는 대망어를 함으로써 많은 중생들을 오도하는 지중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대망어죄로 인해 사후에 얼마나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2 21세기, 불신(佛身)으로 한국 땅에 오신 부처님–신불교 탄생

◈ 신불교 정법시대 열기 위해 불신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21세기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인 영산불교에서 다시 한번 만 천하에 선언합니다. 부처님께서 2600여년 전에 대열반에 드신 후, 대부분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우주본체인 공과 하나가 되어 완전히 무(無)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라는 상적광세계에 불신으로 돌아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한국 땅에 몸 받아온 가섭존자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을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신불교 정법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국 땅 춘천 현지궁에 불신(佛身)으로 광림해 계십니다.

◈ 21세기 보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실존' 중심의 신불교

부처님의 불신은 3가지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법신불 · 보신불 · 화신불입니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성품과 지혜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합치된 비인격적 우주적 광명체이고, 보신불은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이며, 화신불은 중생교화를 위해 보신불이 만들어낸 분신체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 형상을 가지신 보신불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들의 업장을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초파일 10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한국 땅에 오신 이 보신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개창하신 21세기의 불교가 바로 신불교이고 영산불교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왜곡된 무아론' 을 바로 세워, ①부처님 실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관을 정립하고, ②인간 본체인 영혼체가 윤회하고 해탈하는 주인공임을 주장하며, ③ 팔정도 칭명염불만이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정법 · 정통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 부처님 친견은 가장 확실한 부처님 실존 증거

부처님 실존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깊은 삼매에 들어, 광휘현란하고 청정 · 영롱한 억종의 빛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인격적 불신을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후 십 수년 동안을 두 분 큰스님과 함께 하시면서 한국 땅 현지궁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두 애제자가 올리는 공양을 드십니다. 여러 붓다님들과 함께 차도 드십니다. 회의도 주재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지시도 하십니다. 법회 때는 큰스님의 정수리에 정좌하시어 무량광으로 참석 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공양도 받으시고, 천도재도 주관해 주십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다. 이런 부처님을 없다고 하면 큰 불경이 되고 지중한 죄를 짓는 일입니다.

3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신 인류의 구원성자

◈ 최초불이시고 우주법왕이시며 구원성자이신 부처님

≪법화경≫ 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겁생 동안을 스승도 없이 홀로 피나는 정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우주본체와 하나가 되어, 절대계라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심심미묘처(深深微妙處)를 인류 최초로 개척하신 최초불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후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길러내셨고 무량의 중생을 구제해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주(主)이시고, 법왕이시고, 삼계의 지존이십니다.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신 인류의 영원한 구원성자이십니다. 붓다중의 붓다이시고, 모든 붓다들의 아버지요 스승이십니다.

◈ 부처님은 무량광의 무한한 위신력으로 인류를 구원

우주본체인 공(空)과 하나 되어 공의 질료와 정보와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은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위신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능력은 불신을 이루고 있는 무량광으로부터 나옵니다.

무량광은 억종 색깔의 광명으로 이루어진 청정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입니다.자연의 빛이나 영적 세계의 어떤 빛과도 차원이 다른 우주 본원의 빛입니다. 중생이 보면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로 극도의 광도와 강도를 지닌 불멸의 빛입니다. 물 속이든 땅 속이든 마음 속이든 어디든지 비추지 않은 곳이 없는 신비의 빛입니다. 억종의 무량광 하나하나마다 특수한 역능이 있어 전지하고 만능자재한 위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할 수 있고, 무주고혼이나 삼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천도시킬 수 있는 구원의 빛입니다. 사바세계를 들어 던져버릴 수도 있고, 모든 외도들을 조복시킬 수 있는 신력(神力)의 빛입니다.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혼체에 태산같이 쌓인 업장을 소멸 받을 수 있고, 극심한 고통의 삼악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해탈성자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수장들도 불신을 갖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업장소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류구원의 종교는 진리의 종교인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4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적 구원의 주체

◈ 우주법계의 수많은 붓다님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부처님 한 분의 능력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우리 부처님이 길러내신 수많은 붓다님들이 있습니다. 다보여래불, 칠구지불모왕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보명불, 환희장마니보적불 문수보살, 청정행왕불 보현보살, 정법명왕불 관세음보살, 시방여래불 지장보살, 정명행원불 대세지보살, 해위등왕불 미륵보살, 산왕불, 치성광여래불, 명상불, 화광불 등등....

모든 붓다님들은 절대계에 삼신을 두고 있어 우주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지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우주적 구원능력

우리 부처님을 비롯하여 이 수많은 붓다님들의 능력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부처님의 법신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들어가면 하나의 우주적 광명체로서 단일 인격체가 되어 모든 붓다님들의 능력이 합해진 우주적 구원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법계 차원의 작업, 지구적 재난과 큰 전쟁의 방지, 우리나라의 통일과 인류평화를 위해 실질적 구원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현지사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절대계의 비로자나불과 하나로 연결된 세계유일의 불상입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에는 실제로 우주적 불력을 발휘하여 구원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불상을 모신 대적광전은 지구촌 보물 1호로서 무량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통일과 국운융창, 큰 전쟁의 방지와 인류평화를 위한 두 분 큰스님의 간절한 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5 영산불교 부처님 회상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구원선

(1) 정법에 귀의하여 석가모니불 칭명염불 해야

인간의 불행과 행복은 인과법에 따라 내가 수많은 과거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선악의 행위, 즉 업(業)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업은 인간의 본체인 영혼체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 중생은 영혼체에 쌓인 태산 같은 업장으로 인해 죽으면 대부분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삼악도에 떨어집니다. 천도재의 결과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런 악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합니다. 천만생에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회상의 정법에 귀의하여 칭명염불을 하고 업장소멸의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금강경 읽고 다라니 하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생도 잘 살고, 죽을 때 잠자듯이 죽고, 사후에는 지옥 · 축생의 악도를 벗어나 천상으로, 해탈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헤엄쳐 가는 대신 부처님의 구원의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칭명염불과 함께 5계 10선 등 청정계율을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행, 즉 자비 이타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여 선근 보따리를 크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장 큰 선근공덕은 부처님 회상에서 짓는 선근공덕입니다.

(2) 현지사 천도재는 부모 · 조상님에 대한 최고의 효행

효는 불교의 중심사상으로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해드리는 것은 효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사후에 부모님의 영혼체가 받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몸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지옥에서 기약 없이 극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부모님을 건져내어 준다면 더 이상의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도재는 최고의 효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도재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셔야만 실제로 천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가수배도 천도도 불가능합니다.

(3) 관음태교는 자손의 행복과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최상의 선택

태교는 태아의 일생을 좌우하며,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 관음태교는 부처님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직접 말씀하신 태교법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삼매 중에 현신하시어 자재 만현 큰스님께 부촉하신 새로운 차원의 행복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태아의 업장 정화를 통해 천재와 성현을 길러낼 수 있는 전인교육적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의 가풍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로 행복을 물려주는 최상의 가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관음태교는 세계적 인재를 많이 배출한 이스라엘의 전통태교와 영유아교육을 훨씬 능가하는 획기적인 국가인재양성 태교법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관음태교는 전인교육적 태교법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자식교육을 포함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인 무거운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당국의 혁신적인 인식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산불교에서는 앞으로 '관음태교 국가인재 양성운동' 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4) 석가탑 · 다보탑은 부처님 세계의 탑과 연결된 인류의 복전

석가탑은 인도 영축산 영산궁에 있는 부처님 설법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탑에서 대적정삼매에 들고 나고 하시면서, 시방의 많은 불보살들을 위해 법문하십니다. 이 석가탑은 불과 이루신 두 분 큰스님께서 점안하여(2011. 4월 초파일) 영산궁의 실제탑과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유일의 석가탑입니다.

다보탑은 삼계지존이신 다보부처님께서 수많은 본화보살님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탑 중의 탑입니다. 다보부처님의 불국토인 보정정토에 있는 거대한 5층탑입니다. 2009년 4월 초파일에 불과 이룬 두 분 큰스님께서 점안하여 절대계의 실제 다보탑과 하나가 되었으며, 우주적인 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유일의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의 4각형태와 석가탑의 8각형태는 각각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불교의 영원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에는 부처님세계의 두 지존부처님께서 항상 탑 속에 계시므로 불자들의 성스러운 기도처로서 최고의 복전이 되고 있습니다.

(5) 약사삼존불 상주하시는 약사성전은 불치 · 난치병 치유센터

현지사 약사성전(강원도 고성 분원)에는 약사삼존불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약사정토에서 파견된 98분의 최정예 전문의(專門醫) 보살님들도 와 계십니다. 이러 약사성전은 지구촌에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약사부처님은 업병을 포함하여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 · 난치병 등 만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의중대왕이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술도 하십니다. 많은 치유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 미타삼존불 상주하시는 미타성전은 정토보살 되는 관문

대전에 있는 현지사의 미타성전은 미타삼존불께서 상주하십니다. 불과 이루신 두 분 큰스님께서 점안하여 서방극락정토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유일의 미타성전입니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수년간 사유하여 만드신 완전한 해탈세계이며,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영원한 안락의 세계입니다. 현지사의 미타성전은 인연 있는 염불행자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사 대전분원

▪ 현 지 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 033-243-1787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 이센타워 15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 053-654-5557
• 제 주 분 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3 ☎ 064-783-5355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치겐 이와꾸니시 히라타 ☎ 0827-34-1626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회갑 맞은 서예가의 '佛心'을 담다

박찬호 작가전…10월 23~29일 경인미술관서

의천 박찬호 작가의 전시가 10월 23~29일 경인미술관 1실에서 열린다. 올해로 회갑을 맞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화, 서예, 민화, 전각 등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민화와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작가는 회갑을 기념해 여는 이번 전시에서 불화에 처음 도전해 눈길을 끈다. '관세음보살 삼십이 응신도' '심우도' '조왕탱화' 등 10점의 불화 작품은 물론 〈반야심경〉 〈금강경〉 등의 서예 작품도 선보인다.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동생도 30년 넘게 탱화를 그릴만큼 불화와는 친숙합니다. 동생의 조언을 얻어 조금씩 불화를 그려 왔지

관세음보살도 등 불화부터
서예 민화 전각 60점 선봬

만 전시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예학원을 운영하고 작품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남한산성 장경사에서 운전봉사를 하는 등 평소 신행활동을 병행해온 작가는 후불탱화는 물론 심우도까지 다양한 불화를 그리면서 불화의 세계에 흠뻑 빠졌다고 한다.

여기에 불경을 기반으로 한 서예 글씨도 더해졌다. 글자 한 자 글귀 한 구(句)에도 무량무변(無量無邊)의 뜻이 있어 한량없는 복덕을 이룬다는 경면주사 범자(梵字)대다라니경, 인보(印譜)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5340자를 감지에 금니로 새겼다.



박찬호 作 '반야심경(해서)'

서예가 박찬호 작가는 예서, 행서, 전서, 해서체는 물론이고 기묘한 32체의 독특한 분야까지 망라 또 한 줄기만의 필체를 고수해 작품을 표현해 냈다. (031)747-0909 **정혜숙 기자**

명상음악으로 감상하는 산사의 하룻밤

1박 2일 템플스테이 음반 출시

템플스테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기획 제작 앨범이 나왔다. 콘텐츠코리아가 '산사에서의 하룻밤' 앨범을 내놓았다. 28곡의 명상 음악이 실린 이 음반은 'Flower' 'The Time Before Sunset' 등의 음악을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에 맞춰 구성했다.

콘텐츠코리아 신효철 대표는 "방송 명상 문화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템플스테이 음반이다.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2년 여 기획 및 제작을 통해 나온 진정한 템플스테이 음반"이라며 "눈 감고 가만히 들으면 템플스테이 전 과정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며, 마치 고즈넉한 산사에 온 듯한 감동과 여운이 그대로 전해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음반은 '입재식' – '먹을 만큼 덜어먹는 법공양' – '33번 울리는 범종소리' – '향과 촛불을 켜고' 등 실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구성됐다. 물론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삶에 지치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산사에서의 하룻밤' 음반 표지

김진묵 명상음악가는 "마치 고즈넉한 산사의 템플스테이에 온 듯 우리들 내면에 마음고요와 휴식, 성찰과 힐링을 주는 마음으로 듣는 음악"이라며 이 음반을 평가했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불화에 담긴 한국인의 사후세계 그리고 '염원'

홍익대박물관 2013년 소장품 특별전 '내세에서의…'



홍익대박물관은 2013년 소장품 특별전 '내세에의 염원: 한국의 불교미술'展을 2014년 6월 27일까지 연다. 사진은 영산회상도(비단에 채색, 133×183cm)로 18세기 중반 작품.

불교가 삼국시대에 유입된 이후 16 세기까지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보다는 사후 세계인 극락에서의 왕생 혹은 지옥에서의 구제라는 불교의 독특한 구원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를 통해 한국인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사후 세계관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홍익대박물관이 소장 불교미술 작품들을 23년만에 대중에게 공개한다. 2013년 소장품 특별전 '내세에의 염원: 한국의 불교미술 (Visions of the Afterlife in Korean Buddhist Art)' 展이 2014년 6월 27일까지 열린다.

홍익대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홍익대박물관 소장 불교미술 작품들을 23년만에 대중에 공개하는 자리다. 불교미술 분야의 전공자들이 문화재급으로 추정할 만큼 본교 소장품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선별했다"고 전한다.

회화 10작품과 조각 5점이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된다. △불교의 수용 '영산회상도' △불교 사후 세계관 '아미타극락회상도 초본' 과 지옥의 '지장보살도' △내세관을 통한 불교 미술의 독자화와 신앙의 확산 '삼장보살도' 와 '진영' 등 세 분야로 나뉘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영산회상도' '선각아미타석판불' 등
회화 조각 내년 6월 27일까지 전시
한글 영문 텍스트 실은 도록도 발간



선각아미타석판불(고려)은 잘 연마된 점판암 표면에 음각과 양각을 혼합한 특이한 기법으로 새겨진 아미타불이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18세기 중반, 비단에 채색, 133×183cm)는 인도의 영취산에 계셨던 부처님의 설법모임을 도해한 작품이다.

설법회에 참석한 제 성중(聖衆)은 4열로 배치되었는데 화면 중앙의 본존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브이자형의 배치를 통해 본존으로 집중되는 구성을 보인다. 조선 후기의 영산회상도가 대부분 성중을 좌우 대칭적으로 일렬로 나타내는 것에 비해 본존과 제성중을 크기와 표현을 달리하여 공간을 여유 있게 나타낸 방식이 특징적이다.

선각아미타석판불(線刻阿彌陀石板佛, 고려, 석제, 60×44.5×3.4cm)은 잘 연마된 점판암 표면에 음각과 양각을 혼합한 특이한 기법으로 새겨진 아미타불이다. 석질은 질 좋은 점판암으로 검은 빛이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무늬가 8~13cm 간격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된 이후 한국이 독자화한 양상의 실예(實例)를 조선시대 불화 중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뜻도 있다. 불교를 통해 한국인의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사후 세계관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국왕과 귀족의 시각에서 바라 본 불교라기보다 기층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한 불교라는 측면에서 이번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편, 홍익대 박물관은 전시와 함께 〈내세에의 염원: 한국의 불교미술 (Visions of the Afterlife in Korean Buddhist Art)〉 도록도 발간한다. 두 편의 에세이와 개별 작품의 해설 텍스트, 그리고 한국불교미술사 관련 참고문헌으로 구성된 도록은 한글과 영문 텍스트를 동시에 게재해 해외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화 ·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목 · 금요일 오후 1시~오후 5시다. (02)320-132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 금상에 '휴식'

1353점 접수 16점 수상… 10월 17일 시상식



천태종 제3회 불교사진공모전 금상작 이순희의 '휴식'

천태종 제3회 불교사진공모전에서 이순희 씨가 작품 '휴식' 으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0월 17일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금상을 받은 '휴식' 은 6명의 동자승들이 무더운 여름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는 익살스러운 모습을 담아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우 심사위원장(사진작가)은 "천진무구한 표정과 아주 자연스런 모습이 보는 사람의 미소를 짓게 하는 수작이라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 구도와 내용 모든 면에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평했다.

은상은 허현의 '미소' , 박우현의 '청정수행길' , 동상은 김종인의 '백중천도재1' , 박기철의 '동심' , 김종석의 '산사의 겨울' 이 선정됐다. 또 가작으로는 반태숙의 '다비식2' , 이재실의 '대조사전' , 안태선의 '다비장 가는 길' , 김금순의 '감로수' , 장남진의 '백제미소길 산행' 이, 장려상에는 진갑생의 '영산재2' , 박정금의 '탁발공양' , 이세철 의 '수양' , 권일영의 '초파일' , 강미옥의 '홍법사의 봄' 이 선정됐다. 한편, 천태종은 4월 30일~9월 2일 작품을 공모했고 총 1353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정혜숙 기자**

21C 文化遺産 매니지먼트 시대로...

서진문화유산은...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국보 · 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산 · 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 · 학 협력 협약체결 등)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 개념 도입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 · 제작
- 박물관 전시 기획 · 설계
- 국 · 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스테이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괴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흰개미 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 CRM 용역
- ▶ HIP 기획 · 제작
- ▶ 박물관 전시 · 기획
-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저변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 문화상품 기획 · 개발
-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국보 제 47호]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❶
[국보 제132호] 징비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❷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❹
[보물 제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1242호] 합천 해인사 길상탑 보존처리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❺
[시도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❻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봉선사괘불 보수사업 ❼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층전사 및 복원)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❽
세계유산등재추진 공룡화석(발자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 본사 : 경북 경주시 서부동 4-5 경주오피스텔 6010 ● 지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D동 610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 771-9747, 02)2083-1520 ● 팩스 : 054) 771-9748, 02)2083-1521

서진문화유산(주) Seoj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

동서양 조형 작품에 보주 널리 활용돼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석류(石榴)→씨앗이 가득 찬 씨방→보주가 가득 찬 씨방 ㊦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시대 의종 11년(1157년) 봄 4월 고려궁 후원에 연못을 팠는데, 거기에 정자를 세우고 이름을 양이정(養怡亭)이라 했는데 청자기와를 덮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 서 분석한 청자 수막새는 1150년경에 만들어진 청자기와로 그 등에 음각으로 새겨진 조형은 영기문 줄기에서 무수한 영기싹을 싹트게 하면서 마침내 영기꽃이 피어나는 도상이다. 그리고 주머니 모양 씨방 안의 씨앗들이 보주로 변하면서 밖으로 발산하는 형상인데, 그것을 연이어 놓고 씨방에서 보주들이 널리 발산하는 형국이다. 청자기와를 세로로 세워서 영기꽃을 바로 잡으면 놀랍게도 바로 고려사경 표지 그림과 같은 조형이 된다.(그림 ①)

고려사경의 표지의 그림은 약간씩 다르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조형이다.(그림 ②) 사경 표지에 그렸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사경이란 것은 여래와 보살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여겨 불상을 금색으로 도금하듯, 금색이나 은색으로 쓴 것이니, 여래장 사상(如來藏 思想)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하였다.(〈한국미술의 탄생〉, 솔, 2007, pp. 552~555) 즉, 중생이 여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인 씨앗을 고차원적 상징인 보주로 승화시키되 여래가 곧 보주가 되어 여래의 정수리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형국이니 '씨방=보주'의 조형과 같지 않은가. 보주는 곧 진리(설법)를 말한다. 만일 보주를 광물성 보석들, 즉 수정이나 다이아몬드, 루비 등 귀금속이라 모두 알고 있는데 단지 '보주가 보배로운 구슬'이란 의미뿐이라면 올바른 용어라 할 수 없다. 보주에 대하여는 그 함유하고 있는 바가 너무도 커서 연재로는 충분히 성명할 수 없다. 보주의 본질을 알기 원한다면 〈수월관음의 탄생〉,(글항아리, 2013년)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저서 한 권 전체가 보주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조형이 서양의 기독교미술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주의 개념은 서양에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살펴보니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뿐이었다. 서양 미술사학자들은 모두 석류로 알고 있으므로 보편적 상징을 밝힐 수 없었다. 서양 역시 씨방의 조형적 역사는 유구하다. 서양의 르네상스시대의 대표적 화가 지오토(Giotto, 1267~1337)가 그린 '성 스테파노'의 초상화를 보면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추었는데 그 주변에 놀랍게도 씨방에서 보주들이 줄줄이 나오는 도상이 있다. 원래 금색 한 가지이지만 채색분석하여 보니 씨방에서 보주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씨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보주들을 보고 경악한지 오래되었지만 광배의 알갱이들 너무 작아 오늘도 깨알 같은 입자들이 선(線)인 줄 알았다. 보이지 않았던 입자들을 돋보기로 보는 순간 삼천 개의 보주들이 스테파노의 몸으로 부터는 1500개의 보주가 겹겹이 파동치고, 스테파노의 머리로 부터는 1500개의 보주가 파동치며 질서정연하게 무한히 퍼져나감을 보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알갱이 하나하나를 빨간 색으로 칠했다.(그림 ③) 지오토는 이렇게 중요한 도상을 어디에서 누구로 부터 배운 것일까?

석류가 아니고 씨방이라고 하는 증거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의 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시리아의 것을 사람들은 '석류와 팔메트'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밝힌 것처럼 석류는 씨방이고 팔메트는 '제3영기싹 영기문'이다. 즉 서양에서도 보편적인 만물생성의 근원으로 삼은 것을 어느 특정의 식물의 씨방으로 알고 있다.(그림 ④) 용도는 알 수 없으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장 작품은 아시리아의 조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그림 ⑤) 결코 씨방이 아니다. 그런데 그 씨방 안에 보주가 가득 차 있으므로 씨방으로부터 엄청난 영기가 발산하는 양상은 동양이 단연 독보적이다.

중국 당나라의 조형을 보면 씨방에서 보주가 나오고, 다시 연이어 씨방이 나오며 보주가 생기는 도상인데 사방으로 갖가지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그림 ⑥) 중국 송나라에 이르면 씨방 안에 '씨앗=보주'를 그려 넣었으며 사방으로 역동적인 영기문이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씨앗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그림 ⑦) 씨앗이 승화하여 만물을 탄생시키는 보주로 화(化)하기 때문에 이런 영기문이 역동적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조형미술을 해독하면 세계는 한 마을임을 깨달을 수 있으니 전에는 없었던 생각이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그림 ② 일본 대승사 소장_법화경권제1표지 (2)



그림 ③ 스테파노 광배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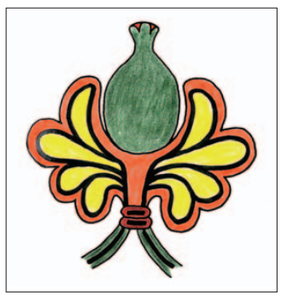


그림 ④ 아시리아의 씨방, 기원 전 3세기



그림 ⑤ 서양 4, 5세기의 씨방, 프랑스 루부르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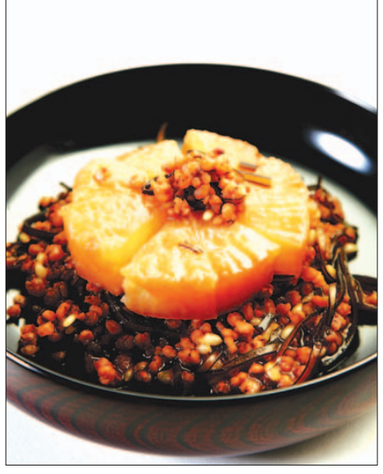
그림 ⑥ 중국 당 나라의 씨방



그림 ⑦ 중국 송나라의 씨방, 엄청난 영기가 발산하고 있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달짝지근한 가을무는 찜이 제격



수수소스의 다시마 무찜

△재료(4인 기준)

○ 무 높이 4cm 1토막(300g), 다시마 사방 10cm 크기 1장, 볶은 현미찹쌀 1큰술, 볶은 율무 1작은술, 물 3컵, 소금 1/3작은술, 간장 1작은술

○ 수수소스

국간장 1.5큰술, 찰수수밥 4큰술, 생강 1톨, 맛국물 1.5컵

△만드는 법

① 무는 높이 4cm 높이로 자른 후 분량의 재료와 함께 넣어 중불 정도에서 부드럽게 익도록 삶은 후 6~8등분 한다.

② 익힌 다시마는 길이 4cm 정도로 채썬다.

③ 맛국물에 수수밥과 간장, 생강을 넣어 끓이다가 먼저 익힌 무를 넣어 양념이 배이도록 부드럽게 익혀낸다.

④ 그릇에 수수밥과 다시마를 깔고 그 위에 익힌 무를 얹어낸다.

⑤ 기호에 따라 약간의 들기름을 얹어 먹어도 좋다.

초고추장 소스의 도토리 묵선

△재료(4인 기준)

○ 도토리묵 1/2모, 고구마 줄기 적당량

○ 소 – 느타리버섯 50g, 애호박 50g, 청고추 1개, 홍고추 1/2개, 녹말가루 1큰술, 소금 1/4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 초고추장 소스

유자고추장 3큰술, 매실식초 2큰술, 매실청 2큰술, 생강즙 1작은술, 간장 1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도토리묵은 길이 4×5cm 두께 0.7cm 정도의 크기로 썰어 약간 꾸덕하게 말린다.

② 느타리버섯은 데쳐서 잘게 다지고, 애호박은 잘게 다져 소금에 살짝 절여 수분을 없앤 다음 각각 볶아 식힌다.

③ 느타리, 애호박에 청홍고추 다진것을 넣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다음 녹말가루를 넣어 소를 만든다.

④ 약간 꾸덕하게 마른 묵에 소를 채우고 고구마 줄기를 묶어 김오른 찜솥에 5분 정도 쪄낸다.

⑤ 쪄낸 묵선에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도도리묵 해독작용·피로회복에 좋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가 참으로 달짝지근하니 그 맛이 절정에 다다른다. 무는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여 속쓰림, 위산과다 위 더부룩함, 숙취 등에 효과적으로 뿌리와 껍질에는 비타민 C와 모세혈관을 강하게 하는 비타민 P가 함유되어 있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무를 이용하여 조림을 할 경우는 무를 살짝 삶아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삶는 물에 수수나 현미를 넣게 되면 특유의 아린맛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단맛을 내게 된다. 단 생것보다는 살짝 볶은 것을 사용해야 깊은 맛이 나게 된다.

도토리는 치질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지혈작용이 있어 출혈을 멈추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며 해독작용이 있다. 또한 피로회복에 좋고 소화기능을 촉진 시키며 당뇨나 성인병에 효과가 있고 잇몸염, 인후염, 화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흔히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약간 말린 도토리로 전골을 하거나 쪄서 만두처럼 먹게 되면 쫄깃한 식감의 별미가 된다. 여기에는 담백한 간장소스보다는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이 더욱 입맛을 돋구워준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모든 교법을 모아 一心으로 통하도록 한
회통불교의 백미! 팔만대장경의 축소판!



「원인론」과 「발미록」을 번역 · 해설한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스님 번역 · 해설
신국판 | 양장 | 2도칼라 | 348쪽 | 20,000원

문 · 사 · 철의 모범이자 비교종교학의 효시
불교의 개론서이자 종파를 초월한 수행지침서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판석들의 개요를 보였다.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창한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사의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하였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二色을 사용하였다. 정원(淨源: 1011~1088) 법사가 『원인론』을 해설한 「발미록發微錄」은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하고 해설하였다.

이 책은 유교와 도교의 교법을 요약하여 그 근본을 밝히고, 미혹함과 집착함을 비판하여 물리쳤다. 다음은 불교의 교법을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로 분류하고, 그 교법의 내용과 근본(法)을 밝힌 뒤에, 치우침과 얕음과 깊음을 분별하였다. 또한 선문의 삼종과 교문의 삼교를 비교하여 선문과 교문이 지향하는 정점은 동일함을 밝혔다. 끝으로 인간세계의 근본인 일심을 밝혀서, 모든 교법을 모아 일심으로 통하도록 하였다.여기서 수승한 근기는 이 「논」의 뜻을 단박에 깨달아 얕은 것을 버리고, 성품을 바로 보인 깊은 교법에 의지하여 원대한 일심의 바다로 향하여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토원 ☎055-375-5844, 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 비움과소통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지금 우리에게 차란 무엇인가…또 하나의 〈동다송〉



우리시대 동다송
박동춘 지음
북성재 펴냄
1만3천원

"근자에 북산도인(변지화의 호 · 변지화는 당시 진도 부사로 홍현주의 뜻을 초의 스님에게 전했다.)이 다도(茶道)에 대해 여쭈시니 고인(古人)이 전한 뜻에 의거하여 〈동다행〉 일편을 지어 올립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던 유학자 홍현주(1793~1865)는 초의 스님(1786~1866)에게 '다도'를 물었다. 그리고 초의 스님은 〈동다행〉을 지었다. 당시 백성들은 부패와 수탈, 재난으로 인하여 신의와 예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은 예론(禮論)에 전념하여 논쟁을 일삼는 현실을 통탄하며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제 학문, 즉 이용후생을 주장했다. 자신을 성찰하는 한편, 우리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다. 차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 차의 고유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도 그 영향이었다. 초의 스님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를 통해 이미 실학을 이해했으며, 유학자들 사이에서 전다박사(煎茶博士)로 알려져 있었다. 홍현주가 그에게 다도를 물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동다행〉은 〈동다송〉의 원 제목이다. 그 후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문화를 알려준 대표적인 다서로 전해진다. 그리고 2013년 10월, 또 한 권의 〈동다송〉이 지어졌다. 박동춘의 〈우리시대 동다송〉이다. 초의 스님의 〈동다송〉이 홍현주의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면 박동춘의 〈우리시대 동다송〉은 시대의 물음에 답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과연 차란 무엇인가. 초의 스님의 다법과 차향을 이어가는 박동춘 박사가 〈동다송〉 위에 쓴 〈동다송〉이다.



초의 스님이 39세(1824)때 지은 일지암. 스님은 이곳에서 〈동다송〉을 지었다.

차를 통해 이룬 초의의 세계
현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책
차를 매개로 한 깊은 사색 담아내

역사는 흘러간다. 그리고 풍습도 변해간다. 그 땅에 사는 사람도 바뀌어 간다. 우리는 어떻게 온고(溫故)할 수 있는가. 증거다. 증거는 역사 속에 소중히 남아 있는 문헌들이다. 이것들은 증엄할 수 있는 자취를 담고 있기에 소중하다. 〈동다송〉이 소중한 유산인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초의 스님이 52세(1837년)때 저술한 〈동다송〉은 차의 기원과 차나무의 생김새, 차의 효능과 제다법, 우리나라 차의 우월성 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차를 칭송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선인의 자취를 따라 원리에 다다르고자 했던 초의선사의 차를 통한 수행의 발자취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한 방편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차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밝힐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차문화를 복원할 수 있었다.

〈우리시대 동다송〉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 초의 스님이 구현하려 했던 시대정신과 차를 통해 이루어낸 철학적 세계를 어떻게 현대인들의 정신에 불어넣을까 고민한 것이다. 또한 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를 살다간 조선 최고의 학자와 사상가들의 우정을 소개하고 있다. 초의 스님과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라는 거목과도 같은 우리의 스승들이 초의 스님의 차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낸 역사의 시간을 소개한다. 차를 매개로 한 저자의 깊은 사색의 시간이 온존히 담겨 있다.

"현재 차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의 일종이 되었다.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차가 광범위하게 생산되었던 적은 없었다. 명실 공히 차문화의 대중화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대중화의 성공은 현대인의 차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략〉 옛 사람이 차에서 발견한 진실한 가치 또한 이것이었다. 차는 물질이지만 가장 고상하도 맑고 투명한 것으로서 정신적인 음료로 승화된 이유 또한 차의 담박성에 있는 것이다. 차가 군자와 같다는 것도 담박한 차의 본성을 지칭한 것이다."

〈우리시대 동다송〉은 초의 스님과 닿아 있다. 선(禪)을 추구하는 맑고 속기 없는 차향을 느낄 수 있는 차이야기는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백을 제공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종교와 철학 갈무리한 역작

장소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

니시다 기따로 지음 | 김승철 역해 | 2만원



"국가는 도덕의 근원이지만 종교의 근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가는 절대자의 자기 형성의 방식이며, 우리들의 도덕적 행위는 국가적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국가는 우리들의 심령상의 구제자가 아니다. 참된 국가는 그 근저에 있어서 스스로 종교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참된 종교적 회심의 사람은 그 실천에 있어서 역사적 형성으로서 스스로 국민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의 종교와 철학을 일본적이고 동양적으로 해석해 독창적인 종교철학을 구축하고, '교또학파'가 형성되게 한 일본의 세계적인 철학자 니시다 기따로(1834~1945)의 종교관을 만나본다. 종교와 철학을 갈무리한, 지성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만년의 저작 〈장소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이 완역되어 출간됐다. '난잔종교문화연수고연구총서' 제1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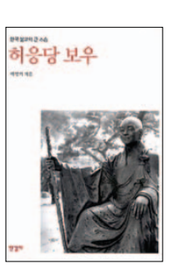
니시다 기따로는 고금에 탁월한 대가의 책을 종횡으로 정독하되 한 가지를 끝까지 생각하기 전에는 다른 책을 집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니시다의 이 논문 또한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난잔종교문화연수고연구총서' 제1권인 〈장소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은 니시다 기따로의 '정치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글을 수록하고 뒤에 니시다의 이 논문에 대한 해설논문인 4편을 함께 넣었다.

박재완 기자

'억불' 시대서 유·불 회통 시킨 선지식

허응당 보우

박영기 지음 | 한길사 펴냄 | 1만5천원



'숭유억불(崇儒抑佛)', 조선은 1000년 동안 계승해온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섬기기로 했다. 책은 불교가 억압받았던 시절에 불교 중흥에 앞장서며 이후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은 조선 중기의 허응당 보우대사(1510~1565)의 생애와 사상이다.

조선 시대에 불교는 국가의 말살 정책에 의해 사찰과 종파가 강제로 통폐합되고, 혹독한 탄압과 지속적인 배척으로 인해 크나큰 타격을 받았다. 명종대의 고승인 보우대사는 그러한 시대에 불교 중흥에 앞장서고, 이후 한국 불교의 명맥을 잇게 한 인물이다. 특히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의 명을 받아 봉은사 주지로 있던 8년 동안 보우대사는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교단을 정비했으며, 승려 과거제도를 부활하는 등 일련의 불교 부흥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문정왕후 사후에 그는 유생들에 의해 '요승(妖僧)으로 몰려 끝내 제주에 유배되어 순교하는 비운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400년이 지나도록 그는 일방적인 자료로만 매도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허응당집〉을 비롯한 저술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면서 재조명 되고 있다.

책은 보우대사가 벌렸던 불교 중흥운동과 유림에 대한 대응양식, 사상을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의 진원을 파악하고, 그의 복권에 정당한 논리를 제시했다. 최초의 평전이었던 〈순교자 보우선사(한길사, 2000)〉의 증보판인 책은 그 동안 진전된 보우대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몇 가지 내용을 보완했다.

첫째는 보우대사의 생년을 1510년으로 정확히 밝힌 것이다. 그동안 대사의 생년이 확실하게 고증되지 않아 정확한 연보를 만들 수 없었다.

둘째는 당내 유학을 대표한 대학자 퇴계 선생의 기록을 통해서 불교와 보우대사에 대한 견해들을 추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대사의 법문을 정리해 놓았다.

보우대사는 여러 편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허응당집〉은 보우대사가 금강산에 들어가 수도하던 때부터 입적할 때까지 쓴 시 483편과 병서(并序) 6편의 글을 모은 문집으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그의 저술 중의 하나 〈나암잡저〉는 제자들에게 남긴 법어와 각종 법회의 소(疏), 발(跋), 중수기(重修記), 권선문(勸善文), 명(銘) 등으로 구성된 저술이다.



허응당 보우대사 진영. (봉은사 · 2013)

책에서는 〈허응당집〉을 중심으로 보우대사가 남긴 여러 저술을 면밀히 살펴 보우대사의 생애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그의 삶의 조각을 모았다.

보우대사는 유교와 불교의 도가 둘이 아님을 논하며 불교의 진공적멸을 작용의 본체로, 유교의 인륜지도를 본체의 작용으로 보아 유 · 불을 하나로 회통시켰다. 그는 불가의 입장만을 변론하지 않고, 당시 불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먼저 지적하여 단지 공(空)만을 지키는 자는 치선으로, 인륜을 등진 자를 광석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부자와 군신 등 모든 인륜관계를 부인하는 중국불교로부터 우리 불교를 경계 지으며 조선시대 모든 배불논리의 원전이 되었던 정도전의 〈불씨잡변〉의 논리를 무력화시켰다.

올 해로 그의 순교입적 448주년을 맞았다. 비록 20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우대사는 선 · 교 양종과 승과를 다시 일으키고 승단의 체제를 정비하여 스러져가던 조선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승과를 통해 발굴한 서산, 사명과 같은 스님들은 이후불교의 맥을 이어간 주역이 되었다. 비록 그의 순교로 인해 하루아침에 다시 암울한 시기로 빠지게 되었으나 그의 우국충정은 후대에 계승되어 유가의 온갖 배척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불교인이 국난 극복의 선두에 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난세에 온몸을 바쳐 불교중흥을 위해 앞장서다 순교한 보우대사의 일생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9 ~ 10/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깨달음	법륜	정토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좋은 장왕 캔체	팡세
7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담앤북스
8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9	직지 길을 가르키다	이시우	민족사
10	초기불교, 94가지 주제로 풀다	임승택	도피안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매 순간이 행복이고, 매일이 깨달음이다"



발 밑에 꽃 핀줄도 모르고
걀왕 드룩파 지음
유영일 풀어 옮김
다른세상 펴냄
1만2천원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어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 높은 연봉을 받으면, 지금보다 큰 집을 얻으면…"등등.

해야 할 일은 갈수록 늘고, 이루고 싶은 목표는 커진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이뤄져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의 소중한 삶만 뒤로 미뤄질 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행복인 줄도 모르고 놓쳐 버린 소소한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행복을 발견하고 못하고는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생 굴곡을 '고통의 순환'이라 불렀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절망과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 또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통과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 뿐이라는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시간에 대한 걱정과 속박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여유와 자유가 생겨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한다.

나를 삶의 중심으로 안내하다

저자는 한 달에서 석 달여에 걸쳐 수백 마일을 걷는 '파드 야트라'라는 마음 여행을 주선한다.

광대한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맑음으로 충만한 본래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통로다. 자연과 함께 걷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일치되는 경지를 체험한다.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으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고,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

마음이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 대단한 행복감이 밀려든다. 저자는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정확한 나침반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다.

순수하고 텅 빈 마음을 발전시켜 마음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어떻게 해야 거기에 이를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존재의 심연에 가 닿는 따뜻한 위로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의해 붙여진 이름표, 즉 에고가 우리의 직관을 흐리게 한다.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 '개구쟁이' '거짓말쟁이'라는 낙인 찍힌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과거에 성립된 고정 관념서 벗어날 수 없다. 날조된 자아가 본성이 고유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타인에게도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며 오해를 창조한다. 화, 집착, 근심, 자기혐오, 자만 등 갖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비교와 경쟁 반열에 올려놓고 저울질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눈을 통해 가늠하고, 자신은 주어진 역할극을 떠맡아 수행하기에 바쁘다. 저자는 이러한 에고를

최고 스승이자 나침반은 자신
삶서 행복찾는 구체적방법 제시
초심자도 따라하는 명상법 소개

내려놓고 야생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면 다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인을 닮을 필요도, 자신을 다그칠 필요도 없다. 우리 자신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천 가능한 내 안의 행복 찾기

저자는 삶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법, 소풍처럼 가볍게 삶을 대하는 법, 타인과 함께하는 법,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것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법을 되짚어본다. 또한 처음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저자 걀왕 드룩파는?

'용의 교단'이라 불리며 1천여 년 동안 널리 융성한 드룩파 교단의 종사다. 그는 4살 때 제11대 걀왕 드룩파의 환생으로 인정받은 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며 '자신이 본래 지닌 순수하고 텅 빈 마음을 발견하라'는 주제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환경보호, 구제 사업, 교육, 의료봉사, 문화유산 보존 등을 진행하는 국제 휴머니즘 기구 '삶에서 사랑으로(www. live2love.org)'의 설립이다. 그 공로로 그는 2010년 9월 유엔 MDG(United Nation'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ward) 상을, 2011년 12월에는 인도의 대통령으로부터 그린 히어로 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카메론 디아즈, 리처드 기어, 양자경 같은 세계적 스타의 응원을 받으며 유럽과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 등지서 명상과 치유센터를 운영중이다. 저서로는 〈발밑에 꽃핀 줄도 모르고〉가 있다.

"보도 듣고 말할 마음 없는 이가 바로 도인"

선심으로 보는 세상

현각 스님 지음 | 한걸음더 펴냄 | 1만 2천원



세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보인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보는 세상과 성인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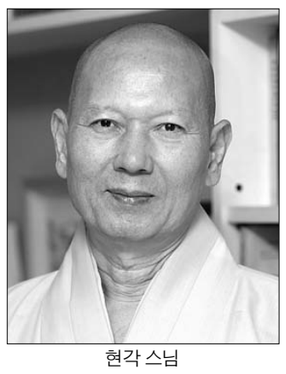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인 저자는 선심(禪心)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선심은 순수와 성찰과 반성이라고 저자는 명명한다. 이러한 선심에 대한 정의 또한 오랫동안 선학을 연구하고 그 세계에서 번민에 휩싸여 숱한 나날을 고뇌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한 불교 선학자인 저자가 국내서는 다소 생소했던 선학 학문을 체계화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선심으로 바라보기 수월했지 않나 생각한다.

"혼자 오르는 산길은 호젓한 시간이다. 누구는 혼자 걷는 산길이 무섭다지만 내겐 그렇지 않다. 갈 때는 혼자 나선 길이지만 돌아올 때는 다른 나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바래고 총기가 가신 자신이 정화되어 새롭게 탄생해 동반하고 있지 않은가. 참 경이롭다."

이같은 '머리말'에서도 드러나듯이, 현각 스님의 사유세계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호젓한 산길에서의 산책 한번으로 새 존재의 탄생을 발견해 낸다. 유사한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다.

스님은 이 책에서 다양한 주제로 세상을 바라봤다. '생명' '양심' '영혼'을 노래했다. 이들은 바로 저자의 사유세계 속살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저자의 글들은 책장을 넘기면서 한 참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한다고 하면 혀를 차며 안쓰러워한다. 그러나 실로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참된 빛깔이 보이고 귀가 멀었을 때 비로소 참된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오히려 눈이 터져 있으므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귀가 뚫려 있으므로 들리는 것에 집착하기 쉽다. 보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말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히 도인이라 할 만하다." 이렇듯 우리가 평소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삶의 도리에 사유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현각 스님

'생명' '양심' 등 시선으로 세상 관찰
글 속에 아름다운 우리말 골라 사용
현대불교에 연재한 내용 발췌

이 책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 편마다의 원고에 아름다운 우리말이 안성맞춤으로 들어 앉아 있다. 가끔씩은 우리말을 일부러라도 골라 쓰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지만, 이 책에서처럼 문장 속에 녹아들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글 맛을 살리는 경우는 드물다. 느낌으로는 대략 짐작하지만 정확히는 알기 어려운 우리말을 사전을 찾아 알아가는 〈선심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 눈을 좀 더 밝게 해줄 것이다.

한편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은 현대불교신문에 저자가 연재했던 내용들을 주로 발췌해 묶은 것들이다.

김주일 기자

통도사라는 '프레임'으로 낱낱이 조명한 세상의 이치

통도유사

조용헌 지음 | 김세현 그림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 1만5천원



〈통도유사〉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꾼 조용헌이 통도사를 프리즘으로 동서고금의 정신세계를 탐색해본 사찰 인문기행서다.

조용헌은 젊은 시절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공간과 사람들을 만나왔다. 유교의 선생, 도교의 고수, 불교의 스님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섭렵한 사주, 풍수, 한의학 관련 지식과 철저한 현장답사, 세상사 흐름에 대한 예민한 포착과 탁월한 통찰, 호방하고 웅숭깊은 필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독자들을 울고 웃기는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자는 '공부'를 위한 유랑을 멈추지 않는다. 온몸으로 만나는 세상이 책이요,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에서 저자는 세상사 이치를 깨닫는 장(場)으로 사찰을 택했다. 오랜 세월 본래의 터를 지키고 있는 사찰에는 우리 조상의 민속신앙, 불교신앙, 신화가 꿈틀대고 있다. 저자는 한국, 중국, 일본 600여 사찰을 직접 답사하며 우리 신화를 들여다보는 사찰 인문기행서를 구상했고, 그 이야기의 무대를 통도사로 정했다. 646년 자장율사가 터를 잡은 통도사를 들고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문화권, 국경을 초월해 그 뿌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에게 신화는 어떤 의미일까? 저자는 현대인들이 들끓는 고통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초월세계의 비밀에 눈을 떠야 한다고 말한다.

근심 걱정과 욕망으로 들어찬 마음을 바꿔 살기 위해, 중생의 분별심을 바꾸기 위해 '신이'하고 '영험'한 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신화가 우리네 인생살이에 어떠한 방도를 일러주는지 제대로 일깨우기 위해서 조용헌은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일연의 서술방식을 선택했다. 이름하여 '유사체'다.

역사 서술 방식에 있어서 김부식의 사기체와 일연의 유사체는 각각 나름의 존재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통도사의 전체 역사를 서술하는 입장에서 저자는 '유사체'를 따르고 싶어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유사체가 우리에게 신념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이 전부라면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신이'와 '영험'의 세계가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번뇌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체득한 인생살이의 방도를 건네는 메신저로, 천문, 지리, 인사라는 강호동양학의 3대 과목을 우리 콘텐츠로 끌어들인 독보적인 강호동양학자로 고군분투해왔다. 저자는 길 위에서 모은 웅숭깊은 이야기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화'를 만나 그 깊이가 더해졌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네팔을 두루 돌아다니며 채집한 이야기들이 그의 생생한 현장체험과 〈산해경〉 〈주역〉 〈동국여지승람〉 〈삼국유사〉 〈정감록〉 등의 문헌을 통해 '천년고찰 통도사에 얽힌 동서양 신화 이야기'로 재탄생한 것이다.

신과 인간, 자연을 톺아보는 신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통도사 창건 신화와 동서양의 새 숭배 신앙을 다룬다. 또한 우리나라 산의 명칭에 날짐승(닭, 기러기, 독수리, 봉황)이 들어가게 된

통도사 창건신화와 신앙 등 소개
저자, 한중일 등 6백여 사찰 답사

연유를 네팔과 미국 등 전 세계의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우리 고유의 민속신앙과 불교신앙의 카테고리에서 확장된 동서양 신화를 들여다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부에서는 통도사 절터에 깃든 용의 신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계자인 독수리 신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상상속의 동물인 용이 실재했었다'는 설(說)의 근거를〈주역〉과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찾아본 색다른 시선이 눈길을 끈다. 그의 말대로 신화적인 동물들의 출현은 보통 사람이 아닌, 영적인 눈(眼)이 열린 사람들의 말을 누군가 듣고 기록한 내용들일 것이다. 직접 현장에서 채집한 이야기를 옛 문헌과 다양한 참고 자료로 고증한 조용헌만의 '살아 있는 공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마지막 4부에서는 불교의 암흑기였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통도사를 지켜낸 혜경스님, 구하스님, 경봉선사, 월하스님 등 고승들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에 수록된 동양화가 김세현의 수묵화 작품들은 조용헌의 글과 만나 쾌미를 고조시킨다. 조용헌의 담박하면서도 장쾌한 메시지를 힘 있는 필치로 그려낸 김세현 작가의 작품들 덕분에 신화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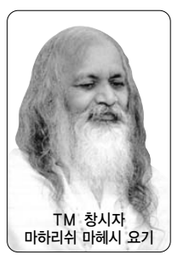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 깨달음!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불면 • 스트레스 해소
KBS(마음,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TM을 선택했나?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수면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 / 당뇨, 비만 등 신진대사 증후군 개선
내면의 평화, 삼매경 체험 /자아완성(깨달음)
"초월명상으로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입증"
2005년 5월 2일 SBS 8시뉴스, 중앙일보 의학뉴스

때 : 10월 25일 오후 8시
곳 : 방배동 활인사 법문실
(사당역 11번 출구에서 우회전 300미터, 이수초등학교 뒷편)

때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반, 목요일 오후 7시반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건물 6층)

문 의 서울 598-3152 / 010-7504-1299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브라질 전 국립학교에 도입 !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재미있고 신기한 전기 건강법과 맨손 터치 자동교정술

각종 통증 해소! 전기의 신비!
電通활락법

◎ 12년전 처음 공개 전수하여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220v전기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전기기통법! 전통활락법의 종가, 전통활락원에서 2013년 정통으로 가르친다. ***누구나 쉽게 배워 바로 쓸 수 있다. 사기를 받지 않고 손기가 없다.***

◎ 내 몸의 자생력(元神)을 깨워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신기한 자동교정법, 元神自正法(원신자정법)

◎ **공개 체험 무료 설명회** (백문이불여일견)
누구나 즉석에서 기통과 인체 활성화를 체험하는 현장! 강력한 전기 기통(氣通)의 신비를 확인하십시오

◈ **서울지역 - 10월 30일(목) 오후5시~7시 전통활락원**
전철 8호선 강동구청역 2번 출구 직진 3분 강동구청앞
(서울 강동구 성내1동 551 강동빌딩 205호)
교육문의, 예약전화 010-4724-1123

◈ **경남지역 - 11월 2일(토) 오후3시 - 5시**
광법사 (전통활락원 원장 출장 직강)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3(남해대교 옆)
위치 안내전화 055)882-1097. 011-557-2773

◎ **전수일정 (교육장소 : 광법사)**
11월 3일(일) 오전9시 ~ 오후6시

* 10월 25일까지 예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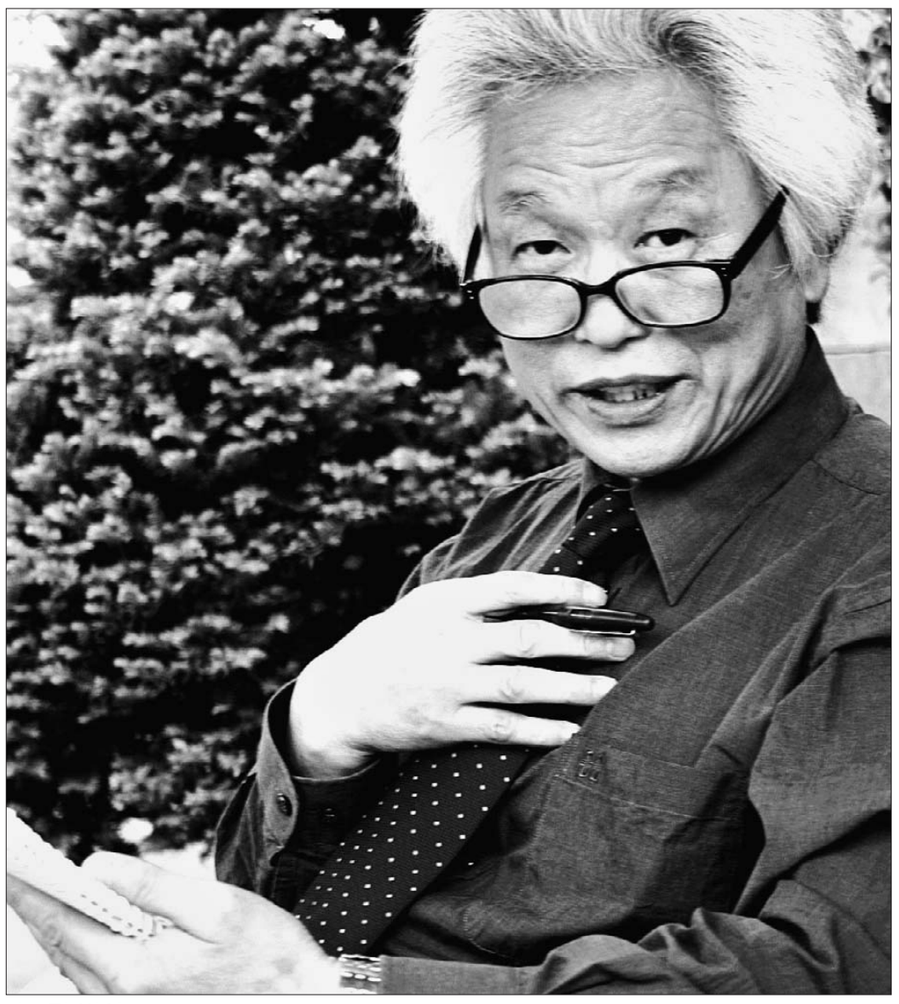
금강경과 삼가귀감 ㊤

유불도의 수행…자연과 같은 마음되게 하는 것

최동락 법사(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서산대사는 〈삼가귀감〉에서 "유가는 (마음의) 뿌리를 심었고(植根), 도가는 (마음의) 뿌리를 북돋워주었고(培根), 불가는 (마음의) 뿌리를 뽑아버렸다(拔根)"고 했다. 〈삼가귀감〉을 편찬한 서산대사가 살았던 당시는 유가의 독주로 타 종교와 사상이 통제되고, 임진왜란으로 혼란하던 시대였다. 국론의 통일과 백성들의 화합이 시대과제였고 이에 서산대사가 시대를 걱정하며 편찬한 책이 〈유가귀감〉, 〈도가귀감〉, 〈선가귀감〉을 합본한 〈삼가귀감〉이다. 〈삼가귀감〉을 다시 조명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종교와 사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금강경〉과는 어떻게 회통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정리= 배현진 기자



최동락 법사는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학과 한문강사, 본각선교원 강사, 풍류서당 원장을 맡고 있다.

1. 『유가귀감(儒家龜鑑)』

1) 유가의 심 -하늘을 받아들인 마음

유가에서 말하는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란 원천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마음의 뿌리를 통하면 곧바로 그 근원인 하늘에 이르게 되고, 하늘에 이르는 순간 하늘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유가의 핵심 논리,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늘과 하나로 통할 수 있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의 근거가 된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늘과 일체감을 깨닫는 순간, 만물과도 더불어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존재 속에도 역시 하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중용〉에는 "성(性)과 도(道)와 교(敎)의 세 구는 또한 이름은 다르나 실제로는 모두 같다"고 나와 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란 뜻이다. 도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개개인의 성을 아는 것이고, 교를 통해서 성의 도가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서산대사가 바라본 유가의 심(心)이란 천명(天命), 성(性), 중(中), 덕, 인, 경, 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한 마디로 하면, 바로 도심(道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유가에서 마음 수양법 -마음속의 하늘알기

〈유가귀감〉 속 "지금 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성을 따르는 것을 이른다"는 말처럼 유가의 마음 수양법은 마음속에 뿌리내린 하늘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마음을 기르는 첫 걸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天性),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천성, 즉 도심을 밝히는 방법은 계구(戒懼)와 근독(謹獨)으로 마음속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계구는 마음이 아직 발하기 전의 순수 무구한 허공과 같은 상태의 함양(涵養)공부를 말하고, 근독은 마음이 막 발하는 순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성찰(省察)공부를 말한다. 계구는 아직 일념(一念)이 일어나기 전의 공부(未發)고, 근독은 일념(一念)이 일어난 후의 공부(已發)다.

만약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은 천지만물과 일체가 되어 행동에 걸림이 없다. 이러한 마음은 저절로 남을 배려하게 만들고, 남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결국 남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므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러므로 유가에서 행하는 수양법의 출발은 바로 마음속에서 순수 무구한 지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늘이 만물을 길러내듯, 모든 대상을 길러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남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도달처가 된다.

그래서 〈유가귀감〉에서는 "함양은 정(靜)의 공부이니 하나의 주재(主宰)가 엄숙한 것이요, 성찰은 동(動)의 공부이니 정념(情念)이 일어나자마자 깨달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미롭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보고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수양의 공부는 외물과 접하지 않았을 때의 타고난 본마음을 함양하는 정(靜)의 공부와 외물과 접했을 때에 마음이 발하는 순간을 살펴서 바르게 응(應)하게 하는 동(動)의 공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무상(無相)'에 관한 구체적인 말이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가 하늘로부터 근원하여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져서 그 근원인 하늘의 빛과 마음속의 빛이 하나가 될 때는 유상(有相)의 세계를 벗어나 무한한 하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의 빛과 하나가 되면, 주렴계가 말하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란 말이 된다. 이러한 경지에까지 마음이 이르러서 하늘과 같은 무한한 변용이 일어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주(住)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에서 그 본마음을 낼 수 있다"는 뜻과도 통한다.

2. 『도가귀감(道家龜鑑』

1) 도가의 심 -자연을 향한 마음

〈노자〉에서는 마음을 두고 "어떤 물건이 혼성(渾成)하여 천지(天地)보다 앞서 생겼으니, 지극히 크고 지극히 묘(妙)하며, 지극히 허(虛)하고 지극히 신령(神靈)스러우며, 한없이 넓고, 뚜렷하게 밝으나 방위로도 그 장소를 정할 수 없고, 겁수(劫數)로도 그 수명(壽命)을 헤아릴 수 없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다. 〈노자〉의 마음은 곧 도(道) 또는 대(大)인데 서산대사는 이를 심(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심이란 도라고도 할 수 있고, 도심(道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도심은 시간적으로는 천지보다 앞서 생겼으나

불교
유상 벗어나 무한한 마음이 되는 것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상통

유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마음
마음 수양은 천성을 따르는 데서 시작

도교
마음은 우주 · 자연과 같아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마음 수양

그 수명은 무한하고, 공간적으로는 한없이 넓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늘 신령스럽고 환하게 밝다고 하였으니, 바로 우주(宇宙)와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천지의 여관이요,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다"는 말처럼, 우주와 같은 도심 속에서는 천지만물도 잠시 쉬었다 가는 여관이 되는 것이다.

우주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으므로 자연(自然)이란 말과 같다. 자연인 우주는 본래 하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개개인이 바로 작은 우주이자 자연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의 마음에 심어진 우주심(宇宙心)을 통하여 누구나 자연과 하나로 통할 수 있다. 그래서 〈도가귀감〉에서는 "이 마음은 나가는 데도 근본이 없고, 들어오는 데도 구멍이 없으며, 실상이 있어도 처할 데가 없으며,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한다. 우주가 쉼 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삼라만상을 길러내듯, 사람들의 움직임도 마음과 같이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있고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고 없는 것이나,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심오하고 또 심오하여, 온갖 묘한 것의 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을 통해 보면 노자가 말한 마음은 바로 도심이면서 여관이고, 우주면서 만물이 나오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도심은 곡신 (텅 비어 있으면서도 밝고 신령스럽고도 묘함)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재(하늘 · 땅 · 사람)의 근본이 되고,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2) 도가에서 마음 수양법 -마음에 펼쳐진 자연

도가의 마음수양법은 외물(外物)에 의한 모든 인연 작용을 끊어버리고, 오직 마음의 묘한 이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체인 도가 자연스럽게 덕으로 작용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러므로 진인(眞人)은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기운을 안고 있다"는 말처럼, 자연을 본받아 진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한 자연과 천지에 흐르는 자연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도를 얻는 사람은 궁(窮)하여도 즐거워하고, 통하여도 즐거워하였다. 그가 즐긴 것은 곤궁(困窮)이나 영달(榮達)에 있는 것이 아니니, 곤궁과 영달은 바깥 물건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외물에 관계없이 스스로 자연인으로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수양을 하게 되면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군자는 그것을 본받는다"는 말처럼, 사람은 마음을 확장시켜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스스로 수양을 통해 하늘과 땅과 만물과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자연의 경지에 이름으로써 저절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도가귀감』에서는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자연과 한 마음이 되도록 확장시켜, 만물과 더불어 사는 것이 최상의 수양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으나 항상 선인과 더불어 하고, 하늘의 도는 말하지 않으나 잘 응한다"는 말과 같은 경지에 노닐게 된다. 하늘의 도는 곧 자연이고, 도심이다. 자연의 도는 각자 마음에 내재한 도심을 따라 선(善)한 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그 선한 행위에 응할 뿐인 것이다.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무엇을 믿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행동에서 본래의 선한 마음이 드러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도가에서 선을 따라 응(應)한다는 것은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빈 골짜기는 잘 응해주고, 빈 방에는 햇빛이 밝다. 사람이 능히 자기 몸을 비워서 세상에 놀면 누가 능히 해롭게 하겠는가"하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비움의 방법이다. 항상 자신의 욕심을 비우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밝은 빛과 같은 자연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가에서, "미발시(未發時)의 순수 무구한 지선의 마음을 보존하고 있으면, 외물에 응하여 발하는 순간에 저절로 외물과 화합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또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주(住)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에서 그 본마음을 낼 수 있다"는 말과도 통하게 되는 것이다.

〈도가귀감〉에는 "세상에서 작록(爵祿)에 얽매인 사람은 그 좋아하는 바로 인하여 얽매이는 것이다. 내가 만약 좋아하는 것이 없다면 만물 밖에 벗어날 것이니, 누가 얽맬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순간순간 이어지는 삶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이는 것은 바로 세속의 작록을 잡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잠시 스쳐가는 하나의 외물 현상일 뿐인 작록을 잡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은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극(無極)으로 세우고, 태일(太一)로서 주관하면, 움직임은 물과 같고, 고요하기는 거울과 같고, 응하기는 메아리와 같게 된다"는 말처럼 스스로 마음을 거울 같이 맑게 하여 무극으로 비워서 사물에 응하게 하면 된다. 이 말을 『금강경』에 대비해 보면, 무극(無極)이란 무상(無相)과 같고, 태일(太一)은 무주(無住)와 같고, 메아리와 같이 응하는 것은 묘유(妙有)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계속〉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성냄이 사람을 망친다.
잡초가 밭을 망치듯 어리석음이 사람을 망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교직경력 17년 스님 직강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금강송 분양
12년생 금강송 (높이 3 ~ 4m)
700 그루 보유
(10그루 단위 출하)
일반조경용, 사찰용,
전원주택용 등
문의 010 - 2573 - 2032

범음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점안의식,천도49제,구병시식,
산신,수륙대제,안택,
산사음악회 등,천수,사다라니
사물 송주 북,바라,
나비작법,회심곡 등,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사찰불공 접수 받습니다.
010-8829-4578 성불사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과정 :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
다루는법 사시예불,도량석,쇳송,
각단예불,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천도재,49재,점안식,예수재,수륙재등
작법과정 : 바라무(요잡바라,천수바라),나비무
수시모집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010-8612-6914 총무스님
각종법회 행사 모셔드림(상담문의)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대승불교염불원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받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산사음악회, 위령제
010-8677-2861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수행할 비구니스님과
초보자 남녀행자스님
모십니다
(경주지역)
011-534-3345
010-4580-8394

최면 전생 빙의 특강
• 최면 우울증 심리치유 빙의치유
• 빙의, 몸안의 병 찾는법
(비법:6회완성)
•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기위주 속성)
• 최면 배웠으나 활용이 안되시는 분
• 빙의를 확인하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055)221-5182

천상을 여는 지장 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신병,천병,
우울증,병명없이 몸이 붓고 아프고,
가정우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
스님, 법사, 보살 상담환영
010-2418-622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악성 피부질환 해결
전통자연치유비법으로
무좀,종기,습진,골수염,
피부염,축농증,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 무료해결 합니다.
010-3028-6579

법당 화주보살 모십니다
- 불심 신심이 돈독한 일천불
권선하실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 불심으로 귀의 할 출가 여자
행자 모집합니다
(부산 금정구)
010-6390-18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10-3764-36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633-8445

비구니 스님
선방에서
공양주로 일하신 분
구합니다.
(경주)
010-9199-7096

전세구함
신도가 어느정도 있는
도심사찰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지역,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010-4668-12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1)558-883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천은사 보리수 나무
나무 굵기 50 ~ 60cm, 나무크기 5 ~ 6m
꽃피고 열매 맺음. 보리수 열매 둥글게 맺는 나무.
보리수 염주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내외로 키웠습니다.
총 14그루, 그루당 400만원
010-2280-4800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승사
• 주 지 : 청복 (이종복)
• 주 소 : 인천 계양구 계산1동 956-8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재)한국불교 중흥교원 귀중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경사
• 주 지 : 건우
•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480-9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명리(영가찾는 법)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ttp://cafe.naver.com/baikamsa.cafe)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서울 : 11. 1(금) 오후 2시
- 대구 : 11. 2(토) 오후 2시 [접수 053)944-3272]
○ 대 상 - 명리 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한 맺힌 조상 찾는 법,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4.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딛히는 가정
5.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통신반 모집
☞ 강의를 1번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교재로 동영상강의)
백암역리원 02)597-1101.010-9150-2284
1. 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대구출강 053)944-3272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다. 술은 현명함을 몰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리고 망령된 행위로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 대애도비구니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부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3개
- 대지 : 120
- 가액 : 10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신 도 시 사 찰 안 내

♣ 아파트 8,000세대 신도시
총 1200평 (대지 700평, 야임 500평)
목조 대웅전 22평 목조 삼선각 6평
요사채 슬라브 2층(방 6칸)
※ 백화점, 법원 200M 거리내, 주차장 200평
총 양도가 8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사찰안내: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종교용지 : 1100평
- 법당 : 30평외2채(전통)
- 요사 : 60평
- 가액 : 17억5천

- 위치 : 서울포교당
- 면적 : 40평
- 3층건물에 3층
- 전철역 5~10분사이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좋은위치
- 보증금1천만원/월80만원
- 시설비는 무료보시함
- 5층중3층 약200㎡(65)
- 중심가이며 시설 잘된 포교원

010-7347-1010(사찰전문)
010-9058-6163(주지스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 2층,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직접 결정
- 모든 준비 완벽 (법회 즉시 가능)
- 중국이민관계로 급 안내

031)756-2033
010-5488-1080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총 6동(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체,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4억 8천만원(전세는 협의)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 양도 또는 반전세 협의 가능

010-5444-08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 대지 190평
- 법당 50평, 요사채, 공양간 85평
- 주차가능
- 도심속에서 조용하고 포교에
불편함이 없는곳
- 가액: 8억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양남 효동리
- 대지 임야 2500평,법당 23평
- 요사채 및 지장전 60평 , 요사채 2, 23평
- 산신각, 석가모니, 부처님
- 가액: 13억 5천만원
- 특징: 역사 깊고 아담하고 예쁜
선녀폭포가 자리잡고 있음(폭포3개)
- 기도만 하면 성불함, 계곡을 끼고 있음

054-776-0829
010-4241-400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149평, 법당: 20평
- 요사: 17평 , 요사: 10평
- 가액: 5억 7천만원
- 도심속 포교하기 좋은곳

011-811-5466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바람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 3, 욕실 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임법당
- 가액 6백만원
- 시설완벽

010-7170-2133

암 자 안 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349-13번지
마산에서 10분거리
- 삼존불 및 시설 일체 구비
- 촌집, 법당, 주지실,
공양간 창고
- 1년세 120만원

010-3869-166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등산로 입구
- 별장같은 아늑한 단독주택
- 약 40평, 1층 법당, 방2, 공양간
- 2층 방 1
- 전세 8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협의 주차 30대

010-6393-5352

지리산토굴안내

- 위치: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토지 안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5천만원

010-7242-09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21번지(대성학원앞)
- 로터리 위치
- 4층건물 3층 50평
- 보증금 1천만원
- 시설비 1천만원(시설일체)
- 월세 50만원

010-8538-6967
051)231-3014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주시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3억 2천만원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소재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2동 50평
- 기타 : 나한전(목재, 산신각, 석등)
- 가액: 2억원
- 특징: 100년 역사의 도심이 인근 사찰로
기도, 포교도량으로 아주 좋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약 20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80평, 기타: 석탑, 연못 등
- 가액: 6억 2천만원
- 특징: 도심 포교도량으로 신도가 많아
사찰 운영이 용이하며 산세와 조경이
어우러진 멋진 도량입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5848-0455/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내맥
바다와도 10분거리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산세 수려하고 600년된 소나무 경관이
좋은곳,천년 고찰자리로도 손색이 없음
- 부지 4400평, 종교부지 1000평
- 산신각 목조 9평
- 법당 30평, 요사 23평 중 불 때는 방 5평
- 양도가액: 3억 8천만원

010-8484-3917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발안 신도시
- 종목 : 사찰 (건물 3동임)
- 대지 230평 이상
- 건평 : 요사채 1층 30평, 2층 법당 28평
- 별채 신축건물 25평
- 식당겸용 방2칸 15평 이상
- 심야보일러 뒤 야산 전망좋음
- 가액: 6억 6천만원

010-3058-5660

암 자 안 내

- 최고의 기도도량
- 충북 괴산
- 가액: 5천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 주세요

010-5755-0853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대평리 시장 인근
- 3층 건물중 2층 40평
- 시설: 최상급 삼존불 중 아미타
3자동불, 양대보살
- 후불, 신중, 산신탱화 지장불,
지장탱화 108인연불
- 일부집기 완비 바로 집회 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742-552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 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밀양 IC인근
- 산림속에 위치
- 암자 적임지
- 주택허가필 , 5백평
- 평당 20만원

011-9323-86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

010-5667-0577

암자,토굴(임대) 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가창면소재
- 건물ㄷ자 35평주택
텃밭4백평
- 도심인적,경관수려하고
교통편리 ,포교최적지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010-3811-9929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도봉 세무서 뒤 기업은행 앞
- 2층건물의 2층 전관 25평
- 법당, 상담실, 방 거실겸 주방 욕실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1200만원(절충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한분만 전화요망 (부동산 사절)

010-3834-5800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대지: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좋은
경북 왜관 사찰

- 경북 칠곡군. 과학대학근방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부지 약 2천 5백평
- 대출 1억 6천포함. 1억인수가능
- 총포함 2억 6천만원

010-7246-01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부근
- 평수 163평. 삼존물 모심
- 법당 앞에 7층 석탑
관음석상 2M
- 즉시 입주 가능 산림집기일체 양도
- 가액: 6500만원 상담절충

010-8902-761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대구역 근교
- 한옥 36평
- 법당:아미타삼존불,지장보살,
신중,산신,용신,소옥불77불
- 방2, 공양간1칸,
- 현재법회중
- 가액 : 보증금500만원,월25만
- 시설비: 2천만원

010-3381-0800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3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산 종합병원 주변 대로변
- 대지 65평 3층 건물 (건축 100평)
- 1층 : 주차장, 상가
- 2층 : 생활공간
- 3층 : 법당
- 가액: 5억 3천만원

010-6361-75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부평시장
- 약 100평, 방4개, 식당 큼
- 삼존불 각탱화, 연등 400개
에어컨 대형 2대
- 화장실 두개, 시설비 3천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총 4천만원 월 80만원
- 유동인구 많음 시철 최상급
-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합천
- 총 770평
-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2평/ 다용도용 30평. 불사중
- 요사채 30평 (추가 10평)
- 연못 조성 예정지 및 주차장 , 텃밭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금 있음)
양도조건 절충가능

010-2353-99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안산 종합병원 주변 대로변
- 대지 65평 3층 건물 (건축 100평)
- 1층 : 주차장, 상가
- 2층 : 생활공간
- 3층 : 법당
- 가액: 5억 3천만원

010-6361-7582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내맥
바다와도 10분거리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5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3백만원

011-9308-0857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사찰부지 최적지
- 평수:36,500평
-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 광천사,보현사 인근,

011-886-99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7〉 지혜[般若] 바라밀

지혜는 자아의 속박 잘라내는 칼 '자각'이다

이 주제들 모두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작업해 나갈 수 있도록 지성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것이 지혜의 칼에 내포된 의미이다. 지혜는 자아의 속박을 잘라내는 칼로 간주된다. 자아의 속박을 잘라내는 대승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빠사나의 방법과 같다. 그것은 자각이다. 당신의 세상과 당신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각은 당신의 전 생애에 걸친 경험과 연관되고, 특히 명상 후 경험 상황과 긴밀히 연관된다.

당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습관적이고 잠재적인 신경증을 베어버리는 지혜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림과 자각의 느낌을 풍부하게 첨부시키는 능력은 보디사트바의 길을 걸으며 계발한 뛰어난 집중력으로부터 주어진다.

한편 당신은 무아의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그곳에서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작위적인 행위도 하지 않으며, 자아나 아트만, 또는 영혼과 관련된 것들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자아와 연관된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 경전에 묘사된 행위들이 당신의 삶 속에 배어들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명상 대상으로 삼을 '나'도 없고,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는 '있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같은 깨달음 덕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세 가지 기본

이 주제는 소승 · 대승 · 금강승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붓다의 법을 실천해 나가는 법을 대략적으로 묘사해준다. 그것은 세 종류의 가르침(소승불교의 알아차림 수행, 대승불교의 자비심, 금강승불교의 광기의 지혜)을 모두 동시에 지킨다는 느낌을 내포한다.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두 가지 서원을 지키고, 둘째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셋째 인내심을 계발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종교에 입문할 때, 그리고 보디사트바의 서원을 세울 때 한 그 약속들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아주 간단하다.

두 번째 원칙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로종 수행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당신은 자기희생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이타심을 드러내려는 그런 시도는 종종 자기 선전으로 전락하고 만다. 당신은 자신을 감옥에 내던져지거나 처형되도록 내버려둔다. 이 같은 이타적 행위는 당신의 신념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행위는 여전히 품위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은 그냥 기분에 휩싸여서, 또는 아주 광적으로 돌변해서 장기간 단식을 하거나 보디사트바 수행이란 명목으로 거리에 눕는 것 같은 온갖 종류의 이타적 전시행위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 미국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보디사트바의 행위라기보다는 순전한 자기 선전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인내심을 계발하라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인내심을 극단적으로 발휘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친구들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하지만 적들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가르치려는 사람들, 즉 당신의 문하생들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하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양극화시키는 태도는 사실 일종의 인격 숭배, 자기 자신에 대한 숭배행위이다. 이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뿐 아니라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이 로종 수행과 통렌 수행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면, 이제 영역을 넓혀 지도자나 영웅이 될 시간이 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느낌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행실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다. 이 가르침은 지혜바라밀과 연관돼 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식별해내기 시작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태도를 바꾸되 자연스럽게 머물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영역부터 먼저 보호하고 싶어 한다. 이 주제의 요점은 이 태도를 뒤집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먼저 숙고한 뒤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당신은 대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관대함과 부드러움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반대를 수행한다. 그리고 당신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가져오는 대신 누군가를 시켜서 가져오게 한다. 이 주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이와 같은 태도에도 적용된다. 또한 당신은 사태를 교묘히 모면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기를 바라며 접시를 닦지 않는다. 태도를 바꾼다는 말은 당신의 이러한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뜻한다. 즉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하도록 만들지 말고 당신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주제는 이어서 "자연스럽게 머물라."고 말한다. 이 표현에는 긴장을 푼다는 어감이 들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 않도록 당신의 기본 존재를 길들이고,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길들인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애지중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돌보고, 그 뒤에는 그저 이완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이 가르침은 아주 소박하다.

다른 사람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이 주제에서 '다른 사람을 놓고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은 타인의 작은 결점과 문제들을 집적댄다는 뜻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닌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의 원칙들을 어길 경우 계속해서 그 특정 행동을 비난해댄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흠집을 잡아



자기를 숭배하는 이타적 희생은
종종 '자기 선전' 전시로 전락해
'자각'은 전 생애 경험 · 명상과 연관

내서 그 자의 문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통렌 수행을 아주 열심히,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엄청난 오만함을 계발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엄청나게 진보했다고 느낄 것이고,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비하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이 주제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다. 그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나친 예측하지 않기

이 주제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일관성을 버려라."는 식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바보 같이 충실하지 말라"는 뜻에 더 가깝다. 보통 사람들, 또는 세속의 사람들은 자기가 적이나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친구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빚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아주 예측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면 당신은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분개할 것이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가 준 모욕을 10년 동안, 심지어는 20년 동안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주제에는 인상적인 역설이 내포돼 있다. 먼저 우리는 든든한 친구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어떤 친구들은 아주 든든하다. 그들을 전통적이거나 구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어쨌든 당신이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그 친구는 당신의 우정을 항상 기억할 것이고, 당신들 간의 신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믿음직한 친구와 관계를 맺는다면 당신은 항상 그와 맺고 있는 유대를 소중히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당신과 큰 갈등을 빚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관련된 원한을 오래도록 품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요점은 누군가와 맺은 안 좋은 관계를 기억 속에 저장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제는 다소 혼돈스러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핵심은 적대감을 오래도록 품지 말고 통째로 포기하라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측 가능하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예컨대 누군가가 우리에게 샴페인 한 병을 선물하면, 우리는 항상 식사 초대나 덕담 등으로 그 친절에 보답하려 한다. 이러한 관계 방식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대강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서히 사회를 형성해 나아간다.

타인의 공격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석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전략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소통하는 것이 이 주석서가 가르치는 내용이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실천하려고 시도하는 태도다.

타인을 나쁘게 말하지 않기

당신은 헐뜯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어한다. 설탕과 아이스크림을 발라 외관을 보기 좋게 치장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내심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복수를 하고 싶어한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태도는 당신 자신의 미덕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자신의 미덕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과 수행 모두에 적용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행을 더 잘 닦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누구 누구는 사마타 수행시 집중을 유지하는 시간이 나보다 짧아. 따라서 내가 더 나아.", 또는 "누구 누구는 나보다 이론에 약해." 근본적으로 이러한 말들은 "저 사람은 멍청하고, 나는 그보다 우월해."라는 말을 에둘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주제가 아주 직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잠복한 채로 기다리지 않기

이 주제의 티베트 원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잠복하지 말라"가 된다. 여기서 잠복이란 공격을 하기 위해 누군가가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말한다. 당신은 그 사람이 덫에 걸리거나 문제에 빠져들기를 기다린다. 당신은 그들에게 불운이 닥치기를 기다리고, 그것도 당신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운해지기를 희망한다.

누군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당신은 보통 그 사람을 즉시 공격하지 않는다. 힘이 달리는 입장에 처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은 그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야 공격을 가한다. 당신은 가끔 그의 조언자인 것처럼 위장한 채로 그를 공격하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 상대방에게 지적해 보인다. 당신은 말한다. "난 너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기다려 왔어. 지금 너는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난 이 기회에 네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해주려 해. 난 너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어." 이것은 일종의 기회주의적이며 강도들이나 취하는 접근법이다. 잠복한 채로 기다린다는 말은 이 강도식 접근법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자주 발생한다.

뒤틀린 행동하지 않기

뒤틀린 행동이란 당신이 어쨌든 결국 최상의 것을 얻으리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악의 것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아주 비겁한 태도다. 당신은 당신의 스승과 학생, 삶의 상황 등 모든 것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자신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것을 알면서 항상 책임을 떠맡는 아주 자애로운 사람인 체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선행처럼 보이는 행위 뒤에 숨어있는 실제 동기인 일종의 여유와 과시를 폭로하고 있음으로 노골적인 주제다.

뒤틀린 행동은 종교적 유물론의 한 형태다. 그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 한다는 은밀한 동기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 또는 수행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로종(lojong)을 매우 열심히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주제는 수행으로부터, 그것이 즉각적인 것이든 장기적인 것이든, 개인적 이득을 얻어내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훈련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참글세상'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963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 IC 3분거리
- 부지 : 1740㎡(527평)
- 법당 : 109㎡(33평) 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 132㎡(40평), 방3, 거실1, 다용도실2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 2억 6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2544-484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통도사 부근
- 2층 80평, 법당 20평, 방4칸
- 옥상도 넓어 다용도 사용가능(2층 단독계단)
- 보증금 : 일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비구니 스님이 운영하기 적합한 장소
- 개인건강상 경북영양토굴로가서 급 안내

010-6638-22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 대지 120여평 • 임법당 20평
- 요사 15평 • 창고 7평
- 차량 마당 진입 가능
-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10-6308-7320

절 터 안 내
- 위치: 싼땅 양도, 감악산 줄기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 황둔리 대지. 산 합 945평
- 황둔 3분거리, 작은 야산
- 조용한 위치, 버스길 인접
- 양도가: 9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 2동
- 용호시장 입구 신협 옆
- 4층건물 중 2층 (자비원)
- 법당, (관음) 방2, 공양간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1-597-8889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 구산동산
- 현재 사찰하고 있음
- 평수 650평, 땅값만 받고 양도함
- 평당 40만원 협의 불가 (법당 조립식,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스님 건강문제로 급히 양도함

010-3800-680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입구)
- 2층 건물 2층 20평 법당, 방2개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구 서초구 양재동
- 5층건물 5층 전층 약 40평
- 구조: 법당, 큰방2개, 작은방1개, 공양간 겸 다실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소불 108분 모심
- 냉난방 및 법당, 주방시설, 전부 갖추워져있음
- 보증금 2000만원-140만원 시설비 절충

010-3634-3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버스정류장 앞
- 평수 : 2층 25평 3층 25평, 법당 옥상, 옥탑방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1600만원

010-7139-556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화왕산 군립공원 입구
- 총평수 : 약 2만평
- 고려 일미사지터로서 남향 양지 바르고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산세수려)
- 건축 허가완료 건축가능
- 전기는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동력으로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010-5015-1022

도심속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산시 하양
- 시부지 약 삼사백평
- 법당, 공양간, 방3개, 욕실2개
- 삼존불, 칠성, 신중, 산신
- 사글세 년 200만원
- 시설비 상담
- 즉시 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010-5691-4200
010-6527-400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목련이 귀신돼 남달왕과 백성을 제도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2)

남달왕이 무한한 복을 짓다

사위국에 남달이라는 왕이 있었다.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은 온순하면서 믿음이 있었으며, 임금과 신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도로써 이끌었다.

후왕이 즉위하자, 법과 풍속이 차츰 가벼워지고 정치와 행이 평등하지 않았으며, 왕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굴고 죄 없는 이를 멋대로 베었으므로, 바른 것은 어지럽혀지고 재앙이 응하여 비는 제때 내리지 않아 오곡이 익지 않았으며, 서로 요괴한 짓을 하여 마침내는 거칠고 잔악해졌으며, 왕은 위험과 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악한 도를 가르치는 5백의 외도들을 받들어 섬겼다.

또 요망한 신을 섬기는 풍조가 번졌고, 백성들은 다투어서 나쁜 짓을 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죽였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도리를 따르지 않았으며, 남의 부녀자를 간음하였고, 임금과 신하는 늘 취해 있었으며, 미혹은 날로 자랐다.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지자 임금과 백성들이 청하고 기도하였으나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은 왕에게 말했다.

"이제 큰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어린 사내아이 일곱과 흰 소와 흰말 각각 열 마리씩을 불에 태워서 하늘에 제사지내야 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제사를 준비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나라 안이 흉흉하고 소란스러움을 보시고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남달국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몹시 고생한다. 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해탈을 얻어야 할 것이니, 가서 개화해야 할 것이다."

목련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며 그의 뜻을 풀려 하였으나, 나라 안의 백성들은 애초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련은 키가 수십 길이 되는 큰 귀신의 몸으로 성문에 버티고 앉아 큰 소리로 왕과 신하들을 부르며 나오게 했다. 임금과 신하들은 당황하며 두려워했고, 왕은 이내 가까운 신하들을 데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살려 주십시오."

귀신이 왕에게 말했다.

"신하로서 충성하지 않고 아들로서 효도하지 않는 자를 급히 찾아오너라. 내가 잡아먹겠다."

왕은 이내 여기저기 물어보고서 대답했다.

"없습니다."

이때 목련이 다시 진짜 몸을 나타내고 가서 귀신과 함께 말을 하자, 왕은 목련을 보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했다.

"청을 들을 터이니 저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하소서."

목련이 왕에게 말했다.

"이 귀신이 무엇을 구하려 합니까?"

"나쁜 사람을 잡아먹겠답니다."

목련이 물었다.

"나라 안에 진실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거듭 청합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평생토록 도인에게 귀명하겠습니다."

목련은 큰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안의 백성들 중에 그대가 찾는 이는 없소. 그대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오. 만약 다시 범하는 이가 있다면 다시 와서 잡아먹으시오."

그러자 귀신이 그 말을 듣고 홀연히 떠나가 버렸으므로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이내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고서 귀명하기를 청하니 목련이 말했다.

"왕께서 만약 귀명하시겠다면 먼저 부처님께 귀명해야 합니다. 왕이 부처님의 공덕을 물으므로 목련이 말했다.

"부처님이야말로 삼계에서 홀로 높으시고 말씀하시는 법의 음성은 삼천세계까지 들립니다."

목련이 설명하자 왕이 말했다.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기이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삽화 · 강병호

이내 목련에게 여쭈었다.

"부처님을 청하여 높으신 법의 음성을 받고 종신토록 받들어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련이 왕에게 말했다.

"진실로 그러할 수 있다면 그 복은 측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깨끗이 하여 부처님께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내 가르침을 받고 목욕재계하고 멀리서 부처님 나라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면서 말했다.

"제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되었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나라를 공허하고 거칠게 했으니, 허물은 저의 몸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드리우셔서 널리 백성들이 끝없는 복을 얻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오시다가 백 리쯤의 거리에서 미리 공중을 거니시자, 다섯 빛깔의 연꽃이 발아래를 받쳤으며, 여러 하늘들은 돕고 따르면서 보배 장막과 꽃 일산으로 길에서 받들어 맞이하였고, 여러 이름난 음악이 울리면서 공중을 꽉 채웠다.

부처님의 거룩한 신력과 천지가 빛나는 것을 보고 왕과 신하들이 발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네거리에다 널리 장막을 펴며 쓸고 뿌리고 깨끗이 하여 놓자, 부처님께서 저절로 된 사자자리에 앉으시니 깔린 천은 모두가 하늘 비단이었다.

왕은 손수 음식을 나르고 몸소 물을 돌렸으며, 축원을 마치고 부처님께서 괴로움과 공과 무상과 4제의 법요를 말씀하시자 왕은 기뻐하면서 5계 받기를 청했고, 맺음이 풀리고 때가 없어지면서 수다원이 되었다.

그때에 왕이 섬기던 5백의 외도들은 비구가 되기를 청했고, 부처님께서 이내 허락하시면서 손으로 그들의 머리를 만지시자,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가사가 몸에 입혀졌으며, 그로부터 7일 후에 다 같이 아라한이 되었다. 모였던 백성들도 수다원이 되었고, 혹은 5계를 받아 부지런히 열 가지 선행을 하며 3존께 귀명하여 매달 6재와 매년 3재를 받들면서 차츰차츰 서로가 이끌며 늘 행하는 법으로 삼았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왕과 백성들은 전생에 목련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유위불(惟衛佛) 때에 목련은 우바새였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계행을 받들어 행하였고, 뜻을 수호하며 깨뜨리지 않았다. 산에서 꽃을 따다가 수문나무를 보고 나무에 올라가 꽃을 따려 했는데, 앞에 벌집이 있는 것을 몰랐다. 벌떼 수천 마리가 놀라 흩어지면서 달려들었으므로, 생각하기를 '만약 내가 도를 얻으면 너희들을 제도하리라' 했다. 오늘에 도를 얻은 이들은 모두가 그때의 벌들이다. (〈남달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㊷



말이 준 교훈
(言)

말 한마디

우리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애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우리 집에 놀러왔다. 애기 엄마는 내가 현대불교에 연재하고 있는 '바라밀 일기'를 즐겨본다며 만날 때마다 과찬이다. 그리고 신문이 나올 때마다 이번엔 어떤 글이 실렸을까 궁금해 하며 연속극 기다리듯 다음 글을 기다린다고 했다. 나는 고맙기도 하고 과찬에 쑥쓰러웠다. 애기엄마는 그동안 내 글을 모두 스크랩했다며 모아 두었던 스크랩북을 들고 왔다.

우린 평소에도 서로 잘 지내는 사이였지만 그날은 더욱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부처님께 절 할 때 방석위에 덮개로 쓰라며 내가 물감으로 그린 깔개 하나를 선물했다. 이웃에 좋은 인연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지 싶다. 더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 관심이라는 것이 곧 정성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누군가 나의 글을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쓸 일도 가벼이 여길 일도 아니었다. 더구나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나의 글을 읽고 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오는 일들도 종종 있어 더욱 글쓰기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 불러
제삿날 하루만이라도 효도하고파

2주 전에 썼던 병아리(구족이) 이야기를 읽은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서울의 아들 가족이 계란(유정란)으로 엄마 닭 없이 인공부화하여 태어난 병아리 세 마리 이야기였는데 신문사 편집자의 윤문 과정에서 글의 원뜻과 많이 달라지게 됐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들이 키운 닭이 병아리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잘못 묘사되어 지인은 아들이 닭을 키우느냐고 물었다. 또 추석날 데리고 온 병아리를 마당 있는 집으로 데려다 키우게 할 생각이었다는 말도 잘못 전달되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내가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지인들 중에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주택으로 이사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 많이 당황스러웠다. 결국은 내가 글을 꾸며서 쓴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말이란 이렇게 글자 한자 잘못 전달되면 한 순간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아들은 현재 모 회사에 근무하고 며느리는 미술관에 근무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글자 한자에 그 사람의 삶이 순식간에 변해버릴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아무튼 그 글이 나가고 나서 나는 글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리고 신문사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

잠결에도 바른말 진실한 말로서 자신도 속이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함을 생명처럼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됐다.

제삿날

몇 년 전 큰오빠가 홀연히 운명을 달리 했다. 오빠는 전 해부터 가실 것을 예감을 하셨던지 집안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제사를 아들 셋과 세 며느리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지금부터는 제사를 모아서 지낼 것을 당부하며 대신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지낼 것을 당부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딸인 나로서는 섭섭함을 금할 수 없어 큰 오빠의 당부를 이해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출가외인이지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다. 그 다음해에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 제삿날이 되어 친정집으로 가지만 이제 위로 어른들은 다 떠나시고 올케언니만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어 마음 한편 서글퍼지기도 하여 걸음이 무거웠다.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과 우리 내외 그리고 작은 올케언니랑 갖가지 과일과 제물을 사가지고 갔다. 과일을 가득 담으면서 유독 눈에 들어온 과일이 감이었다. 예전에 감 밭을 크게 해서 감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어릴 적 마당 한쪽에 손이 닿는 감나무 가지를 잡고 잘 익은 감을 하나씩 돌려 따먹던 기억이 났다.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엄마도 오빠도 그 옛날에 참으로 즐겨 드셨던 감이었다. 특히 나무에서 홍시로 익을 때면 곱게 따서 소쿠리에 담아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 사랑방에 들여 놓으면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 올 때를 기다렸다가 사랑채에서 꼭 안채로 보내 주시곤 했었다. 오늘 문득 감을 보면서 어릴 적의 추억이 떠올랐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 흔하지만 그 옛날 시골의 엄마들은 임신을 해도 신 음식이라곤 살구와 매실만 보아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고 싶다는 말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일까지도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인데 몰라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때의 엄마 모습이 오늘따라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다. 제상에 가득 차려진 많은 음식과 과일들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지금 이 모든 음식과 과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랐다. 그동안 불효만 한 것 같아 가슴 아팠는데 하루만이라고 용서 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차례대로 모셔진 위패를 향해 나는 한 분 한 분 조용히 모습을 떠 올리며 은혜를 기려보았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템플스테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 선 엮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선이야기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부 방편!
거사풍 불교를 일으켜 세운 백봉 선생의 새말귀 수행!



백봉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간추려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안경애 편집/신국판/35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악이든 선이든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마음공부 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겠죠?

문)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알고자 하는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답)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남편에게도 하지 말고, 여자에게도 하지 말고, 자식에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인의롭게 슬슬 돌려서 좀 거북하게 걸리지 않도록 말을 잘해 주면서 안으로 굴리라고요. 안으로 굴리는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그쪽 마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왜? 내가 그쪽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선지식들도 부처님도, 역대 조사들이 다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그 한마음이라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한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진리라고도 할 수 없고 또는 묘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역대의 조사들이 어찌 스러져 가면서 불을 태우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공부를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공장을 하나 하든지 무슨 기술을 하나 배우든지 피나는 노력을 안 하고는 돈을 벌 수도 없거니와 기술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헌 과목이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어떠한 기술이든지 어떠한 공장을 하든지, 어떠한 과학자든지 철학자든지, 뭐든지 하여튼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흥청망청 그저 해 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흐지부지해 버리고 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이 망하듯이, 집안이 망하면 나라도 좋지 못하죠. 나라도 망해요. 인군이 마음이 흔들리면은 신하도 마음이 흔들리고 국민이 마음이 흔들리고 전부 안됩니다. 그렇듯이 이 몸에도 지금 내 오장육부 속의 세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내 한생각이 흔들린다면 그것들이 다 흔들려서 내 집안은 망하게 되는 거죠. 내 육신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전체가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투면서 아, 내 가정에 들어와선 가정, 내 몸으로 봐서는 내 몸, 또 사회에 나가선 국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 나툼이 옮겨다니면서 수없이 천차만별로 생각 생각 해 가면서 성품의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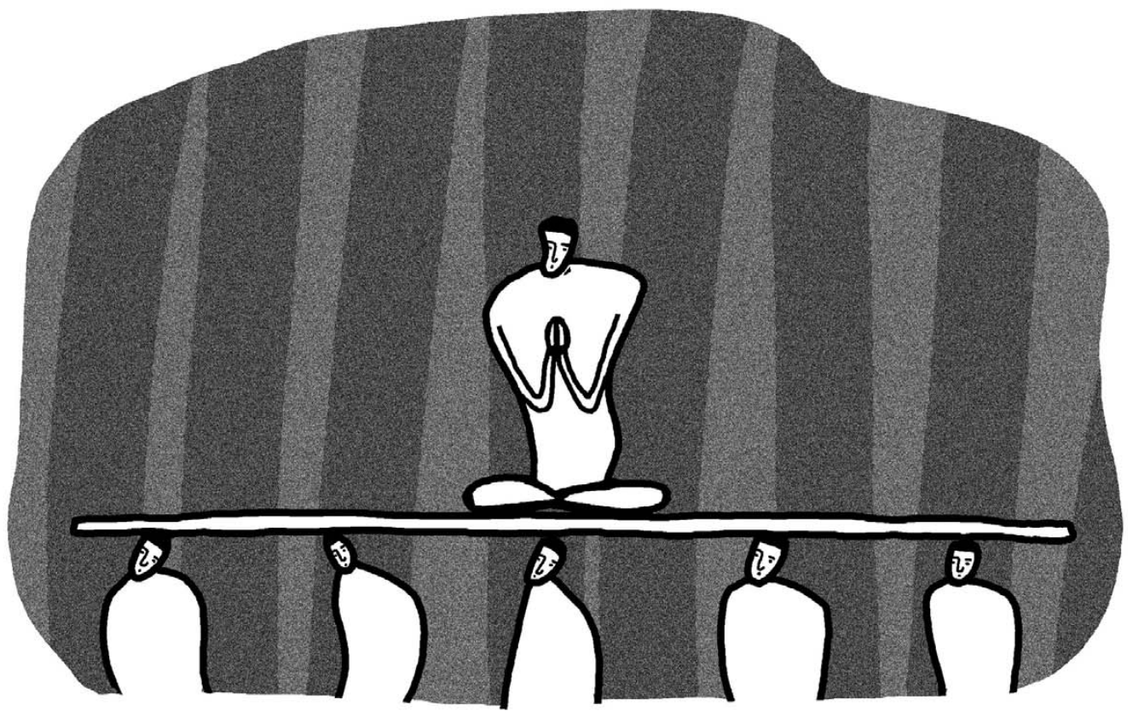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이 공부 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노력하는 것도 놔라 하는 것이 그걸 놓고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노력하는 것마저도 놓고 노력하라. 하지 말되 하고 하되 하지 말라. 안 하되 하고 하되 안 하라. 놔라. 놓되 해라. 이 모두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각자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건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르니까 그 마음을 알자고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리를, 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은 참 세세생생에 우리가…. 한 말 항상 하지마는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또 옷을 벗고 모르고 또 옷을 벗고, 좌천돼서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끌려다니면서 역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사시면서 돈을 벌려고 피나는 노력 하는 거, 또는 살 양으로 노력하는 거, 그것을 떠나서 스님들처럼 노력을 또 해서 공부한다면, 똑같은 노력이라면 참 으뜸가는 노력이지요, 지름길이고.

그런데 '내가 그럼 지름길로 빨리 입산을 해야겠다.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욕심도 없어서는 아니 되지만, 앞에 있는 걸 버리고 내가 먼 데 있는 거, 좋은 거 찾으려고 하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그런 인정, 도의, 사랑…, 이런 걸 모르고서야 어찌 도를 이루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 다 팽개치고. 옛날에는 사명 대사나 그런 분들은 다 팽개치고 갔다지만, 팽개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깐 팽개친 거지, 환경도 되질 않는 걸 억지로 강제로 팽개치고선 내가 도를 이루겠다고 달아나가 봤자예요.

그 말 한마디 잘못 대답해 가지고서 여우의 몸을 받아 가지고 오백 생을 지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왜 울고불고하면서 간절히 그 여우 몸을 벗기려고 무척 앨 썼을까? 어차피 여우 몸으로 바뀌었다면 여우로서 이 우주를 통치해서 그냥 집어삼킨다면 여우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리를 모르는 것보다도 더 위세하지 않을까? 내가 여우의 몸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고생이 되지, 여우의 몸으로서 받아서 여우로서 지내는 그 삶도 역시 내가 착을 버리고 여우라는 그런 생각도 없었다면 아마도 여우로서 온 우주를 활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서 모습도 아이, 여우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어떤 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슨 모습이라고 할꼬?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꼬? 이 세상에 구더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구더긴들 어떠랴.' 이겁니다. 구더기면 똥통 안에 들어가서도 구더기기 때문에 그 구린내가 아주 좋은 냄새로, 요리 냄새로 되거든요. 그러니 구더기로 된다고 애틋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인과를 받아서 잘못될까? 좌천이 돼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오면 어쩌나? 또 앞으로 고를 받으면 어쩌나? 이런 것도 모든 걸 놔 버려야 해요. 순리적으로 물 흐르는 대로 흘러서 가지, 내가 뭐가 되든지 뭐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보자면은 벌레를 봐도 '아유,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나?' 이러지만, 파리를 봐도 '아유, 저거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나?' 이러지마는 파리는 파리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염두를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 나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서 나온 거, 그 그림자니까 모든 거를 거기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괴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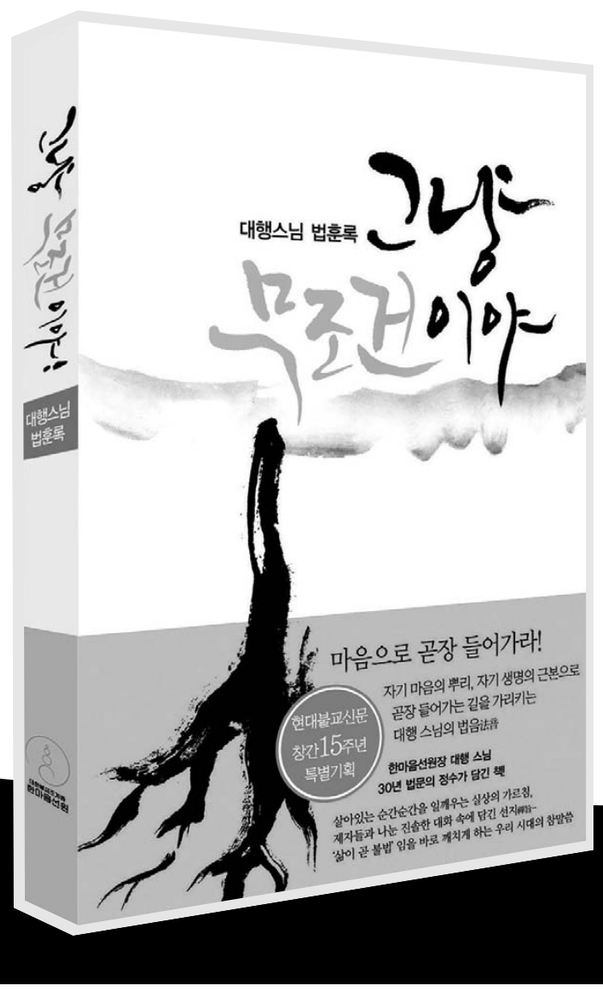
문)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고 몸은 몸대로 축나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갖은 각색의 괴로움이 바로 적다 크다 그것뿐이지, 괴로운 건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집 어느 집 쳐 놓고, 내가 쭉 계속해서 한 30년 내려오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토론해 보고, 이러한 내가 아는 비밀만 해도 수천수만에 달해요. 참, 그 당대에 생기는 문제, 2대에 생기는 문제, 유전성, 인과응보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인연, 그 인연줄을 끊지 못하고 얽히고설켜서 앨 쓰고 사는데, 그런 까닭에 가난도 거기에 좇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가난한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어떤 우환, 가환, 병…. 또 병도 그래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병들이 인간으로서는, 의학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많은 그런 걸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끊어 주는 게 시급한 것입니다. 뿌리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모르고 '나는 지금 급해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어서 왔는데 주인공 찾으래.' '저이는 저 남의 급한 걸 모르니깐 그렇지 그래, 저 말이 나와?'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를 당신네들이 모르니깐 그렇지,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안다면 내 주인공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아라 이겁니다. 모든 일체 만법은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게 되면은 바로 그 우환, 가환, 병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용광로에 놓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새로 생산될 건 생산되고 바로 녹여 버릴 건 녹여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환을 면하고 우환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내 마음의 지혜를 넓히고, 넓히면 넓힌 그 마음이 무기가 돼서 일체 만법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때에 내 근본의 인간이 거기에서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당장 급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공부할 새가 뭐 어딨어?'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게 바로 나로부터 나온 거니까 나로부터 거기에다가 모든 거, 그런 거 저런 것을 다 맡겨 놔야 그것이 녹아 버리지, 나로부터 생긴 건데 거기다 놓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면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존께서도 육 년 동안 앉아서 그 모든 것을 고행하실 때 모두 항복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항복 받은 것은 왜냐? 내 몸의 중생들, 모든 것이 그것이 자기가 공부하려니까 그게 모습을 바꿔서 자꾸 앞에 탁탁,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자기 모습이에요. 그런 걸 부처님께선 '아, 이것은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항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억겁을 통해서 살던 그 습의 모습을 다 항복 받은 것입니다.

이 원점 한 점에다가, 입자 하나에다가 그냥 모두 몰아친 거죠. 그러니 항복을 받았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살아나가는 데 아무 지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온 거고,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병이 났다 이러는데 그건 이유일 뿐이에요.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걸 내놔야 모두 그것이 아주 철두철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철두철명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으로부터 철두철명해야 바깥으로도 철두철명한 거예요. 내가 안을 기필코, 눈이 밝고 청림하고 참, 오고 감이 없이 그 오관을 다 내가 부릴 줄 알아야, 소소영영하게 철두철명하게 찰나찰나 응용을 할 때 그것이 아주 참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도 허망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 탓하지 말고 모든 건 자기의 자원에 있다. 모든 건 거기에다가, 거기서 한 일이니까 거기에 놔라. 수억겁을 거쳐서 나온 어떠한 잘못,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거니깐 거기다 놓는 거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사람 하나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사람이 됐을까요? 중생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부처가 하나 났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그 속에 중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중생이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성장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됐다면 그 중생들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 중생들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그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연에 따라서 중생들이 한데 모여서 내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나왔다면은 그 수만 억겁을 거치면서 생활하던 그 습의 모습, 그것들이 모두 나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데 모여서 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뭉친 거거든. 뭉쳐서 한 사람이 생산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억 개가, 억만 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라고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이건 무시하고, 내 속에 있는 생명들을,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일꾼들은 무시하고 자기 사장, 즉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그 하나에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부분만 폐허가 돼도 자긴 죽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다.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자기 중생들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 짝이에요. 위로는 자부처와 더불어 한자리 한 부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기 중생을 제도할 줄 알아야 네 중생 내 중생이 따로 없느니라. 네 중생 내 중생이 어디 따로 있나요? 그러나 내 중생을 모르고 내 중생을 이끌어 갈 수 없을 때엔 네 중생 내 중생이 아주 낱낱이 수만 개, 억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억만 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인과를, 응보, 유전 이런 것이 자기가 한 거만치, 그것이 자기가 사는 대로 일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당대에 나올 수도 있고 2대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될 만하면 안되고, 될 만하면 안되고,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죠. 이건 누구의 짓입니까. 모두가 자기가 한 거 만큼입니다. 자기가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법이에요.

>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 진짜로 믿어야 태평해지죠.
> 진짜로 믿어야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갖다 맡겨도
> 그게 진짜로 실천으로 옮겨지고
> 그게 법이 땅에 한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게 바로 공법으로서의 공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 대신에 악을 녹이려면, 인과를 녹이려면, 유전을 녹이려면, 업보를 녹이려면 바로 내가 한 거마저도, 내가 잘했다는 거마저도 놔야 그것이 놔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몽땅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서 낱낱이, 참 주저주저하고, '야, 요거 조금 좀 낫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벌써 이미 걸린 겁니다.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탁!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시급한 것입니다. 이게 놓는 거부터, 맡겨 놓는 거부터, 믿는 거부터, 물러서지 않는 거부터 이게 배워야 그것이 다 홀랑, 나중에는 다 점차적으로 "어, 이런 게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 어느 때 보니까 웃고 살게 됐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업보의 인연줄이 없어야 바로 우리가 웃고 살 수 있고 항상 봄처럼 사시사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면 되지 꼭 관을 해야 하나요?

문) 사람이 진실하고 바르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스님들은 왜 자꾸 관하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왜 관하라고 했느냐. 왜 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기도 어렵고 괴롭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살아야만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모습은 부모의 인연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만 생명의 능력은, 생명력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원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생기면 바로 모습 아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되겠죠. 그게 '불성' 입니다. 그것이 천차만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로 절대적인 에너지 처입니다. 그래 주처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처를 자기가 각각 그렇게 영리하게 쓸 수 있다는 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몸도 공체고, 공체이기 때문에 속에 제각기 모두 분리돼서 작용을 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뚱이 속도 한 지구와 같기도 하고 우주와 같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하고,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당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모습 있는 자기는 모습 없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단 얘깁니다. 진짜로 믿어야 태평해지죠. 진짜로 믿어야 갖다 맡겨도 '너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맡겨도 그게 진짜로 실천으로 옮겨지고, 그게 법이 땅에 한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법으로서의 공용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 그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죠. 못 쓰죠. 말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죠. 또 사용하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치 못하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마음대로 하려면 그냥 그대로 자기의 실체를 그냥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자기한테 원소가 들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있으니깐 들어 있고요. 그 원소가 없으면은 자기는 송장이 되는 거고요. 누구가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요. 먹고 자고 행하는 것을 도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행하시라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너만이 알게 해 줄 수 있어!' 하고 자기 불성, 주인공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환자를 진료할 때 맡겨 놓는다면…

문)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요, 급하면은 간절하게 마음이 모아지면서 주인공과 통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몰입이 되지 않고 그냥 환자가 잘 나았으면 하고 마음자리에 맡겨 놓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 선생님이 간절하게 해서 그렇게 자꾸 되는 걸 안다면 진짜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거기서 그 인체에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니깐요.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걸 모르시지만 선생님이, 즉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열도 되고 스물도 되고요. 병자가 만약에 인체가 저거 해서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이거죽으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안으로 들어가서 막힌 걸 떼어 내야만 되겠다 한다든가, 백혈병에 대해서 뭐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그냥 자기 하나가 화해서 넷이 되든지, 그걸 수술을 하려면 셋 넷이 되어야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어서 수술을 하고 나도 찰나입니다. 그걸 인제 대략 잡고 하시다 보면, 그걸 아시게 되면 그거를 도라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깐 도란 말 없더라도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깐 평소에 진찰하면서 마음이 급하지 않고 할 때에 이렇게 잘돼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잘돼야 돼.' 하는 거죠. 그 결정이죠. 그게 결정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는 화해서 바뀌지는 걸 모르겠지만 그렇게 화해서 바뀌지기 때문에 인체로 들어가죠. 인체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하나가 거기 지키고 있어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선생님이 좁쌀 알갱이만하게 돼서 들어가겠죠. 좁쌀 알갱이도 아니고 흔적 없이, 들어가는 사이 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묘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깐 걱정 없고, 한다 안 한다 말도 떠벌일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생님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꾸 실험을 해 보세요. 진짭니다.



불자 세상보기

국민연금은 복지국가의 씨앗



이용권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노령수당을 약속한대로 20만원씩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며, 그것도 차등지급한다고 하여 나라가 시끌벅적 하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불구,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해 연금급여를 통한 장기 소득보장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그 재원은 이해 당사자의 갹출료로 충당한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국가가 시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개념에 있어서 시혜자의 기여가 없이 시행되는 공적부조(Publlic-Aid)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 차원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나 의료비,교육비,장제비나 해산비, 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령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의 국민복지 의식이 좀 모자랐던 수준이어서 복지제도의 목적이나 수단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지 않았다.

1973년에 입안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도 그러했다.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기에서 국민연금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결국 석유파동 등의 상황 때문에 뒤늦은 1988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요되는 재원충당 방식에 따라서 '적립방식(Funded-System)' 과 '부과방식(Pay-as-you-go)' 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적립방식에 부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애시당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제도 입안 당시에 40~50년 후에 기금이 고갈되는 설계였기 때문에 새삼스레 현재 시점에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큰 일이 날것처럼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나마 고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1999년과 2006년에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노령연금을 평균임금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또 50%로 하향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40%까지 줄여가도록 조정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가 복지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나 시혜의 효율성, 형평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몽니를 부릴 국민은 별로 없다고 본다. 국민연금 개정만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그럴만 하다고 납득했기 때문에 갹출료를 더 내고 시혜율이 줄어드는 제도의 변형을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노령수당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다. 물론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계획대로 100% 집행되기는 어렵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항목간 전용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계정과 노령수당이라는 계정은 별개의 계정이며 전혀 전용 대상도 아니고, 연동해서 예산 집행을 고려할 사항도 아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았을 때는 그에 상응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면 솔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믿음을 주는 일이다.

농사짓는 촌부도 먹을 것이 궁해 아사직전에 가지 않는 이상 , 파종하기 위해 곳간에 저장한 종자를 건드리지는 않는다. 좀 더 가진 사람에게 구걸을 할지언정 종자를 털어내어 허기를 면해볼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진정 국민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제도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경제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 대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령수당은 공적부조이며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의 보장이다. 국민연금은 그 기반 위에 미래 생활의 질을 담보해 가는 복지국가의 씨앗이며 가능성이다. 그 종자돈과 노인수당을 연동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국가지도자의 의식 속에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성숙된 복지국가의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자라보고 놀란 국민들의 가슴을 솥뚜껑 보고 놀라게 한다면 그것 또한 결국 국민을 놀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금강산 신계사 6주년 소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부처님 품안으로



제정 스님
前 금강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신계사 도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12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낙성 6주년 기념합동법회를 열었다.

부처님과 법기보살이 상주하시는 금강산! 그곳으로 떠나던 날 2013년 10월 12일은 금강산 신계사 낙성 6주년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기 위한 날이었다. 가을하늘은 청명하였고 흰 구름은 한없이 평화로왔다. 군사분계선은 아상에 집착한 인간들에게만 있는 선이었지, 맑은 가을은 남이니 북이니 하는 경계가 없었다.

남북의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으나, 평화롭게 금역의 땅을 오가는 바람과 산들 바람에 몸을 의탁한 산새들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화려한 깃을 뽐내는 꿩 한 쌍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우리들을 반기기라도 하듯이 길옆에서 날개짓하였다. 꿩이 날아간 그곳에는 은빛 물결로 찰랑대는 억새꽃들이 가을햇빛에 눈부시었다. 하지만 인간들이 쳐놓은 철조망은 검붉은 녹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분단 현실 앞에서 이산가족들과 남북경협 사업가들이 흘리는 피눈물로 보였다.

얼마전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준비로, 남북측의 출입사무소는 잠시 활기가 돌았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작년보다는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도로 주변의 잡초도 제거된 상태였다. 행사의 갑작스런 중단사태로 현대아산 등 관계자들이 철수한 뒤 온정각 주변은 더욱 쓸쓸한 분위기였다.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극락고개 대신 수구너미 고개를 넘어간다. 고개넘어 금강산 안자락에는 내가 4년간 불사를 했던 신계사가 있다. 나는 그곳에 부처님 품안처럼 편안하게 안겼다. 지난 대작불사 기간 같이 고생했던 북측의 동무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삭발한 스님들도 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신계사 도량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세존봉 하관음봉 문필봉 집선연봉 등은 정답게 의구하였다. 남북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 신계사는 대학입시 기도도량으로 이름을 날 것이 분명하다. 정기가 센 금강산의 문필봉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신계사 큰 법당에서는 남북의 불교도들이 거룩한 법회를 열었다. 몇 년째 법회를 하다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더 많아졌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레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듯하였다. 내금강의 표훈사 주지스님 등 지역의 여러 스님들도 참석하였으니 금강산 축제가 된 날이었다.

온정각에는 이전과 다른 간판들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남북관광 단절이 된 이후부터 북측에서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쉽지만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이곳에 있어야 할 남측의 사업자들은 지금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등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도탄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전에 광화문일대에서 '남북경협 재개촉구' 시위현장에서 만난 어느 사업가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내 손을 꼬옥 잡았다.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들이 금강산에서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社說

불광 전법은 한국불교의 성공 모델

한국 불교 도심 포교의 모범적인 성공 모델로 꼽히는 광덕 스님(1927~1999)은 1974년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 를 모토로 불광회(佛光會)를 창립했다. 도심 정기법회와 함께 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 창간, 대학생불교연합회 조직, 경전 한글 번역, 찬불가 제작, 사회봉사활동 등 '불광 운동' 을 활발하게 펼치며 산중에만 머물던 한국 불교의 영역을 넓혔다. 불광회가 1982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세운 불광사는 도심 포교당과 도심 법회의 새 모델이 됐다. 불광회의 성공은 이후 능인선원, 구룡사, 한마음선원 등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 도심 포교당이 문을 여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불교의 현대화 · 대중화 · 생활화를 기치로 한국불교 새바람을 일으켰던 서울 잠실 불광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10월 13일 신축법당을 준공하고 제 2의 불광운동을 펼칠 예정이서 주목된다. 서울 불광사 신축법당은 연건평 9664㎡(3000평)에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 현대 건축양식과 전통 불교건축양식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이다.

지상 4층까지는 현대 건축양식에 따라 대리석 건물로, 꼭대기인 5층에는 전통양식의 대웅전을 올렸다. 또 도심지임을 감안해 지하 2~4층을 하나로 터 법당인 '보광당' 을 구성했다. 지하 3층 발코니 석까지 법회를 볼 수 있는 보광당은 2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지역 최대다. 이번 중창 불사는 단지 건물만 새로 지어 외양만 화려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회주인 지홍 스님이 언급했듯이 21세기에 걸맞은 제 2의 불광 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돼야 한다. 불광의 전법 정신은 바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한국불교 발전의 해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불광회가 이번 제 2의 중창불사를 계기로 광덕 스님의 도심 포교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자비 손길을 내밀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하는 중추가 되길 바란다.

황룡사 복원과 대한민국의 염원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13년 앞둔 645년에 완공됐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과 중국과 왜의 견제를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선덕여왕은 당시 고승으로 추앙받던 자장율사에서 위기를 타개할 방도를 물었고 율사는 처방으로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제안했다.

위기의 신라가 높이 80m, 아파트 27층 높이의 거대한 목탑을 세운 이유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의 의미 외에도 선덕여왕의 복덕과 지혜, 그리고 지도력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당시 신라의 대탑 불사에 고구려와 백제의 고승들은 물론이고 석공, 목공, 도공, 와공, 대장장이 등 당시의 첨단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모여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황룡사 복원이 본격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황룡사 복원의 기간 시설인 '황룡사 연구센터' 의 기공식을 10월 21일 열었다. 2015년 완공을 목표인 연구센터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원사업에 대한 국민 홍보, 관련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주시가 2006년부터 시행 중인 황룡사 복원 사업은 2035년까지 장장 30년 동안 이뤄지는 대형 사업이다. 사업의 하이라이트인 황룡사 9층 목탑 복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진행된다. 황룡사 전체를 복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29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1500여억 원은 높이 72.9m인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하는데 쓰인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황룡사 복원 사업에는 그 옛날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선조들의 염원을 담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문화강국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문화의 복원을 통한 남북통일과 동아시아 평화의 비전을 황룡사 9층탑 복원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사) 대한불교통합선교종

통일부 장관 초청

제1회전국호국불교 통일기원대법회

한반도 평화 · 통일염원

2013, 11, 1, (금), 13시~16시

장소 : 세종시민체육관

주 최 : 사) 대한불교통합선교종

주 관 : 사)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사) 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

후 원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불교TV, 현대불교, 전국매일신문, 충청투데이, 비영리) 충남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특별후원 : 사)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 계룡시재향군인회

협 찬 : 주)남양유업, 주)진로하이트, 가온치과병원

특별공연 : **국악인 「김영임」 특별 초청공연** 주명신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 이수희 백제가야금연주단 특별공연, 「연희」 병천고등학교 풍물패 초청공연, 조정아 가야금 독주, 이선경 통일시낭송, 계룡대3군본부군악대 특별공연 등











기타 안내 및 문의사항은 제1회전국호국불교통일기원대법회추진위원회 044) 863-5582, 041) 566-2277, 추진위원장 상원스님 010) 3544-1300, 집행위원 이연우 010) 8192-8999으로 부탁드립니다.